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 알고
분노를 다스릴 줄도 알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0월 2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76호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설법의 시간 눈이 내린다. 시끄러웠던 세상이 고요해진다. 작은 눈송이 하나에 온 세상이 무릎을 꿇고 가부좌를 튼다. 수 없는 법문이 무색해지는 시간. 설법의 시간이다. 사진은 조계종 문화부가 주최한 대한민국전통문화사진공모전 대상작으로 충남 아산 외암마을 설경을 촬영한 장영섭 作 '눈 오는 날의 외암마을' 이다.
글=박재완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문화부

인터넷 1인 방송

불교 폄훼, '正法 반크'로 넘자

〈민간 사이버 홍보대사〉

동영상 사이트 불교 폄훼 콘텐츠 대책은?

스님 빙자하며 선정적 행위
높은 조회수 노려 수익 창출
제재 있어도 솜방망이 처벌
"불교 콘텐츠 바로잡기 필요"

스님을 빙자해 각종 과격한 언행에 선정적 행위까지…. 최근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인터넷 1인 방송에서의 불교 · 승가 폄훼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바로잡는 이른바 '불교 반크(Vank, 민간 홍보대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튜브, 아프리카TV, 팝콘TV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불교 관련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다.

문제는 불교, 특히 스님을 폄훼하는 콘텐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터넷 영상채널인 유튜브에서 '스님'을 검색하면 '1000도 머리에 삼겹살 구워먹기' '교회 흉가체험' '스님의 번호따기' 등 과격하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전면을 장식한다.

대머리인 점을 활용해 BJ스O으로 활동하는 한 인터넷 방송 BJ의 경우에는 '머리에 코팩하기' '페라리로 여자꼬시기' 등 콘텐츠로 많은 이들의 조회를 유도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여성을 일명 '헌팅'하는 비법을 소개하거나 이성과의 대화법을 알려주는 쥰O TV에서는 승복을 입고 헌팅하는 '스님이 번호 따기' 콘텐츠를 올렸으며, BJ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중계하는 개땡O의 경우 채널 홈페이지에 이마에 '개땡O'를 쓴 스님 캐릭터를 명시하고 '성욕해제, 역대급 성드립' 등 콘텐츠를 올리고 있다.

스님과 불교를 폄훼하는 콘텐츠는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를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인터넷 1인 방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리 감독하지만 콘텐츠 범위가 다양해 처벌은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에서는 규제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언제 발의될지 조차 미정이다.

그나마 내려지는 제재 조치도 업계 자율규제 방침 하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9월 국회서 공개된 방송통신심의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시정요구가 제기된 1인 방송 콘텐츠는 2015년 216건에서 2016년 718건으로 폭증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1220건의 시정요구 중 이용정지나 삭제 등 징계는 156건에 불과했다.

불교 콘텐츠를 연구하는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는 "법으로 모든 유해 콘텐츠를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 확산에 기반해 1인 미디어가 발전했기에 규제로 이를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며 "풍자와 해학, 그리고 폄훼, 명예훼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불교계 내 기준점도 아직 없는 상황이며, 그동안 방송 분야에서 호법 역할을 해온 보리방송모니터회도 활동을 중단한 상태여서 사실상 무방비"라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불교를 폄훼하는 콘텐츠보다 불교의 좋은 면을 알리는 방송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널리 알려가는 홍보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른바 '불교 반크 운동'이다.

독도 알리기 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반크'(VANK)는 국내 대표 민간 사이버 홍보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불교계에는 앞선 사례도 있다. 포교사단은 인터넷 포털이 활성화되던 2005년부터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불교왜곡 정보를 바로잡는 '불교바른정보사업'을 이양 받아 조직,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그리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네이버 지식검색과 각종 블로그에서 잘못된 불교 정보를 바로잡는데 나선 바 있다. 당시 4대 포털사이트의 불교지식 5410건을 모니터링하고 바로 잡아 갔다.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는 "뉴미디어에서의 불교와 승가 폄훼를 막고, 불교를 알리는 일이 범불교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며 "종단협 산하 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 측은 "2018년 각 산하단체 및 사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미디어 포교 관련 교육을 조직화하고, 양질의 불교 콘텐츠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불교계 미디어 콘텐츠 보급의 선결과제는 무엇일까.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대중들의 관심을 모을 콘텐츠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청년 소셜벤처 무아의 전영우 대표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대중의 이목을 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기존 인기 콘텐츠와 불교 콘텐츠의 트렌드, 접점을 분석한 뒤 대중들이 주목할 만한 불교콘텐츠를 제작,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국 사찰 해맞이 템플스테이 A5 | 한국불교학회 '불교와 4차 산업' 국제학술대회 A6

평생 승가교육 헌신 '萬世師表' 종단 차원 포상 자리 마련한다

조계종 교육원, 12월 19일 교육 공로자 포상식

종진 · 명성 스님 등 원로 10명
교육자 공로 포상은 종단 최초
취임 첫날 설정 스님 직접 지시

조계종이 평생을 승가교육에 매진한 원로 스님들에게 종단 차원 포상에 나선다. 교육 분야 원로 스님들에게 대대적 포상을 하는 것은 종단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2월 19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공연장에서 4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승가교육 공로자 포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승가교육 공로자는 종단의 승가교육 발전에 평생을 헌신한 교육 경력 30년 이상의 원로 교역자 스님 10명이 선정됐다.

비구 스님으로는 종진 스님(조계종 법계위원), 덕민 스님(경주 기림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무비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혜남 스님(영축총림 통도사 율주), 지안 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이 선정됐다.

비구니 스님으로는 명성 스님(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묘순 스님(삼선불학승가대학원장), 일초 스님(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장), 도혜 스님(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장), 지형 스님(청암사 승가대학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승가교육 공로자 포상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취임 첫날 직접 지시한 사안이다. 설정 스님은 교육원에서 승가교육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공로자 포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당시 설정 스님은 "종단의 3대 지표 중의 하나인 도제양성을 위해 평생 동안 헌신한 스승들을 찬탄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는 일이 늦은 감이 많다"며 "종단의 근간을 세우고 지금 같은 현대적인 승가교육과 종단이 있기까지 스승들의 노고가 너무 크다. 승가교육 공로에 대한 포상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원로 교육 교역자 스님들의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설정 스님은 포상식에 직접 참석해 치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포상을 받는 스님에게는 설정 스님의 표창패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포상에 대해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포상자로 선정된 스님들은 '오래도록 전해질 스승의 표상(萬世師表)'인 분들"이라며 "향후 종단 승가교육 공로자들을 포상하는 제도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300년만에 신비의 에밀레종 소리 / 문양 완벽 재현


재현된 에밀레종 (일명 신라대종, 5,300관)

보라! 완벽하게 재현된 에밀레종의 아름다운 비천상

훼손된 비천상 얼굴부터 향로, 천의까지 고증을 통해 완벽 복원

드이어 성종사 기술진이 전매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신비의 에밀레종을 외관은 물론 소리까지 완벽하게 재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음향 분석을 맡은 강원대학교 김석현 교수는 "재현종의 600hz 이내의 주파수 성분이 에밀레종과 96~99% 동일하여 실제 에밀레 종소리와 거의 유사할 뿐만 아니라, 여음의 경우 재현된 종이 25%정도 향상되어 오히려 더 오래 울린다"고 평가하였습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Tel 02)733-6141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iongsa.co.kr E-mail :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Tel 043)536-2581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 (중요무형문화재 제 112호 대한민국 명장)


梵鐘名家 聖鐘社

門 넓어진 종단협 차기 사무총장

12월 14일, 이사회서 선출

일반이사종단까지 자격이 확대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기 사무총장에 교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2017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월도 스님 후임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종단협 사무총장은 회원종단 화합 도모와 대정부 역할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예비회담을 주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능력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종

일반이사까지 자격 확대돼
호당·도각·지민·만혁 거론

단협은 그동안 상임이사 중에서 사무총장을 추천했지만 지난 이사회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일반이사까지 사무총장 자격을 넓혔다. 이에 따라 이번 이사회서 사무총장 후보들의 난립이 예상된다.

후보로는 진각종 총무부장 호당 정사, 관음종 총무부장 도각 스님, 본원종 총무원장 만혁 스님, 삼론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 등이 꼽힌다. 수석부회장종단인 천태종의 경우 직전 사무총장을 월도 스님이 맡은 관계로, 태고종은 집행부 인선이 얼마 전에 이뤄진 점에서 진각종과 관음종 출마가 예상된다. 아울러 평소 정관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던 삼론종 지민 스님, 평소 회원 종단의 화합을 강조하는 본원종 만혁 스님이 일반이사종단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진각종은 재가종단이라는 점에서 사무총장직 수행 시 국제교류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관음종은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30여 년간 사무총장을 맡아온 관계로 타종단 표심을 얻기 어렵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삼론종 지민 스님은 평소 진각종·총지종 등 재가종단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해온 것이 발목을 잡는다. 해인사서 출가한 본원종 만혁 스님은 '덕장'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행정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후보가 거론되면서 차기 사무총장은 이사회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도 안갯속이다. 다만 회장·부회장종단과 일반이사종단 간에 알력이 있어왔음을 감안할 때 서로 후보 단일화를 이룬 뒤 표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원종단 관계자는 "오랫동안 상임이사가 사무총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반이사들이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후보는 최대 6~7명이 꼽힌다. 만만치 않은 이사회가 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호섭 기자

"스님 말에 '흔들'… 복지법인 독립성 절실"

조성희·이혁수 순천향대 교수 불교사회복지포럼서

"주지스님의 말 한마디에 사회복지법인 운영방향이 결정된다. 주지스님의 의지 없이는 법인 사무국의 체계·인력·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법인의 공간·행정·조직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모 교구본사 복지재단 관계자의 뼈아픈 지적에 그동안 스님과 사찰위주로 운영되며 개인 능력에 의존해 성장해온 불교사회복지의 민낯이 드러났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12월 7일 개최한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불교사회복지포럼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 순천향대학교 조성희 교수, 이혁수 외래교수는 '불교계 사회복지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조계종 교구본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실무자들의 견해를 공개했다. 조 교수와 이 교수는 공동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에는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실무자의 인터뷰도 다수 실려 눈길을 끌었다.

'2017 불교사회복지 편람' 제작을 위해 진행된 연구서 인터뷰에 응한 실무자들은 불교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 특히 전문적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법인사무국 전임자의 전문성 확보, 교구별 사회복지법인 인력대상의 정기적 교육과 업무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실무자들의 이야기에 덧붙여 조성희 교수는 "그동안 불교사회복지활동은 스님의 개인적 노력과 각 사찰을 중심으로 확장됐다. 또한 시설은 노인이나 유아로 한정된 분야에 편중됐으며, 각 시설들의 운영주체가 사찰별로 분절돼 있다. 이 때문에 불교만의 통합적 고유성이 부족하고 법인·시설 간 효율적 연계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법인·시설간 효율적 연계 위해
'시스템'에 의한 사업수행 필요
교구본사 실무자 인터뷰도 반영
현실적 불가능 한계점도 지적돼

또한 실무자들은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펼치는데 중요한 △시기적절한 복지정보의 획득 △지역 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간의 교류 활성화 △재정과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의 경우 서울 등 중앙서 발생하는 새로운 현안을 알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하다는 어려움도 전했다. 또한 실무자들은 법인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어 했다. 특히 설립한지 얼마 안 된 신생 사회복지법인은 연차별 성장과정에 대한 조언 등을 제공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불교사회복지포럼에서 조성희·이혁수·조기룡 교수 등 전문가들이 불교사회복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혁수 교수는 지금까지 개별능력에 의존하던 방향과 달리 '시스템'에 의한 사업수행을 강조하며 교구별 사회복지사무국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교구본사는 종무행정과 사회복지사업을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불교사회복지활동은 종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직에서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효과에 대해 이 교수는 "이렇게 되면 사무국이 불교사회복지 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현실성 문제도 제기됐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사무국 이전에 교구본사 사무국도 존재치 않는다. 우선적으로 교구본사 사무국의 설치가 필요하다. 교구본사의 현재 역량을 고려한다면 교구사무국을 설치해 사회복지법인의 업무 전담자를 지정하고, 업무가 정착하고 확장됐을 때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을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불교사회복지포럼이 끝난 후에는 자비나눔 힐링콘서트와 기념대법회가 진행됐다. 기념대법회서는 그간 불교사회복지발전을 이끌어온 자비나눔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이뤄졌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교육아사리, 미래·융복합 연구 주도해야"

조계종 교육원, 12월 8일 전문 연구자 세미나

한국 불교학 연구 경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불교학 연구의 경향과 과제'를 주제로 2차 전문 연구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조계종 교육아사리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역할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자현 스님은 '한국 불교학 연구의 경향과 과제-교육아사리 연구동향과 역할을 중심으로'에서 2013~2017년간 불교와 직접 연관된 학진등재지 11종을 대상으로 교육아사리들의 연구를 분석했다.

자현 스님에 따르면 교육아사리들이 5년간 등재지 실적은 총 177편으로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이는 전체 스님들의 논문 편수에 70~80%에 해당하는 수치다. 범주별로 분석하면 △교학-29편 △사학-51편 △선학-36편 △율학-12편 △초기불교-1편 △미술사-9편 △응용-20편 △근현대불교-19편이다.

자현 스님은 "5년간 불교학 연구에서는 교학 비율이 높았지만, 교수아사리의 연구에서는 사학과 선학의 비율이 높았다"면서 "특히 선학은 일반 재가인의 연구에서는 응용불교나 근현대불교보다도 낮은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교육아사리의 연구에서는 정반대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육아사리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그룹에서는 율학 및 근현대불교 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교육아사리 연구 과제와 역할에 대해서 자현 스님은 △불교 전통과 현대의 결합 △미래학과 4차 산업 관련 연구 △학제적 연구와 융복합 연구 필요 등을 제시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없는 문' 열고 용맹정진에 들다

신흥사 향성선원-기본선원 등 동안거 결제

총 57명 수좌 용맹정진에 돌입
자승 스님 백담사 무문관 입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속초 신흥사와 인제 백담사, 종립기본선원은 12월 2일 신흥사서 정유년 동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기본선원과 신흥사 조실 설악 무산 스님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결제 법어를 대독하며, 운수납자들의 3개월 용맹정진을 독려했다.

무산 스님은 법상에 올라 10여분간 또렷한 어조로 결제법어를 담담하게 읽어내려 갔다. 법석 우측에는 평소 무산 스님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정치인과 문학인들이 좌정하고 앉아 스님의 대독에 귀를 기울였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선 前강원도지사, 성낙인 서울대 총장을 비롯해 오세영·이근배 시인 등이 자리했다.

특히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을 8년간 역임한 뒤 지난 10월 임기를 마친 자승 스님이 참석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법회에 앞선 차담 자리에서 무산 스님은 자승 스님에게 "임기를 마친 뒤 백담사 무문관 수행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오늘 지켜주셨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無門關(무문관)은 '문 없는 문의 빗장' 또는 '문이 없는 관문'이란 의미로 중국 송나라의 선승 무문 혜개(無門 慧開) 스님이 48개의 공안(公案)을 모아 풀이한 책 〈무문관〉서 비롯된 말이다. 의미는 글자 그대로 문을 걸어 잠근 채 문 밖에 나가지 않고 수행하는 곳을 뜻한다. 무문관에선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종식(一種食)과 묵언(默言)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점심 한 끼만 쪽문을 통해 제공된다.

자승 스님이 입실한 백담사 무문관은 보통 오전 11시에 문 한쪽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보온 도시락 형태의 과일과 식사가 배달된다. 또한 각 방사 앞에는 한평 남짓한 포행 공간도 개별적으로 마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운수납자들이 '무문관' 안으로 들어가 치열한 수행을 하는 것은 바로 '문 없는 문'을 열고 대자유를 누리기 위함이다. 폐관 수행은 결코 무료하지 않으며, 치열한 수행과 올바른 깨달음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와 인제 백담사, 종립기본선원은 12월 2일 신흥사서 정유년 동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前낙산사 주지 무문 스님은 "비록 문은 닫혔으나 열린 눈과 열린 마음의 그곳은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이라며 "한 티끌이 시방세계를 머금듯 대우주의 아름다움과 질서정연함이 펼쳐져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백담사 무문관 수행경험의 감회를 피력했다.

법회가 끝난 후 자승 스님에게 이번 무문관 수행의 화두와 소감을 재차 묻자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라는 짤막한 화두로 답을 대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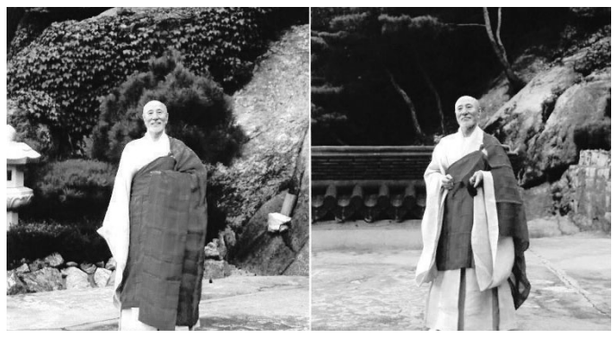
한편 종립기본선원과 3교구 정유년 동안거에는 신흥사 향성선원 11명, 백담사 무문관 10명, 기본선원 36명 등 총 57명의 수좌 스님들이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속초=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세종시 문화체험관 건립에 개신교계 '딴죽'

세종기독교연합회 등 무효소송 · 막무가내식 시위
세종시의회 산건위, 예산 20억원 전액 삭감 결정

조계종이 세종시에 건립 추진 중인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 심사서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산건위 결정에 대해 기독교계 반발에 의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일 제46회 세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회의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대한 시비 20억 원을 격론 끝에 삭감했다. 하지만 조계종 측은 예산 삭감 사유를 전해 듣지 못한 상황에서 기독교계의 계속된 시위에 시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흔들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세종기독교연합회는 11월 27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상대로 '종교용지사업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게 무효라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이들은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세종시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이며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막무가내식으로 반대하고 있다.

개신교계 억지주장의 실상

개신교계는 922㎡(279평)이던 건립 부지가 몇 차례 걸쳐 1만6000㎡(4840평)으로 확대된 점, 입지의 부적절성, 과도한 지자체 지원 등을 이유로 체험관 건립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와 조계종에 따르면 이는 맞지 않는 논리다.

먼저 개신교계가 주장하는 922㎡의 부지는 과거 조계종 포교당인 석불사가 있던 땅이다. 조계종 재무부에 따르면 석불사는 2009년경 인근 토지개발로 인해 종단에 토지처분승인을 요청했고, 매수협의우선권을 종단에 귀속시켰다. 결국 이번 논란과는 별개의 사안인 셈이다.

이후 2012년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신도시 포교에 의지를 보이며, 세종시 종교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행복청은 문화관광자원 유치를 위해 조계종에 9917㎡(3000평)에 달하는 현재 부지를 소개했다. 조계종은 이보다 더 넓은 부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부지를 매입해 분납금을 내던 중 천태종과 (재)대전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이 인근에 각각 5000여 평의 부지를 낙찰 받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조계종은 이를 이유로 부지 확대를 요청했고, 종교형평성에 맞춰 최종적으로 1만6000㎡의 부지가 확정됐다.

조계종, 적법 절차 거쳤지만
예산 삭감 사유 알 수 없어
근거 없는 개신교 주장 지속

내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개신교 '눈치보기' 의혹도
시의회 예결위 결과 관건

입지의 부적절성 역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가 공론화되면서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조계종의 부지 매입은 이보다 훨씬 오래 전에 이뤄진 데다 국회 분원 설치 가능부지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종교관련 문화시설 건립 예산지원 현황

시설명	예산편성비율			
	국비	시 · 도비	자부담	총사업비
증도 기독교체험관	28.5억(30%)	66.5억(70%)		95억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24.0억(30%)	28.0억(35%)	28.0억(35%)	80억
성모순례성지 · 평화문화나눔센터	53.4억(30%)	62.3억(35%)	62.3억(35%)	178억
내포해미 세계청소년문화센터	46.2억(30%)	53.9억(35%)	53.9억(35%)	154억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전당	84.0억(30%)	98.0억(35%)	98.0억(35%)	280억
충청유교문화원	84.0억(30%)	196.0억(70%)		280억
천태종 전통문화유산전승센터	100.0억(30%)		240.0억(70%)	340억
서울 원불교 역사문화기념관	55.2억(30%)	55.2억(30%)	73.6억(40%)	184억

과도한 지자체 지원에 대한 주장은 전국에 건립되는 각 종교계 문화시설 예산지원 현황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자부담 40%(72억원)와 국비 · 시도비 각 30%(54억원)로 건립된다.

현재 2018년 이후 완공예정인 종교관련 문화시설은 △증도 기독교체험관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내포해미 세계청소년문화센터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성불사 전통문화체험관 △충청유교문화원 △천태종 전통문화유산전승센터 △서울 원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등이 있지만 이 중 자부담이 40% 이상인 사업은 천태종(70%)과 원불교뿐(40%)이다. 대부분 35%의 자부담이 책정돼 있으며, 증도 기독교체험관과 충청유교문화원은 자부담은 없지만 각각 신안군과 충청남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타종교 사례와 비교할 때 시 지원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건립 이후 모든 시설 운영은 조계종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며, 이용객 전체에게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공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면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여가 · 문화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외 관광객 증대와 문화예술단체 이용편의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불교계 "억지주장 좌시 않겠다"

조계종은 포항시의회 산건위의 예산 삭감 통보를 받고, 7일 세종시를 전격 방문했다. 총무부장 정우 스님과 문화부장 정현 스님,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등은 이날 이춘희 시장과 고준일 의장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서 정우 스님은 "종교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시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장도 "예결특위 과정이 남은 만큼 의원들에게 충분히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불교계는 허위사실을 유표하는 일부 개신교 단체와 언론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세종시불교사암연합회와 세종시불교신행단체연합회는 같은 날 세종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 편향적 사업이 아닌 세종특별시민에게 유익한 시설임에도 한 기독교 단체의 시위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은 종교적, 정치적 유불리 이해관계에 의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종단차원의 법적대응을 요청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3일까지 예결위원회를 통해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지원 예산에 대해 재논의하고,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윤호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등 종교지도자들이 차담을 나누는 모습.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文 대통령 "평화적 촛불혁명, 종교계 감사"

12월 6일, 종교지도자들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 평화적 촛불혁명의 공을 종교계에 돌렸다.

문 대통령은 12월 6일 청와대 인왕실서 종교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김영근 성균관 관장, 김영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등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극심한 정치적 혼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 다행스럽게도 국민들이 저력을 보여주셔서 명예로운 촛불혁명으로 위기를 이겨냈다"며 "그 많은 인원들이 평화롭고, 문화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종교의 힘이 컸다고 생각한다. 종교계 지도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한편 청와대는 채식을 하는 불교를 배려해 오찬을 두 가지로 준비했다. 통영 굴전대신 애호박전이, 등심구이 대신 콩불고기가 제공됐다. 윤호섭 기자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⑳ 후회스러운 선물

美文보다 감동적인 생명사상

법정 스님께서는 강원도 오두막에서 서울에 오시면 꼭 전화를 주셨다. 특별한 용무가 없을 때도 부르셨다. 길상사 행지실로 올라가 보면 보통 서너 사람은 나처럼 부름을 받아 온 이들이 먼저 와 있기도 했다. 그날 나는 스님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했다.

"요즘도 스님 책을 찾는 독자가 꾸준합니다. 다른 책과 달리 생명력이 있습니다."

"초기에 냈던 책들을 보면 문장이 거칠어요. '것이다'를 남발해 거칠어요. 때가 되면 수정해야겠어요."

단정적이고 설명적인 문장이 눈에 거슬린다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내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른 데 있었다.

"스님의 글 속에 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상이 녹아 있어서 독자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것이지 아름다운 문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명주의 사상입니다. 인본주의를 넘어선 모든 생명과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자는 사상입니다."

나는 스님의 산문집을 열 권 정도 만들면서 느낀 바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스님의 책을 내면 대부분 10여만 권이 나갔다.



일러스트 · 정윤경

샘터사에서 발간하는 책의 판매부수에 3분의1 정도였다. 샘터사를 세상에 알리고 떠받드는 기둥 중에 하나인 셈이었다. 물론 몇 만 권에 그친 책도 있었다. 책 내용은 스님의 다른 산문집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서점을 관리하는 직원은 한자제목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샘터지에 연재하는 〈산방한담〉이라는 꼭지제목이었으므로 스님의 동의 없이 바꿀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날 내가 스님께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책 제목 같은 궁금증이 아니었다. 스님의 산문집은 왜 베스트셀러가 되는가? 독자들은 대부분 스님을 탁월한 에세이스트라고 평했다. 지금도 실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님께서는 어느 명문대학교의 교양국어 책에 스님의 수필 '쥐 이야기'를 넣고 싶다는 제안을 전화로 받으신 적이 있다. 마침 스님의 옆자리에 내가 있었으므로 통화하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이다. 전화한 대학교수는 스님의 개성적인 문체는 수필로써 귀감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문장만으로 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왔을까?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차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언컨대 스님은 수행자이지 수필가는 아니었다. 하루에 글 쓰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혼자 예불하고, 채마밭을 가꾸고, 좌선하고, 차를 마시고, 선어록 같은 책을 읽고, 해제 때는 만행하는 등 보통스님의 일상을 조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길상사 행지실에서 머뭇거리다가 스님께 "스님, 기회가 되면 스님의 사상적인 내용만 뽑아서 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스님께서는 미소만 지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는데 스님께서 갑자기 입적하시는 바람에 그 일은 영원히 유예돼 버렸다.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

일 주 문



봉은사 자비의 김장나누기

원명 서울 봉은사 주지 스님은 12월 9일 봉은사 경내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자비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문화예술대상 공로상

범혜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스님은 12월 4일 '제8회 한국문화예술대상 시상식'에서 한국문화예술대상 불교발전 공로상을 수상했다.



제천 정각원 대중포교

보봉 정인성 제2작전사령부 호국무열사 주지 군승법사는 12월 21일 전역 후 충북 제천 정각원에서 대중포교에 나선다.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

원용선 남양이앤씨 회장은 12월 14일 서울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리는 '동국인의 밤'에서 동국인상 대상을 수상한다.



대한불자가수회 창립27주년 법회

김국환 대한불자가수회장은 1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창립 27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소년원서 펼쳐진 자비의 짜장공양



'운천 스님의 짜장면 나눔과 자비명상 마가 스님 특강'이 12월 7일 고봉중·고등학교(서울 소년원)에서 전교생 2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자비명상과 통일짜장, 불교여성개발원 교정교화센터가 준비하여 주관했다.

특히 고봉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운천 스님과 30여 봉사자가 준비한 짜장면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마가 스님으로부터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인성교육 강연을 접했다.

아울러 '그래도 YES 예술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요술당나귀 라마와 싱어송라이터 김경미, 한국무용전문가 이정민의 공연도 함께 진행됐다.

마가 스님은 특강에서 청소년들에게 "주인공은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고 엑스트라는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질러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말했다.

운천 스님은 "짜장면은 어머니 마음이다. 힘들어도 견뎌내는 멋진 사람이 되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화, 국가경쟁력의 하나죠"

Interview

'2017 대한민국인재상' 수상한 김아나 씨

불교계 청년스타트업 '무아(MUA)'를 설립해 운영 중인 동국대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김아나 씨가 11월 30일 서울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아나 씨는 2015년부터 '무아(MUA)'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지식을 토대로 한국전통문화체험상품 '마인드래치'를 개발했다.

김 씨는 12월 7일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으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 씨가 개발한 '마인드래치'는 마인드(Mind)와 스크래치(Scratch) 합성어로 무아의 대표 미술심리치료 제품이다.

전통문양인 칠보, 만다라를 직접 긁어 현대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김 씨는 직접 만다라를 그리면서 심리치료까지 가능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한국 문화재 대부분이 불교 문화재인 상황입니다. 한옥과 사찰, 한복과 불교제

2015년 스타트업 '무아' 설립
만다라 활용 '마인드래치' 개발
"불교문화 확산에 기여할 터"

사 등 전통문화와 불교는 접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 문화 콘텐츠가 이미 많은 기독교와 달리 불교는 콘텐츠가 없었어요."

김아나 씨는 SK청년비상프로젝트 은상, 태국 방콕 국제 발명전시회 금상, 중기부 창업선도대학 아이템사업화지원사업 선정 등 한국경제를 이끌 차세대 청년 창업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김아나 씨는 청년창업가로서의 삶과 경험을 주제로 제작한 UCC로 '스타트업 취업인식 개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창업문화 확산에도 힘써왔다.

그 이면에는 깊은 불심이 있었다. 대학교 1학년부터 어린이법회 간사로 활동해 온 김아나 씨는 현재도 군법당에서 불화 강의와 국군장병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아나 씨는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불교를 포함한 전통문화는 하나의 국가경쟁력이라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또한 꾸준히 관광객의 수가 늘면서 전통문화콘텐츠의 개발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전통문화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자국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라 판단하고 근본적인 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문화교육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녀노소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것으로 우리만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향후 다양한 종류의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들을 양성하고, 전통문화교육과 더불어 관련전공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셜벤처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중 행복 위해 더 큰 원력 다지자"

조계종 포교원
제29회 포교대상 시상식 개최

정우 스님·故윤용숙 보살 수상 영예
"불교로 세상 밝힐 것" 수상소감
지홍 스님 "불교성장 동력 작용"



제29회 포교대상을 수상한 이들과 조계종 스님들이 불법홍포의 원력을 다지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제29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포교부장 가섭 스님 등 스님들과 윤기중 포교사단장, 정연만 중앙신도회 부회장, 박범훈 불교음악원장 등 4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추울수록 따뜻함이, 어두울수록 밝음이 더욱 요구된다. 따뜻함이 필요하고 밝음이 요구되는 삶의 현장에서 정진하셨던 분들을 모셔서 축하하는 자리"라며 "포교대상을 수상한 정우 스님, 故윤영숙 보살 등 많은 이들의 전법보살행은 더 많은 이들을 전법 현장으로 인도 할 것이다. 이들 모두의 신심과 원력은 우리 불교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여 이 국토를 아름답게 장엄할 것"이라고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대상은 조계종 총무부장이자 前 조계종 군종교구장을 지낸 정우 스님과 불이회를 창립한 故윤용숙 보살이 수상했다.

정우 스님은 "고맙습니다. 늘 항상…"이라며 북받치는 감정에 말문을 잇지 못했다. 구룡사 신도 등의 박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스님은 "고맙습니다"라고 다시 인사하고 짧게 수상 소감을 마쳤다.

故윤용숙 보살의 남편인 류홍우 보덕학회장의 수상소감은 감동을 더했다. 류 학회장은 "故윤용숙 보살은 입적하기 한 달 전에도 보현행원을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우리 가족 모두 불교계의 잊지 않음을 기억하고 불교로 사회를 밝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호국 장영사, 수계법회 봉행



전북지역의 군법당 중 가장 모범적인 법당으로 평가받는 임실 제6탄약창(창장 배희관) 호국 장영사가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호국 장영사(지도법사 이성강)는 12월 3일 前포교원장 도영 스님, 강석춘·강철기·문병현 포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법회와 위문공연을 펼쳤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불교기자협회, 불기협의 밤

본지 노덕현 차장 대상·김주일 국장 근속상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현태)는 12월 4일 서울 르메이에르 5층 더부페서 '2017 불교기자상 시상 및 한국불교기자협회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본지 노덕현 차장은 특별기획 '이제 Z세대 포교다'로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을, 김주일 편집국장은 20년 근속상을 수상했다.

본지 노덕현 차장은 시상식에서 "편집국 선후배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고, 오늘의 영광을 안게 됐다"며 "다음에는 후배들을 지도해 함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윤호섭 기자**

동국대일산병원 연우회, 김장 나눔



동국대학교일산병원(병원장 이진호) 교직원 연우회는 12월 1일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는 10여 명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연우회원 및 기타 일산지역 봉사단체가 함께 참여해, 1000여 포기의 배추에 양념재료 섞기부터 버무리고 포장까지 정성 가득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전달됐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12월 29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때 되면 하는 반성·다짐 대신 "사찰서 내 마음 돌아보자"

2018 새해맞이 전국 템플스테이

해[日]는 어김없이 뜨고 저물고, 또 다른 해[年]는 유유히 흘러 막바지에 다다랐다.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국가 중대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정유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뿔싸! 그러고 보니 새해엔 또 어떤 다짐을 해야 할지 아직 고민조차 못했다. 또 올해 1월 첫날, 정유년을 맞이하며 그렸던 나의 연간 목표는 달성했을까? 역시나 부족함과 아쉬움이 남는다.

연말연시는 누구나 그렇듯 늘 반성과 다짐의 연속이다. 학생에겐 입시, 직장인에겐 처우 개선, 부모에겐 가정 평화, 노인에겐 건강까지…. 각자 자신만의 목표와 굳건한 의지로 첫날 첫해를 바라보며 기원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간을 돌이켜 매년 이 시기, 늘 반성하고 다짐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올해만큼은 그 마음 잠시 내려놓자. 대신 고즈넉한 산사에 머물면서 산봉우리로 얼굴 내미는 해를 편안하게 바라보자. 또 숨 가쁘게 달려온 나의 과거는 어땠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내 진심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돌아보자. 이미 전국의 수많은 사찰은 당신의 편안한 발걸음을 위해 문도 없는 일주문을 더욱 환히 열어놓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2018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는 전국 56개 사찰서 진행된다. 프로그램도 예년과 달리 변화를 줘 △자기성찰 놀이 △나에게 편지쓰기 △소금만다라 명상 △원망과 분노 놓아주기 등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다수 마련됐다. 이 중 눈에 띄는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들을 정리했다.

대광사 '미륵부처님과 새해소원'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대광사는 단일 목조건물로는 동양 최대 규모인 미륵보전이 유명하다. 올해 낙성식을 마친 미륵보전은 한국을 대표하는 신응수 대목장이 불심을 바탕으로 주도해 14년에 걸쳐 조성했다. 이 때문에 대광사의 이번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는 과거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주제 역시 '미륵부처님과 함께하는 새해 새소원 맞이'다.

대광사에서 눈여겨볼 프로그램은 '나 자신에게 편지쓰기'다. 올해의 나를 놓아주고 격려하는 한편, 새해의 나를 위해 마음을 내는 것. 조금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스스로를 위한 글을 쓰기 시작하면 부끄러움도 잠시, 어느새 어떤 글을 남길까 고민에 빠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대광사는 이와 더불어 △미륵보전 소원기도 △108배 참회기도 △소원등 만들기 등 다채로운 세부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031)715-3404

백련사 '소금만다라와 새해맞이'

경기도 가평 백련사는 오래 전부터 우수 템플스테이 사찰로 이름난 곳이다. 잣나무숲을 중심으로 자연환경도 일품이지만 참가자들의 자존감과 가족애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많이 다룬다.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서는 '소금만다라'가 이에 해당한다.

소금만다라는 6가지 색소금으로 만다라문양을 자유롭게 채우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6명씩 팀을 꾸리고, 각자 원하는 위치에 색소금을 채워 넣으면 된다. 집중력을 요하는 만큼 일반사회에서 산만한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거나 치매환자를 위해서도 사용된다.

만다라를 완성한 뒤에는 그 위에 초를 켜고, 잠시 명상의 시간을 보낸다. 이후 정성들여 만든 소금만다라를 모두 섞어 없애지만 아쉬워 말자. 성주괴공(成住壞空)의 가르침을 위한 방편일 뿐이다. (031)585-3853

홍법사 '해를 품은 나'

TV드라마 '해를 품은 달'이 큰 인기를 얻은 이후, 부산 홍법사의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는 '해를 품은 나'로 고정된 것 같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배려가 뛰어난 사찰인 홍법사는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성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원망과 분노 놓아주기 △나의 컵 마주하기(새해계획) △지혜의 등 밝히기(나무공예) 등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즐길거리를 갖췄다.

또한 새해맞이 일출은 인근 당나귀봉에서 진행되며, 이후 찻집에서 군고구마와 차를 즐기며 스님과 진솔한 대화도 나눌 수 있다. 특히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조차 얽매이기 싫은 이들을 위한 휴식형 '나의 온전한 쉼'도 함께 운영된다. (051)508-0345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8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지역	사찰명	연락처	일정
서울	국제선센터	(02)2650-2213	12.31~1.1
	금선사	(02)395-9955	
	조계사	(02)768-8523	
	화계사	(02)900-4326	
경기	금강정사	(02)899-7366	12.31~1.1
	대광사(성남)	(031)715-3404	
	대원사(가평)	(031)582-0477	
	백련사(가평)	(031)585-3853	
	법륜사	010-6766-8700	
	봉선사	(031)527-9969	
	신륵사	(031)885-9024	
	용문사(양평)	(031)775-5797	
	용주사	(031)235-6886	
	육지장사	(031)871-0101	12.29~1.1
	중흥사	(02)355-4488	12.31~1.1
	화운사	(031)337-2576	
	흥국사(고양)	(02)381-7980	
인천	전등사	(032)937-0152	12.31~1.1
강원	백담사	(033)462-556	12.31~1.1
	보현사	(033)647-9455	
	삼화사	(033)534-7676	12.30~1.1
	신흥사(속초)	(033)636-8001	
	월정사	(033)339-6606	12.31~1.1
충북	법주사	(043)544-5656	12.31~1.1
	반야사	010-8243-7722	12.30~1.1
충남	마곡사	(041)841-6226	12.31~1.1
	서광사	(041)664-2002	
	수덕사	(041)330-7789	12.29~1.1
	영랑사	(041)353-8053	12.31~1.1
	영평사	(044)854-1854	
전북	금산사	(063)542-0048	12.31~1.1
	내소사	(063)583-3035	
	선운사	010-5231-1375	
	실상사	(063)636-3191	12.30~1.1
전남	대흥사(해남)	(061)535-5775	12.31~1.1
	미황사	(061)533-3521	
	백련사(강진)	(061)432-0837	
	백양사	(061)392-0434	
	불갑사	(061)352-8097	
	송광사	010-8830-1921	
경북	고운사	(054)833-6933	12.31~1.1
	골굴사	(054)775-1689	
	보경사	(054)262-1804	
	불국사	(054)746-0983	
	심원사(성주)	(054)931-6887	12.30~1.1
	은해사	(054)335-3308	12.31~1.1
	자비선사	(054)931-8874	
	축서사	(054)673-9962	
경남	대원사(산청)	(055)974-1112	12.30~1.1
	성주사	010-8985-0897	12.31~1.1
	옥천사	(055)672-6296	
대구	동화사	010-3534-8079	12.31~1.1
부산	범어사	(051)508-5726	12.31~1.1
	홍법사	(051)508-0345	
제주	관음사	(064)724-6830	12.31~1.1
	불탑사	(064)755-9283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전국 56개 사찰서 2018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사진은 성주 심원사서 진행된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한국불교학회(학회장 성운)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동국대학교에서 개최한 '불교와 4차산업' 국제학술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등 불교계 대표 스님들과 국내외 학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0여 대중이 운집했다.

한국불교학회 국제학술대회 불교와 4차산업

전국민, '4차 산업' 話頭 三昧 들다

12월 2~3일 동국대학교에서 개최
AI · VR · IoT 대한 불교 해석 제시
사부대중 2000명 참여, 관심 높아

'고도의 인공지능 로봇은 해탈할 수 있을까', '가상현실은 실재하는 것인가' 등등. 이는 4차 산업 시대에 한번쯤은 생각해볼만 한 질문들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성큼 들어와 있는 4차 산업 기술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 이를 전법 포교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동국대 일원에서 '불교와 4차산업'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불교학회 이사 법현 스님과 선우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 이어 학술대회는 △1주제 'AI로봇과 인간사회' △2주제 'IOT/스마트시티와 불교' △3주제 '4차산업기술의 불교철학적 해석' △4주제 '4차산업혁명 사회에서의 전법포교' △5주제 'VR/AR을 이용한 불교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로 나눠 진행됐다.

첫째 날인 2일에는 1주제와 2주제, 해외학자 논문 3편이 3곳에서 발표됐다. 특히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해 모든 강의실이 만석으로 채워져 4차산업 기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확인됐다.

인공지능에 대한 불교적 고찰들

만해관 대강의실에서 진행된 1주제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 논의들이 이어졌다. 한성자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영문번역위원은 '인공지능 로봇의 해탈 가능성'을 통해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해탈을 할 수 있는가는 불교 교리를 통해 분석했다.

한 위원은 4성제 중 두 번째인 집성제에서 붓다가 설한 '갈애(유애)'를 주목했다. 그는 불교의 유애 교설과 살아가는 동안 욕망을 쫓을 수 밖에 없다는 욕애(欲愛)는 인공지능 로봇이 결코 인간을 닮을 수 없다는 결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봤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로봇의 상용화와 불교적인 인간 이해'에서 "선불교의 방식은 4차 산업시대의 도전형 인재가 등장하도록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이 가능하다"면서 "이제까지 평가 절하되었던 동양의 정신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함께 선불교를 통해서 세계로 구현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일 스님은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선문답의 응용가능성 연구'에서 인공지능의 창조적인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일 스님은 현재의 챗봇으로는 실제 대화와 같은 다양한 변수가 있는 상황에 일일이 반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선문답의 파격성에서 그 해법이 있음을 제언했다.

스마트시티 공동체 어떻게 볼 것인가

만해관 모의법정서 진행된 2주제에서 스마트시티와 IoT를 불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기열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IoT 시스템 인과율에 대한 불교논리학적 해석'을 통해 IoT의 구조를 분석하고 불교 사상으로 해석했다.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은 '스마트시티와 공동체의 변화'를 발표했다. 그는 스마트시티의 등장으로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전망하고 불교의 역할을 분석했다.

장재진 동명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부 교수는 '4차산업 기반의 불교건축 활용방안'에서 사찰 건축의 미래상을 고찰했다.

장 교수는 "새로운 시대의 사찰은 IoT 기반의 스마트농업 활용공간으로 저비용, 친환경, 유기농, 모듈로 자급자족형 저장 및 유통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스마트 시티와 연계하는 다양한 기능이 부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4차산업 기술 작동원리, 불교 이론과 같다"

둘째날 동국대 만해관 모의법정 및 대강의실, 다향관 세미나실 등 3곳에서 동시에 진행된 세미나는 첫날과 같이 모든 세미나실이 입추의 여지없이 가득 채워졌다.

제3주제 '4차 산업기술의 불교철학적 해석' 세미나에서는 강형철 동국대 연구교수가 '가상현실을 통한 불교이론의 재검토'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강형철 연구교수는 "가상 현실이 생활 곳곳에서 도입되는 4차 산업 시대에는 그동안 판단 기준인 '존재 자체'가 아닌 '인과 효력'에 근간한 불교적 인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인공지능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라는 발표를 통해 유식 관점에서의 인공지능 인식 능력을 풀이했다.

4주제인 '4차 산업 혁명 사회에서의 전법포교'에서는 니콜라스 존스 美알리바마대 교수가 '4차 산업 시대의 고통(fourth industrial dukka)'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4차 산업 기술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함께 근본적인 고통 해결 방안에 대한 불교적 대안을 제시했다.

니콜라스 교수는 "하지만 우리는 근원적으로 늙지도 죽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이러한 생사, 자신의 연속성에 대한 갈망은 끝나지 않는다. 불교가 농업혁명을 거치는 동안 영적 화해를 제공했듯 그런 안내를 한번 더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불교 연구풀 구축, 4차산업 시대 과제"



성운 스님 '불교와 4차산업' 학술대회 기조강연서 제안

한국불교학회가 12월 2일 개최한 '불교와 4차산업' 국제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는 불교계의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먼저 한국불교학회장 성운 스님〈사진〉은 종단 차원의 연구기관 설립과 전문가 양성, 불교 전법 포교에서의 기술 활용방안 모색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성운 스님은 먼저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로 '딥러닝'을 꼽으며 '딥러닝'은 상즉상입(相卽相入)의 연기관의 현대적인 발현임을 강조했다. 화엄 십현연기에서는 일체가 인드라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진리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성운 스님은 "4차 산업혁명은 인간 삶에 편리성을 가져다 주지만, 인간 가치의 혼란,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간 소외, 양극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차 산업 혁명은 행복을 위해 이뤄져야 하며, 불교는 공동체 회복, 자비정신 구현 등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불교계의 대응으로 △종단차원의 연구기관 설립 △불교 빅데이터 구축 △4차산업 기술의 활용방안 모색 △전문 지도자 양성의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PT를 진행한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빈부격차 심화, 양극화 등 4차 산업시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대중들의 생각에 공감하며 함께 이를 극복하는데 불교계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국제학술대회 이모저모



설정 큰스님 격려사, 각계 각층 축사

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이 축사했다.



만찬까지 열기 이어져

양일간 2000여명이 참석한 세미나 열기는 만찬까지 이어졌다. 식사제공부터 간식제공까지 큰 호평을 받았다.



4차 산업의 주제에 맞게 개회식에서는 AR · VR을 활용한 다원예술가 '아리스 김'의 공연이 선보이기도 했다.



SNS에 5000여회 리트윗 '화제'

학술발표는 SNS를 통해서도 실시간 전송됐다. 이 횟수는 5000여건에 달했다. 한국불교학회는 이 열기를 모아 논문집을 낼 예정이다.



대불련 동문 연말 화두, '청년 붓다 양성'

창립 50주년 회향 마당으로
12월 15~18일 전시 · 바자회

송년법회 후 사찰음식 공양
"기금모아 대불련 복원 사용"



6월 10일 전법회관서 열린 창립 50주년 간담회. 이날 대불련 동문들은 대불련 지원에 뜻을 모았다.

대불련총동문회(회장 백효흠)가 올해 창립 50주년 회향하는 차원에서 청년붓다 양성을 위한 한마당을 연다.

전시전을 비롯해 바자회 등 일반 대중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대불련 지회 재창립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대불련총동문회는 올해 초 창립 50주년을 맞아 60주년인 2027년까지 대불련 지회 200개를 복원하고 동문회관을 건립하는 등 미래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현재 대불련의 지회는 200여곳에서 70여곳으로 축소된 상태로 대불련 총동문회는 동문을 통한 재창립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지회 재창립이나 신설 활동에 힘쓰는 재학생을 위한 '학송 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 처음 진행될 예정인 '청년 붓다 육성을 위한 전시 및 바자회'는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는 동문회가 확보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대불련 사랑' 휘호와 기현 스님의 서예작품, 범주 스님의 달마도를 비롯해 그동안 대학포교 활동을 위해 기증받은 작품들이 전시 판매된다.

또 대불련 동문 작가인 손갑련 씨의 서예작품, 각자장 손권찬 씨의 서각 작품, 강손주 씨의 천연염색 작품, 김중태 씨의 소목 작품 등이 전시 판매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문들이 보유한 스님들의 유묵이나 그림 등 작품을 기증받아 전시 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문 사업체의 상품이나 동문이 기증하는 물품을 기증받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바자회도 함께 진행된다. 각종 불구와 차와 같은 불교용품이나 불교서적 등의 전시와 판매도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12월 16일에는 대불련 총동문회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함께 대불련 발전 의지를 다지는 송년 모임도 열린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올해는 소모적인 행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송년법회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오후 6시에는 조계사 만발식당에서 사찰음식을 함께 공양하는 자리도 이어진다.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대불련 총동문회 창립 50주년은 대불련 동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됐다. 대불련 지회 재창립을 비롯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을 맞아 동문들이 다시 한번 뭉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청년 포교는 미래 불교를 위한 핵심 과제로 각 지역의 동문들이 후배들을 지원하고 신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백 회장은 이어 "불교학생회 복원과 장학생 지원 등에 불자들의 십시일반 도움이 필요하다. 바자회와 자선행사 등을 통한 기금 모연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생명나눔, 백사마을에 생필품 나눔 '훈훈'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모여 한파 속 따뜻한 정 나눔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물품을 나르고 있다.

쌀, 이불, 라면 등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의 손길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노원구 백사마을엔 훈기가 가득 찼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2월 4일 노원 백사마을에서 '제4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 나누기'를 진행하고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쌀, 이불, 라면 등을 나눴다. 강추위의 기승에도 강난희 서울시장 부인, 김경태 노원구 의원, 가수 장미화, 개그맨 엄용수, 불암사 신도회 등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200여 명이 함께했다. 가수 수지는 이날 행사는 참여치 못했지만 생필품 구매를 위해 후원금 1,500만원을 기부했다.

기념식서 일면 스님은 "주위에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행사가 올해로 4회를 맞았다. 많은 분들이 생명나눔에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행복 나누니 어르신들 행복 더해져요"

덕양행신사회복지관 '행복나눔, 행복더함' 나눔행사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영규)은 12월 6일, 덕양구 내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서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어르신 160명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또한 어르신들과 함께 다채로운 공연관람을 하며 송년행사 '행복나눔, 행복더함'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행사의 공연은 시립행복어린이집 원아들의 축하공연과 김세나 서울코리아나팀 가수의 무대, 행운권 추첨으로 이뤄졌으며 공연이 끝난 뒤 점심식사가 제공됐다. 송년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추위로 더욱 쓸쓸해지는 연말에 잊지 않고 좋은 자리를 만들어 준 복지관에 고맙다. 힘을 내어 추운 겨울을 이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떡국떡으로 따뜻한 겨울 나시길…"

자양종합복지관 어르신들에 식료품 전달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이 12월 6일 한국마사회 워커힐 문화공감센터(센터장 유승일)의 지원을 받아 준비한 식료품 꾸러미를 어르신 120여명에게 전달했다.〈사진〉

이번 지원 행사는 복지관 인근의 재래시장에서 총 500만원의 식료품을 구입함으로써, 대형마트로 인해 침체된 재래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다. **박진형 기자**

전국 청소년 신심 등(燈) 속에 담다

제8회 전국청소년 등작품 파라미타, 12월 5일 발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 이하 파라미타)가 진행한 제8회 전국청소년 등(燈)작품 공모전에서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2학년 안서경 학생의 '비상(飛上) 등(燈)'이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파라미타는 12월 5일 "전국에서 300여 작품이 예선을 거쳐 120여 작품이 본선에 제출되었고 창의성과 실용성, 전통성을 심사기준으로 지난 11월 1일에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대상 1명과 금상 2명 등 개인상 20여 명과 단체상을 선정했다"며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1175호 A6면 서울형MC 기사의 '창업자금 7,000만원을 대출' 에서 '7,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바로잡습니다.

포교사단 지역단 전진대회 개최

충북 · 경남 · 경북 등 각지역 원력 다지는 행사 잇따라



체육대회를 겸해 열린 경남지역단 포교 전진대회 모습.

조계종 포교사단의 지역단들이 한해를 돌아보고 포교 원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포교사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사단 충북지역단(단장 송수헌)은 12월 2일 청주 S프라자 컨벤션에서 포교사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진대회에는 포교원장 지홍님과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청주불교연합회장 현진 스님, 윤기중 포교사단장을 비롯한 충북지역 포교사들이 동참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주중에는 생업에, 주말에는 포교현장에서 전법활동을 하는 포교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포교 현장은 언제나 뜨거운 여름이고, 언제나 온기를 나누어야할 겨울로 전법의 정진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송수헌 포교사단 충북지역단장은 "전진대회는 지역의 포교사들의 활동을 점검하고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라며 "충북지역단이 화합하며 모범적인 지역단으로 발돋움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포교사 전진대회에서는 임형식 포교사가 포교사단 총재상을 구점회, 민채근, 설현자, 박보경, 박병화 포교사가 법주사 주지상을, 김영길 포교사가 포교사단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와 함께 경남지역단(단장 김위영)은 포교사 전진대회를 체육대회 형식으로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12월 2일 창원 유목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남지역단 포교사 전진대회에서는 포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졌다. 전진대회에서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경북지역단(단장 이희철)은 11월 26일 인터불고 경산cc그랜드볼룸에서 경북지역단 포교사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창단 1주년을 겸해 마련된 이날 전진대회에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노휴 스님, 지도법사 도신 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윤기중 포교사단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희철 경북지역단장은 "윤리포교, 행복포교, 가치포교의 기치를 올리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포교사로 경북지역단의 전통과 위상을 높이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현재 법당의 엠프설비를 "UBS 내장형" 최신형,
최고급 「800W 파워드믹싱 앰프」 셋트로
160만원에 교체 설치, 보시 해 드립니다!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2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함!)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 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법당 앰프설치비 가격표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 1셋)
C형 : 158만원 (B형 + CD 5개용)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스)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기타)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믹싱800 + UBS, 일절)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 CD기기 (5개 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 탁상마이크
가격 : 185,000원
자체 소리 조절
주지스님 전용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불전부·아함부·반야부
법화부·화엄부·정토부
붓다의 가르침
범본 한글 옮김 근본 육부 경전 정선

동산불교대학·동산불교대학원에서는 오는 1월 9일 (화) 부터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서 불교 원전을 중심으로 불교사상을 강의했으며, 팔리어를 중심으로 하는 원전 번역과 학술적 연구에 매진하며 활발한 저술활동에 힘쓰고 있는 최봉수 교수를 모시고 〈범본 한글 옮김 근본 육부 경전 정선 "붓다의 가르침"〉을 교재로 하여 경전 강독 법회를 엽니다.

불전부·아함부·반야부·법화부·화엄부·정토부의 순서로 진행될 육부 경전 정선본은 병고 고익진 교수님께서 정선하시고 최봉수 교수님이 번역했습니다. 이 정선본의 강독은 매년 32강씩 6년에 걸쳐 이어질 계획이니, 많은 불자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걸으며 부처님과 호흡을 함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개 강 2018년 1월 9일(화) 오후 7시
• 제 1강 – 오후 7시
• 제 2강 – 오후 8시 20분
장 소 동산불교회관 2층 교육관
강 의 최봉수 교수
내 용 1부 불전부(부처님 생애편) 32강
• 2018년 1월, 2월 (16강) : 수행성불, 교화열반
2부 아함부 (2년차 – 32강) : 십이처 · 십업설법문 등 사대법문
3부 반야부 (3년차 – 32강) : 금강경, 팔천송 초품 · 강가데비품, 반야심경
4부 법화부 (4년차 – 32강) : 법화경 서품, 방편품, 비유품, 수기품
5부 화엄부 (5년차 – 32강) : 서분초지, 아함오지, 반야이지, 법화이지
6부 정토부 (6년차 – 32강) : 극락장엄경 소본일사, 광본삼사

DONGSAN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 02)732-1206~8 F. 02)732-1207 http://www.dongsanbud.net

‘王卽佛’ 전성시대 간직한 大佛 석굴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㉒ 대동의 운강석굴



운강석굴의 대표 석굴인 제20굴의 본존불. 북위의 태조 도무제를 모델로 만들어져 그 위용이 대단하다. 당시 왕즉불 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거대한 석불이다. 위엄 있으면서도 안정감으로 넘친다. 압도감이라는 단어로 집약할 수 있을까. 세계의 도처를 순례했지만, 이렇듯 불상 앞에서 왜소해지기는 처음인 것 같다. 거대한 규모라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거대한 만큼 위엄이 있고, 또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품도 느껴졌기 때문이다. 우뚝 솟은 바위산의 절벽을 파고 들어간 석불의 현장.

운강석굴, 베이징에서 가까운 곳이다. 운강석굴의 제20굴 앞으로 가보자. 거칠게 생긴 단애(斷崖)를 배경으로 거대한 석불좌상이 당당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 남성미를 읽어 낼 수 있다면 과장일까. 안정적 구도와 비례 그리고 당당함과 더불어 섬세한 부분처리, 제20굴 본존상의 위용이다. 이 본존상의 위엄은 바로 옆의 밀집된 조그만 석굴들과 비교되어 상대적으로 더 그렇게 보일 것이다. 20굴 본존상은 운강석굴의 대표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운강석굴을 존재하게 한 담요 스님에 의한 대작불사의 첫 번째 작품이다.

담요오굴(曇曜五窟)은 운강석굴의 상징이다. 담요는 북위의 다섯 황제를 위해 다섯 군데의 석굴을 조성했다. 20굴 본존상은 북위를 건국한 태조 도무제(道武帝)를 모델로 하여 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제의 상이어서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었을까. 동그랗게 우뚝 솟은 육계와 어깨까지 닿는 기다란 귀, 그리고 거의 사각형에 가까우면서도 위엄 있는 얼굴과 또렷한 이목구비. 20굴 본존상의 괴량감과 더불어 눈길을 끄는 부분은 옷 주름과 광배의 화불이나 화염문 같은 섬세한 표현이다. 광배 곁에 있는 비천의 아름다운 자태는 찬탄을 연발하게 한다. 운강석굴은 자신감에 넘치는 조형의지와 개성적인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 운강석굴은 특히 부조회화 즉 돋을새김 위에 다채로운 채색을 올린 것은 운강의 조형성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운강석굴!

운강석굴은 무주산 석굴이라 불릴 만큼 무주산에 위치해 있다. 동서로 약 15km 정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선비족의 탁발부는 398년 평성지역에 북위 왕조를 건국했다. 그 곳은 내몽고로 가는 길목으로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다. 흉노의 남하도 이 곳을 통과했을 정도이다. 북위의 도읍 대동(大同, 다퉁) 즉 평성. 그곳은 494년 낙양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약 1백년간 수도로서 각광을 받았다. 대동에 운강석굴이 있다. 오늘의 도시는 상쾌하지 않다. 석탄가루 휘날리는 듯 어두운 색의 도시를 지나 석굴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도심의 분위기와 달리 석굴 앞에 서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운강석굴은 대형석굴 45군데와 이에 부속된 소규모의 석굴과 감이 있다. 운강은 자연적 여건에 따라 동부, 중부, 서부의 3구역으로 나눈다. 즉 4군데의 동부(제1~4굴), 9군데의 중부(제5~13굴), 32군데의 서부(제14~45굴)이 그것이다. 이들 가운데 서부의 동쪽 부분이 운강석굴의 초기 석굴이면서, 이를 담요오굴이라 부른다. 대형석굴 이외 1,100여 군데의 소규모 석굴과 감 이외 51,000여구의 조각이 있다. 운강의 진면목이다. 운강은 국가 차원의 석굴사원으로 역경활동의 현장이기도 했다. 그래서 운강은 불법승 삼보를 두루 갖춘 중국불교의 중심 역할로 한 시기를 풍미했다. 승려 3천명의 수용, 예컨대 제3굴 영암사(靈岩寺)의 경우가 그렇다. 바로 운강석굴의 위용을 말해주는 기록이다.

다섯 황제 모델인 담요오굴 등
1100곳 석굴 자리한 운강석굴
위엄있는 20굴 본존불 대표적
종교와 권력 상관관계도 엿보여



운강석굴의 전경. 다섯 황제를 모델로 한 담요오굴을 비롯해 1100여 곳의 석굴이 존재한다.

중국에 불교가 들어 온 이후 평탄대로만 걸었던 것은 아니었다. 흥망성쇠는 인류 역사의 일반적 원리, 중국불교 역시 이와 같은 궤적을 보였다. ‘삼무일종(三武一宗)의 폐불’. 중국 역사에서 폐불정책 즉 불교탄압 정책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일기도 했다. 그 가운데 북위의 폐불사건은 처음으로 겪는 시련이었다. 태무제의 폐불정책은 중국 불교의 일대 위기로 몰아넣었다. 통치자에 의해 불교가 융숭한 대접을 받는가 하면, 탄압의 대상이 되어 사찰 파괴 등 시련을 겪게 했다. 폐불사건 이후 북위 황실의 보호 아래 운강석굴은 개착공사를 본격화할 수 있었다. 바로 문성제의 불교 진흥정책에 의한 결과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운강석굴의 거대한 규모이다. 왜 이렇게 거대한 불상을 새겼을까. 바로 말법(末法)시대에 이르러 그나마 불교가 살아나려면 거대한 석불이라도 조성해 놓아야 파괴를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었다. 일종의 역설적 산물이기도 하다. 하여 중국의 경우, 북방지역은 석굴사원을, 남방지역은 목조사원을 선호하게 된 배경을 갖게 되었다.

운강석굴하면 아무래도 담요의 역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다섯 황제를 모델로 하여 조성한 석굴이기 때문이다. 담요오굴 가운데 문성제의 경우, 몸에 점 자국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석불에도 같은 위치에 점이 나타나 놀라게 했다는 전설이 있다. 왕즉불 사상의 압권이다. 신라에도 한때 ‘왕즉불’ 사상 즉 왕이 곧 부처라는 생각이었다. 불교와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북위 불교의 폐불사건 이전에는 호국 성격이 짙게 나타나기도 했다. ‘황제 즉 여래’, 이런 사조는 불상에 대한 예배는 곧 황제에의 예배로 등식을 성립하도록 했다.

운강석굴은 으레 3기로 시대구분 한다. 제1기(460~465) 석굴은 담요오굴이라는 용어로 특화시킬 수 있다. 태조를 비롯 다섯 황제를 위하여 석굴을 조성한 것. 이를 주도한 담요 스님의 이름을 따 담요오굴이라고 널리 알려졌다. 황제를 위한 사원이어서 그럴까. 이들 다섯 굴은 무엇보다 거대하다. 특히 주존불상의 위용이 압도적일만큼 크다. 지엄한 존재, 황제를 모델로 해서 그랬을까. 보통의 석불과 다른 분위기를 보인다. 오두막 같은 건축형태에 말발굽 같은 평면 그리고 아치 형식의 천정이 특색을 이룬다. 제18, 19, 20굴은 운강석굴의 초기 사원이다. 대상굴(大像窟)인 제19굴이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제17굴은 삼세불을 봉안했고, 그 가운데 미륵불을 중시 여겼다. 제16굴은 주불은 석가상이다. 현재불인 석가는 바로 당시의 임금이었던 문성제를 상징했다.

마찬가지 형식으로 제18굴은 태무제, 제19굴은 명원제, 제20굴은 도무제를 위한 것이었다. 제17굴의 경우, 재위에 오르지 못한 경목제를 위한 석굴로 주존상은 미래불로 봉안했다. 담요오굴, 황제들을 위한 석굴사원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들 조각의 기법은 거대한 크기에 비하여 섬세한 부분 표현을 겸비했다. 얇은 옷자락 같은 표현이 이 점을 말해준다. 담요오굴의 조각적 특징은 삼세불 중시, 건장한 남성적 체구에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광배의 문양 등을 들 수 있다. 한마디로 “이러한 특징들은 늘씬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강건하고 중후하며, 꾸밈이 없는 양식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담요오굴의 특징이다. 이들 특징은 양주지역의 조각과는 다르며 간다라 조각과도 같지 않은 특징이다. 이러한 조각양식은 서역, 양주지역 조각 및 간다라 조각의 특징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그 위에 새로운 요소가 첨가되어 이루어진 것이다.”(마세장 외, 〈중국불교석굴〉)

제2기(466~494)는 문성제 사후부터 효문제의 낙양 천도 이전 시기를 일컫는다. 이 시기의 조각은 ‘아름답고 온화하고 점잖으며 화려하고 진귀하다’. 제3기(494~524)는 낙양 천도 이후의 시기이지만, 아직 과거의 영화가 남아 있던 시기이다. 대형 석굴 대신 규모가 작아졌으며, 작은 규모만큼 바위 벽면 가득 벌집 같은 형세를 이루기도 했다. 각 시대마다의 조형적 특징을 뚜렷하게 한 운강석굴, 그러면서도 위엄을 잃지 않으려한 정신은 파릇하다.

나는 운강석굴을 거닌다. 돈황이나 용문처럼 관광객들이 몰려오지 않아 조금은 한적한 느낌을 갖기도 한다. 언제부터 석굴사원은 유명 관광지로 바뀌어 인파를 몰고 오는가. 종교적 신심은 방기하고, 단순 구경거리로 떨어진 석굴, 그 현장에서 감회를 달리하기도 한다. 향화가 멈춘 사원. 이를 박물관 진열장 안에 ‘진열된 불상’의 신세로 비유할 수 있을까. 불상은 어찌하여 진열장 안에 있어야 했을까. 거대한 규모의 운강석굴, 이 또한 오늘의 현실은 과거의 유물에 불과한 존재인가. 거기다 종교와 권력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현장이다. 담요오굴과 권력과의 관계는 중국 불교의 또 다른 단면을 읽게 한다. 운강석굴은 여러모로 생각을 하게 하는 현장이다.

〈미술평론가,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수행의 문턱에서 서로 위로하고 탁마를 함께하실 도반의 인연이 없고, 어느 종단에 이 한 몸을 의지해야 할지 망설이시는 분! 또는 발심출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 출가는 했는데 은사와의 인연이 박복하신 분! 도첩이나 호계첩이 없는 분! 여법한 각종의식 진행방법을 모르는 분! 등 승려로서 갖추어야할 덕목을 저희 종단에서 교육하고 지도하여 정법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니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총무원장 성곡 지운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 총본산 : 무등산 미륵사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길7번길 5-11)
● 부 설 :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
● 총무원 :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길7번길 5-11
전 화 062)234-9834 | 팩 스 062)223-9233
핸드폰 010-4152-4744, 010-5479-5607



"숙의민주제, 불교 공동체에 답 있다"

윤세원 교수, 〈불교평론〉 겨울호 특집서 주장

촛불 이후 1년, 한국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정권이 바뀌었고 그로 인한 여러 제도적 변화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 1년의 변화에 한국사회와 불교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불교 대표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은 겨울호(통권 72호) 특집으로 '촛불 이후, 한국사회와 불교'를 다뤘다. 정치 · 경제 · 윤리 등 분야에서 촛불 이후 변화와 불교적 대안적 모색이 전문 학자들을 통해 제시됐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윤세원 인천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는 대안 민주제로 부상하고 있는 숙의민주주의를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전통적 맹아가 불교 전통 승가 공동체에 있음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윤 교수는 '민주주의의 당면과제와 불교의 역할' 주제 논문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1991년 내놓은 〈역사의 종언〉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체제 우월 경쟁의 최종 승자라고 했지만, 2014년 저서 〈정치적 질서와 정치적 쇠퇴〉서는 미국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었음을 주장한 것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더 이상 대안이 없다고 보았던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국서 일어난 촛불 혁명 사이에는 내적 연관성이 있다"고 평가하며, 현재 민주주의는 주권 행사의 정치적 의례인 선거가 주권자를 주권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는 역설적 상황에 당면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실제, 촛불혁명을 초래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는 선거에 내재된 통치자 선정 방식의 허술함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해 겨울 광장의 빛낸 촛불들은 "민주주의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한 국정농단 세력과 그들만으로 형성된 카르텔을 해체 혹은 견제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에 한 발 더 다가가자고 하는 요구"였다는 게 윤 교수의 평가이다.


지난해 열린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도철 스님과 참여 시민이 촛불을 나누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촛불 後 사회와 불교' 주제서
선거 통한 대의민주주의 한계
숙의민주주의가 대안으로 부상
구성원 논의로 쟁점 해결하는
숙의민주제, 승가 공동체 유사

윤 교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제시된 '숙의민주주의'를 주목했다. 숙의민주주의는 평등한 시민들 사이에 공개적인 논증과 토론이 이뤄지고 그 결과를 국가 권력의 잠정적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민주적 통치 방식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신고리 원전 5 · 6호기 향배에 관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선 공사를 중지시키고 재개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었다. 결국 시민배심원들은 공사 재개를 결정했고, 정부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윤 교수는 "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모두와 양립이 가능하다"면서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되는 시민배심원단은 쇠퇴 일로의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고 민주주의를 재생시킬 수 있는 희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교수는 숙의민주주의가 불교 승가 공동체 전통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본래 승가는 주인 없이 전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완전한 자치 공동체를 지향했고, 의사 결정도 소통과 화합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불교적 공동체 생활 원칙과 지혜들은 한국불교의 전통 속에 아직까지 살아있다"면서 "구성원 사이 철저한 평등과 자유 보장을 전제로 하는 숙의민주주의는 불교 전통 속에서 너무나 오래 전부터 실천돼 오고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 맹아였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운사 영산전 불상 조성연대 새로 확인

최선일 위원, 2일 한국미술사학회서 발표

영산전 삼존불상 · 나한상 연대
1715 · 1681년으로 각각 확인
기존 1821년보다 상향돼야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 영산전에 봉안된 목조삼존불상과 나한상의 조성 연대가 새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불상들의 조성 시기가 상향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은 12월 2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린 한국미술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선운사 영산전 봉안 불상의 조성 시기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 위원은 '고창 선운사 영산전 불상 연구'에서 기존 도록과 보고서에는 영산전이 1821년 제작됐다고 명시돼 있지만 문헌들을 다시 확인한 결과 불상들은 최대 150년 이상 상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영산전은 기존에 건립된 2층으로 된 각황전이 기울자 보수해 만들어진 것으로, 봉안된 불상들은 기존의 각황전에 봉안된 것을 다시 가져온 것으로 봤다.

목조삼존불상의 경우, '1713년(숙종 39)에 태학(太學)과 태산(太山)이 장륙화신불(丈六化身佛)을 봉안하고자 2층으로 된 각황전을 건립했다', '1715년(강희54) 여름에 장륙불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에 따라 "각황전을 영산전으로 만들면서 각황전 삼존상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최 위원의 주장이다.

나한상에 대해서 최 위원은 "'1677년(강희16) 봄에 화주 유선(惟善), 별좌 천호(天浩) 등이 나한전을 창건한 후, 1681년(강희20) 봄에 나한상을 봉안했다' 고 기록에 명시돼 있다"면서 "현재 영산전 나한상은 원래 나한전에 봉안됐던 것을 1821년에 영산전이 건립되면서 이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산전 내에 봉안된 불상은 기존에 알려진 1821년이 아니라 1715년에 목조삼존불상이, 1681년에 나한상이 각각 조성됐다가 현 위치로 이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상 조성 불모(佛母)들에 대한 대략적 추론도 내놨다. 최 위원은 목조삼존불상은 18세기 전반에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조각승 진열, 하천, 금문을 꼽았으며, 나한상은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색난, 단응, 마일, 금문, 승호, 경탄 중 하나로 봤다. 신성민 기자

경론 번역서 사용된 한글술어 조명하다

티베트대장경역경원, 12월 1일 학술세미나



경론 번역에서 사용되는 한글 술어를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은 12월 1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에서 '경론 번역에 사용된 한글술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범어본 경론의 번역에 사용된 한글술어'를 주제로 발표한 심재관 강릉대 교수는 전재성의 〈십지경-오리지널 화엄경〉에 사용된 한글 용어에 대해 논의했다. 심 교수는 "전재성의 〈십지경〉은 최소 한글을 사용하는 번역자가 '번역' 그 자체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불교용어의 한글화'에 대해 자의식적 노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적 어휘를 논문이나 번역 속에 뒤섞어 쓸 경우, 순간적 성취감이나 신선함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후세 사람들에 의해 무시되거나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글 술어에 대한 역자의 지나친 애정과 정성이 자칫 독자들을 잃거나 독해를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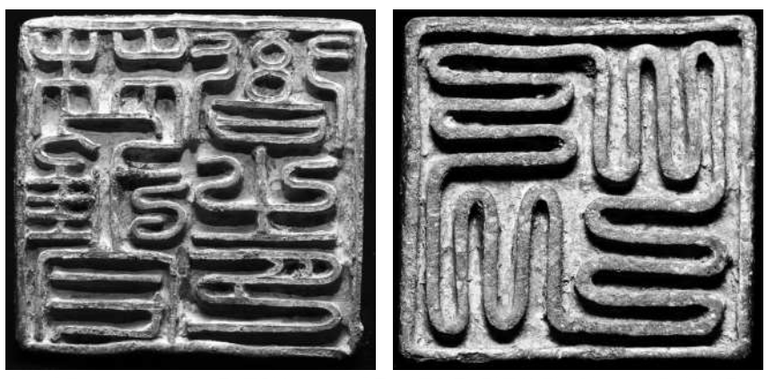
임승택 경북대 교수는 '〈빠띠삼바다 막가 역주〉에 사용된 한글술어'에 대해 발표했다. 임승택 교수는 번역에 사용된 대표적인 한글술어 10개를 사례로 추려 소개하며 "'형성력'이라는 번역은 십이연기의 두 번째 지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것은 무명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인 동시에 다시 의식을 발생시키는 조건으로 기능하는데 즉, 무명과 의식을 잇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티베트대장경역경원장 진옥 스님은 "어떻게 하면 부처님 말씀에 좀 더 가깝고 사람들이 읽기 쉽게 만들 수 있을까가 역경원의 숙제"라며 "오역으로 부처님 말씀이 훼손되어서도 안 되고, 전문적인 번역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흥전리사지서 통일신라 청동 승관인 발견

(재)불교문화재연구소 5일 발굴 현장 설명회

당시 승단서 사용했던 官印
국가-승단 관계 확인 사료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추정 청동인장. 명문은 전서체로 쓰여진 '범웅관아지인(梵雄官衙之印)'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가와 승단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 승단에서 사용한 관인(官印)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삼척시청(시장 김양호)는 12월 5일 삼척 흥전리사지 발굴조사지역에서 발굴 설명회를 열고 발굴을 통해 확인된 청동 승관인(僧官印)을 공개했다.

'중요 폐사지 발굴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발굴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추정 청동 인장 2과가 출토됐으며, 12점의 대호(大壺, 항아리)를 묻었던 장독 보관시설이 확인됐다.

출토된 청동인장 2과는 모두 완전한 형태이며, 이 중 하나는 청동인주함에 인장이 담긴 채 출토됐다. 보존처리 중인 청동인장은 2과 모두 정사각형(5.1㎝)으로 윗면에 끈을 매달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 주문방인(朱文方印)의 형태로 제작됐다. 2과의 청동인장에는 6자의 전서체와 기하문이 각각 새겨져 있다.

2과 중 한 점의 인문(印文)은 '범웅관아지인(梵雄官衙之印)'으로 판독되며, 서체는 당나라 관인(官印)과 유사한 구첩전(九疊篆, 글자 획을 여러 번 구부려서 쓴 전서체)의 초기형태이다. 이 인장은 통일신라 시대 승단에서 사용한 승관인으로 판단된다는 게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설명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범웅관아지인(梵雄官衙之印)' 청동인장은 경주 황룡사지 출토품과 손잡이와 명문 서체 등에서 전체적인 형태와 크기가 매우 흡사하다"면서 "청동인장은 한국 인장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범웅관아'라는 명문은 통일신라 시대 승단 조직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사료"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인장에는 '만(卍)' 자상으로 선을 연결한 문양이 확인됐다. 〈삼국사기〉 권7(신라본기 제7, 문무왕 하)에는 통일신라 시대 문무왕이 모든 관인은 국가가 주조하게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려사〉 권 6(세가(世家) 6, 정종 원년 10월)에도 고려 정종 때에 '식목도감(式目都監)'에서 지방 주군(州郡)이 사용하는 승관인을 거둘 것을 주청하는 기사가 있어 국가에 의해 관인이 관리됐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삼척시청은 흥전리사지의 체계적인 보존 · 관리 ·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차 발굴조사 성과를 집성한 학술대회를 내년 2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제98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2월 29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1996년 12월 1일

12월 1일인데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든다. 어금니는 부어올라 음식을 씹을 수 없고 편도선의 통증으로 뜨신 물을 삼키기에도 힘에 겹다. 한국산 두툼한 파카를 입고 있는데도 이빨이 달달달 떨릴 만큼 춥다.

이곳 티베트의 죠오공에서 이틀을 머물고 있지만 창뚜 가는 버스는 소식이 없다. 게스트하우스엔 삐걱대는 판자침대뿐, 담요 두 장으로 밤의 추위를 견디어야한다. 화장실은 숙소에서 100m 거리의 강변에 있다. 자연친화적이라서 용변은 비스듬한 언덕아래의 강물로 흘러든다.

문짝이 없는 화장실에서 서로 마주보는 것도 민망스런 일이지만 엉덩이 부근으로 파고드는 드센 바람도 견뎌야한다. 드넓은 강물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얼음덩이가 떠밀려 부딪치며 흘러가고 있다.

티베트의 밤하늘은 무수한 별들이 앙상한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듯 가깝게 떠있다. 숙소에서 화장실로 가는 길은 외진 길이라서 대개는 방마다 하나씩 공급되어 있는 세숫대야에다 소변쯤은 간단하게 해결한다.

달빛이 아니어도 티베트의 밤은 초롱초롱한 무수한 별빛으로 꿈과 설레임을 안겨준다. 티베트의 밤하늘은 누구나 시인이 되게 아무나 향수에 젖어 울먹이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온다. 으스스 떨리는 몸을 이끌고 강물을 바라다보면, 하늘의 별빛을 보면 미치고 환장할 만큼 한국이 그립다. 어머님이 그립다. 뜨끈뜨끈한 온돌방이 그립고 배추김치, 깍두기가 그립다. 길거리의 군고구마, 붕어빵이 그립다. 한국에 가면 짜장면은 언제나 곱빼기로 먹을 생각이고 팥고물찰떡은 배가 터질 만큼 먹을 생각이다.

어린 시절의 광숙이, 길자, 은경이도 보고 싶고 통도사 후원의 행자시절의 눈물방울도 비눗방울처럼 뜨고 있다. 어머니! 길게 부르면 서러운 게 왜 이리도 많은지 생각은 하늘을 날아 고향처마 밑에서 놀고 있다.

주일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가게 되면 주일학교 여선생님도 예쁘지만 사탕이며 빵이며 입이 즐거워 생일 같다. 다만 목사님의 그럴듯한 설교 뒤에 미운 바퀴벌레처럼 기어나오는 헌금을 강요하는 듯한 매미채의 등장은 주머니가 비어있는 내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하나님에게 기분 좋게 바칠 동전이 없어 늘 죄송했고 그럴 때마다 잠자는 시늉도 체면 없는 짓이었다.

교회를 오고가는 길거리에서 어머니는 교과서 없는 활자 없는 말씀의 책으로 어린 나의 가슴에 훈훈하게 군불을 지피시며 꿈의 날개를 달아주셨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에 '손으로 태산을 움켜쥐니 호랑이가 주먹 안에서 울고 입으로 바다를 송두리째 삼키니 뱃속에서 고래가 논다'고 하셨더구나."

"유태인들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는 '친구는 두 세급 위를 사귀고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있어도 두 눈은 하늘의 북극성에 두라'는 말씀도 있단다. 오래토록 마음에 담아 희망을 일궈내는 밑거름이 되게 해야 한다."

어머니는 내게 있어 빛이자 부처님이다. 길거리에서 열 번 쓰러져 열 한 번 일어나는 끈질김의 잡초 근성은 어머니의 말씀을 깊이세긴 교육 덕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여행하면서 철이 든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색다른 환경도 익히며 부대끼면서 아파하면서 길을 찾는 것이다. 허허벌판에 홀로서서 절대고독의 의미를 몸으로 부딪쳐 깨달으며 감사와 고마움, 미안함을 배우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무수한 길을 걸으며 무수한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윤회하지만 원초적인 타는 목마름과 마음의 허기는 타인(他人)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것이다.

인생이란 어찌 보면 짧고 긴 여행이다. 여행에서의 경험은 지혜를 일구는 터전이 된다. 경험은 스승이요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여행은 설렘이지만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다. 죽음의 고비도, 뼈를 녹이는 절대고독과 모진병도 역경도 만날 수 있다. 그때마다 '신(神)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신을 만든 사람이 위대하다'는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에 박힌 글이 위안이 될 수도 있을 터이다. 너와 나, 우리 모두는 떠나며 살 일이다.

인생은 어찌보면 짧고도 긴 여행
우리 모두 떠나며 살아갈 일이다

한 생각 툭터진 깨침의 순간은?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선사들의 오도기연(悟道機緣)에는 온갖 사연들이 소개되어 나온다. 참으로 매력 있는 선공부 특유의 일화들이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초월해 설해져 있는 것이 많다. 깨침의 순간을 '한 생각이 툭 터진다.(一念爆破)'고 표현한 말이 있듯이 직관(直觀)이 터지는 계기가 매우 다양하다는 이야기다.

반산보적(盤山寶適)은 생몰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마조도일(馬祖道一:709~788)의 제자로 나와 있다. 『오등회원(五燈會元)』 권3 〈반산보적장〉에 의하면 보적이 하루는 절 밖으로 외출을 하여 길을 가다가 상여행렬을 만난다. 장송곡을 선창하는 사람이 요령을 흔들며 구성진 목소리를 내뽑으며 이렇게 창을 하듯이 읊조리고 있었다.

"붉은 해는 틀림없이 서쪽으로 가라앉겠지만 이 혼령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구나!"

그러자 상여 뒤를 따라가던 상주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을 하고 있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보적이 홀연히 마음이 열려 뭘 뜻이 기뻐하였다. 마조에게 돌아와 그 사정을 말해 주었더니 마조가 보적을 인가하였다고 되어 있다.

보적은 그 후 반룡산(盤龍山)에 들어가 선풍을 크게 드날렸다. 반룡산을 줄여 반산이라 하는데 이 산 이름이 그의 호가 되었다. 반산에 의해 제시된 공안이 여러 개 있다. 그 중에 '심월고원(心月孤圓)'이라는 공안이 유명하다.

『선문염송설화』 250칙에 반산이 대중에게 말한다.

"마음의 달(心月)이 홀로 둥그니, 광채가 만상(萬象)을 삼킨다. 광채는 경계를 비추는 것이 아니요, 경계 또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광채와 경계가 모두 없어지면 이것은 다시 무엇인가?"

그리고 동산(洞山:良价)이 한 말을 이어 놓았다. "광채와 경계가 사라지기 전엔 다시 무엇인가?" (盤山示衆云 心月孤明 光呑萬象 光非照境 境亦非存 光境俱亡 復是何物 洞山云 光境未亡 復是何物)

두 사람이 광채와 경계를 가지고 서로 반대로 물었다. 없을 때는 무엇이고 있을 때는 무엇인가? 상대적인 두 말을 양립시켜 유(有)와 무(無)를 동시에 뚫고 나가라는 공안이다. 사량분별이 끝났을 때의 마음의 정체를 파악하라는 메시지다. '마음의 달이 홀로 밝고 그 광채가 만상을 삼키다'는 말은 선어록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명구이다.

여기에 대해 여러 사람이 읊어놓은 송이 소개 되어 있는데 정엄(淨嚴)은 이렇게 읊었다.

"눈앞에 가득한 만물이 철저히 공한데 모두가 공했어도 공하기 전과 같네. 그 안에는 이름 붙일 필요 없나니 천고로부터의 떨치는 조사가풍이라네."

(滿目森羅徹底空 俱亡還與未亡同 箇中不用安名字 千古由來振祖風)

〈설화〉에는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의 내용을 인용하여 부가설명이 나온다. '마음의 달(心月)'이란 시각(始覺)이 원만한 것이 마치 밝은 달과 같기 때문이다.

'홀로 둥글다(孤圓)'한 것은 마음은 홀로인 것이어서 둘도 없고 잡됨이 없으며, 어떠한 덕도 원만 하지 않음이 없다는 뜻이다. '광채(光)'는 지혜의 비춤이며, '삼킨다(呑)'하는 것은 증득함을 얻는 것이요, '만상(萬象)'이라는 것은 삼세간(三世間) 곧 화엄경에서 말하는 기세간(器世間), 중생세간(衆生世間), 지정각세간(智正覺世間)이 모두가 무량한 법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불이 증득한 경계이다. 그러기에 옛사람이 이르기를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아 본래 고요하다(諸法不動本來寂)" 하였다. '광채는 경계를 비추는 것이 아니다(光非照境)'라고 한 것은 증득하는 지혜가 안다는 상이 없기 때문이요, '경계 또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境亦非存)'한 것은 증득한 경계 또한 상이 없기 때문이다.

'광채와 경계가 모두 없어진다(光境俱亡)'라고 한 것은 증득하는 이와 증득하는 것이 모두 없어졌다는 뜻이요, '다시 무엇인가(復是何物)'한 것은 모두 없어진 그 때엔 그것이 어떤 물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니 생각건대 반산이 경문을 인용하여 선화를 삼은 것이 아닌가 한다.

자비는 모든 부처의 어머니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㉒ 즐거움 가운데 제일은

菩薩思惟。我甚畏諸有。以悲心救衆生故樂處諸有。悲心語菩薩言。我使汝處生死終不放汝。何以故。為報恩故。菩薩思惟。解脫樂為度衆生 不欲食。悲心遮我使不得食。況生死不堅牢樂。菩薩思惟。一切樂中第一佛說涅槃。是涅槃雖樂我智不欲去。所以智不欲去者悲和合故。菩薩思惟。我今敬 涅槃。所以者何。涅槃中無生老病死故。涅槃雖樂悲心所牽。為衆生故而不得去。悲心是諸佛之母。是以不捨向於涅槃。若涅槃就我猶 不證。況棄衆生而向涅槃。菩薩思惟。我欲向涅槃。悲是佛母就我與乳。云何捨去無上菩提。設當不與衆生利樂我亦不求。況復涅槃。菩薩思惟。不應向涅槃捨無歸依衆生故。悲心故使我不證涅槃。涅槃是盡生邊。若無生者何能救拔衆生。

번역 | 보살은 생각하기를, "내가 유위법을 두려워하지만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므로 유위법을 즐거워하리라" 합니다. 보살이 자비심으로 말하기를 "나는 그대 있는 곳에서 생사를 마치고 그대를 놓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과보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해탈락(解脫樂)으로 중생을 제도하려 늘 탐식하지 않으리니, 자비심을 막는다면 나는 먹지 않을진대 하물며 생사의 견고하지 않은 즐거움이리오"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일체 즐거움 가운데 제일이 부처님 설하신 열반이니, 이 열반이 비록 즐거워도 나는 지혜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지혜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비와 화합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열반을 숭상하나니 어째서 그런가 하면 열반 가운데는 생로병사가 없기 때문이니 열반이 비록 즐거워도 자비심에 매인바라. 중생을 위하여 떠나지 않거니와 자비심은 모든 부처의 어머니라. 이로써 열반으로 향하는 것을 버리지 않되 만약 열반을 성취했어도 오히려 증득하지 못한 듯 여기리라. 하물며 중생을 버리고 열반으로 향하랴"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내가 열반으로 행하려 하나 자비가 불모(佛母)가 되어 나를 거두고 내게 젖을 주시거늘 어찌 무상보리를 버리고 떠나겠는가. 중생에게 이익과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으리니 하물며 다시 열반이겠는가"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응당 열반으로 향하되 귀의하지 않는 중생을 버리지 않으리니 자비심 때문에 설령 내가 열반을 증득하지 못해도 열반은 생명이 다하는 것인데 만약 생명이 없다면 어찌 중생을 구제할 수 있으리오" 합니다.

해설 | 부처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천수경〉에는 '불모대준제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의 명호가운데 하나다. 불모는 부처를 낳고 양육하는 부처의 어머니며, 〈준제경〉에서는 청정성을 불모의 성품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제바보살은 자비를 불모로 삼아 설하고 있는데, 진정한 청정성은 계행에 있는 게 아니라 자비를 바탕으로 한 자비행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계행도 자비의 바탕에 서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결론에 쉽게 도달한다. 그래서 중생을 향한 자비 앞에서는 열반도 부질없고, 해탈락도 부질없다.

그렇다면 누가 불모대준제보살의 행을 하는 이인가? 당연히 중생을 부처로 키우는 이들이다. 수행자들은 스스로 부처의 제자로서 자부심을 가지되, 자칫하면 때달아 부처가 될 존재로서의 아만심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공양을 받으려고만 하고, 행은 따르지 못하면서 거만하게 가르치려 한다. 이런 수행자를 받아주고 존경하며 따르는 이들은 누구였던가? 결론은 자명해진다. 스스로 자고한 생각에 빠진 수행자는 중생이 되고, 그 중생을 자비롭게 섬기는 불자가 바로 '불모대준제보살'이었음을.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금정총림, 다라니기도 禪悅에 빠져

〈선열〉

경선 스님 "종합수행도량, 다양한 수행법 제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는 소리가 밤 깊은 산사를 가득 메웠다. 불자들은 다라니 기도로 추위도 잊은 채 눈을 감고 염주를 돌리며 미동하지 않았다. 기도를 마치자 불자들은 함께 해준 스님과 도반에게 박수를 보냈다. 기도의 환희를 느낀 얼굴엔 눈물 자국과 웃음이 가득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신묘장구대다라니 일만독 불사를 시작했다. 매월 둘째 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7시 설법전 문을 열고 다라니 기도를 진행 중이다. 다라니 정진 두 번째 시간인 12월 4일, 설법전에는 200여 명의 불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기도 시작 전 집전하는 스님의 소리에 맞춰 불자들은 천천히 천수경을 외웠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순서가 되자 끝없이 반복했다. 불자들의 좌복 앞에는 천수경과 함께 자녀들의 사진이 놓여있었다. 대학수능시험을 마친 어린 학생들도 보였다. 부모와 함께 손을 잡고 따라와 눈을 감고 합장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1시간 30분쯤 지나고 기도가 마무리 되자 참가 대중은 마음을 다해 절을 하며 발원했다.

기도에 참석한 불자들은 다리니 기도 시간을 열어 준 스님에게 감사를 표하고, 기도 정진으로 힘이 난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경순(58) 불자는 "다라니는 비밀 주머니이다.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그 기쁨에 계속 찾게 된다"며 "오래 전에 범어사에 다라니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사라졌다. 다시 기도 시간이 생기고 도반들과 함께 정진할 수 있어 스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예진(64) 불자는 "다라니 기도를 하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듯한 환희와 기쁨을 맛본다"며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도 찾아와 기도를 한다. 지금 만독 불사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복하다"고 기뻐했다.

다라니 만독, 회향 없는 기도
불자 신심 고취 위한 자리로
매월 둘째 주 월·화 오후 7시
"근기 맞는 수행법 배워가길"

다라니 만독 회향일을 묻자 범어사 원주 석경 스님은 "회향일은 사실 정해진 바 없다. 만독 불사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스님은 "1시간 30분 동안 기도하면 대략 50회 정도 다라니를 하게 된다. 이틀이면 100회 정도 인데 십년이면 만독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끝없는 정진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범어사 다라니 만독 불사에 동참한 불자들이 매서운 겨울 추위도 잊고 다라니 기도 정진 중이다.

범어사 다라니 정진 기도는 매월 둘째 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7시 설법전에서 마련되며 참가방법은 기도 시간에 맞춰 설법전을 방문해 참가비를 내면 된다. 참가비는 매회 만원.

한편 범어사는 새로운 신행 바람이 연이어 불고 있다. 최근 다라니 기도와 아울러 관음전 천일기도도 새롭게 시작했으며, 53선지식 천일 화엄대법회도 열리고 있어 매월 초하루마다 대강백의 법문을 만날 수 있다.

주지 경선 스님은 "범어사는 금정총림이자 화엄도량으로 다양한 수행법을 제시하고 불자들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선 스님은 "한국불교는 통불교로 선과 율학, 기도, 교학 등 다양한 수행법을 수용한다. 화엄사상도 통불교적 사상으로 나누고 분별함이 없다"며 "범어사는 화엄도량이자 종합수행도량인 총림이다. 다라니 기도도 다양한 수행법을 제시하고자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으로 성장하도록 도량을 열어 맞이하는 것이 소임 맡은 스님들의 역할이다. 각자 수행과 역할에 잘 전념해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통일 위한 소통의 장 열어야"

부산 민추본, 10차 강연회

"있는 그대로 북한을 본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관성적인 대북인식에 혼란을 안겨주고, 다른 측면에서 당혹감을 느끼는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터널입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가 12월 5일 민추본 부산지역본부 10차 강연회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개최했다.

정창현 서울대 외래교수(현대사 연구소장)는 '있는 그대로의 북한에 대한 이해, 다름과 변화 그리고 만남' 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소통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체제와 이념을 강요하며, 싸움을 통해 상대를 흡수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치열한 '경제 전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 남과 북이 서로 협력의 길, 함께 경제성장을 모색하는 선택을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의 지름길을 위해선 막힌 소통의 장을 열어야 한다. 준비된 만남으로 시대 흐름과 북한의 변화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연회에는 본부장 심산 스님을 비롯해 정관 · 지일 · 진효 · 진각 · 능후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사찰 송년을 지역 나눔음악회로

대구 해운정사, 12월 3일 송년회 · 화합음악회

정진 · 나눔 · 실천도량인 대구 해운정사(주지 청명)가 12월 3일 경내 1층에서 제8회 송년회 및 화합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해운정사 주지 청명 스님과 (선)승가회 스님, 일심비구니 스님 및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문희갑 前대구시장, 윤욱 달서구노인복지회 관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무대는 14명 신도들이 육법공양을 올리고, 영산합창단 축가곡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에 이어 프리소울 앙상블 4중창과 관음회 하모니로 장식했다.

주지 청명 스님은 개막식 인사로 정몽주의 국화시 한 편을 낭독한 후 "항상 최고보다는 최선을 생각하며 맑고 향기로운 부처님 법 따라 실천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길 기원하고, 부처님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푹 쉬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년회 및 화합음악회서는 해운정사 신도회가 달서구 송현동 지역, 소외이웃에 150여만원 성금을 송현동장에게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옥천암, 자비의 쌀로 남구지역 훈기 더해

1080kg 전달, 경로잔치도

부산 옥천암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옥천암(주지 대각)은 12월 2일 옥천암 경내에서 자비의 쌀 1085kg을 지역민에게 전달했다.〈사진〉 자비의 쌀 전달식과 함께 산신제 및 경로잔치도 열어 훈훈함을 더했다. 전달식에는 부산불교교육대학장 범혜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대각 스님은 "이 쌀과 음식은 모두 신도님들의 공양 정성으로 마련됐다"며 "이렇게 자리 참석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회향할 수 있어 기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문화관광특구 중구를 佛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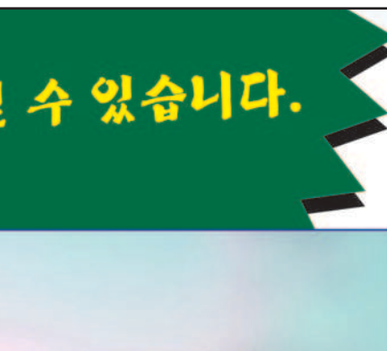
부산중구불교연합회 공식출범

관광특구이자 상업 중심지인 부산 중구 지역에 불교연합회가 출범했다.

부산중구불교연합회(회장 종호)는 12월 6일 미타선원에서 '부산중구불교연합회 창립법회' 를 봉행했다. 창립법회는 중구불교연합회 회장 임명장 수여 및 인사,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또 소속 사찰 및 임원진 소개, 축사, 법문이 이어졌다.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심산 스님,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및 김은숙 부산중구청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종호 스님은 "풀뿌리 불교조직을 견고히 하기 위해 중구불교연합회를 창립하게 됐다. 지역구 불교연합회의 발전은 곧 부산불교연합회의 발전이며, 크게는 한국불교 중흥에 도움을 줄 것을 확신한다"면서 "부산 중구는 지역 특성상 원도심이자 관광특구이다. 젊은이와 함께하는 연등문화제를 열고 젊은 불교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명장을 수여하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오른쪽)과 중구불교연합회장 종호 스님(왼쪽)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은 "부산 16개구 가운데 중구는 중심지였다"며 "중요 지역에 연합회가 정식으로 창립되고 법회가 여법하게 열려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부산시 중구는 50만 명의 생활인구가 운집하며 국제, 연안여객부두, 부산역이 인접해 있어 부산의 관문역할과 국제화의 전초기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용두산공원, 중앙공원, 자갈치, 국제시장이 위치한 문화관광 중심 지역이다. 중구불교연합회에는 지역 내 8개 사찰이 등록했다. 앞으로 소속 사찰은 젊은 불교를 선양하고 상가 상인 및 외국인 포교를 위해 불교문화축제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소속 사찰은 고심정사(주지 일성), 미타선원(주지 종호), 대각사(주지 경우), 수도암(주지 거산), 정수사(주지 일준), 용해선원(주지 혜덕), 일성사(주지 법령), 칠성암(주지 정원)이다. 임원은 고문 원택 스님(고심정사 회주), 회장 종호 스님, 수석부회장 일성 스님, 부회장 일준 스님, 감사는 거산 스님이 맡는다.

지난 201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광복로연등문화제를 위해 고심정사, 대각사, 미타선원, 정수사가 함께 동참했다. 이후 2017년 '중구불교연합회' 창립이 제안됐고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 추진했다. 2017년 4월 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후 8개 사찰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법회가 봉행됐다.

한편, 중구불교연합회 창립으로 부산 16개구 가운데 15개구가 창립됐다. 부산 서구에서 연합회가 창립되면 모든 지역구 불교연합회가 완성된다. 하성미 기자

군 · 경과 이웃 위한 나눔의 茶

부산남구불교聯, 제5회 자비나눔 일일찻집

차가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차 한 잔에 젊은 군인과 경찰 그리고 이웃을 위한 관심과 사랑이 담겼다.

부산 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는 12월 3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5회 군 · 경 포교와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일일찻집을 개최했다.〈사진〉



일일찻집은 군인과 경찰 등 젊은 불자 포교를 위한 지원금 마련뿐 아니라 포교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돕는 중심처가 됐다. 매년 남구불교연합회원 스님들과 신도 대표 등 불자들이 하나 되는 자리로 참가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남구불교연합회장 지원 스님, 동명불원 주지 화랑 스님을 비롯해 불자들이 발길을 이었다.

남구불교연합회장 지원 스님은 "정유년을 마무리 지으며 자비나눔으로 사바세계를 아름답고 청정하게 가꾸고자 일일찻집의 소연(小宴)을 마련했다"며 "오늘 행사 수익금은 미래 불교를 책임질 젊은 군 · 경 포교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무집착의 자유가 〈금강경〉의 뜻”

순천 송광사, 제13회 금강산림대법회 회향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진화)는 12월 5일 제13회 금강산림대법회를 회향했다. 지난 10월 17일 입재한 법회는 송광사 유나 현묵 스님, 자비선사 회주 지운 스님, 신행선원장 영명 스님,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 통도사 승가대학장 현진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조계종 호계원장 무상 스님의 〈금강경〉 특별법문과 천도재가 봉행됐다.



이날 회향식에서 초청법사인 지현 스님(송광사 율주)은 “단순히 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보석, 재물, 아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집착하지 않는 무집착의 자유를 얻는 것이 〈금강경〉의 참 뜻”이라며 “〈금강경〉을 통해서 집착을 떠나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자”고 말했다.

회향법회에는 특별법문과 천도재에 이어 법성도 요잡의식〈사진〉과 반야용선 소대의식으로 이어졌다. 한편 송광사는 조계종의 소의경전이자 대승경전의 핵심인 〈금강경〉의 가르침을 보다 가깝게 전하고자 매년 금강산림대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진화 스님은 “신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생활 속에서 〈금강경〉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법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장보살 · 시왕, 불자들 원력으로 세워

정읍 내장사, 명부전 지장보살 · 시왕상 점안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 정읍 내장사 명부전에 지장보살과 시왕이 새롭게 조성됐다.

내장사(주지 도완)는 12월 2일 회주 대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새롭게 조성된 명부전 지장보살상과 명부시왕 점안법회,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

내장사 명부전 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은 그동안 개금이 쇠락하고 단청이 탈락돼 많은 불자들이 안타까움을 표해 왔다. 이에 주지 도완 스님과 불자들의 원력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불사에는 장병택 문화재수리기능사가 참여, 전통방식으로 1년여에 걸쳐 지장보살좌상, 시왕상 10체, 금강역사 2체, 좌우 협시보처 19체를 복원했다.

주지 도완 스님은 “이번 명부전 지장보살 및 시왕상 조성불사는 신도들을 비롯한 사부대중의 원력이 표출된 것”이라며 “내장사가 지역사회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한국불교를 이끄는 신행포교 중심도량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자들이 차린 외롭지 않은 생일상

탑사 · 쌍봉사, 소외계층 어르신 초청 생신잔치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소외계층 어르신 100명을 초청해 생신상을 차려드렸다.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은 12월 1일 전주 라루체 뷔페식당에서 홀몸 어르신 등 가족과 떨어져 사는 소외계층 어르신 100명을 초청해 성대한 생신잔치를 열었다.〈사진〉 이날 생일잔치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생일케이크를 앞에 두고 함께 노래하며 외롭게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또 이날 참석한 어르신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건강보조식품 등 선물이 주어졌으며, 모든 어르신들에게는 겨울이불이 전달됐다.

진성 스님은 “늦었지만 홀로 생일을 맞는 지역 어르신들이 많다는 생각에 5년째 동참하고 있다”며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활동했던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경 스님도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진성 스님 “봉사를 수행 방편으로 정진”

제18대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취임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이 한국불교태고종 제18대 전북종무원장에 취임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12월 3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17대 종무원장 도광 스님과 18대 종무원장 진성 스님 이 · 취임법회를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덕화 스님,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前총무원장 도산 스님, 중앙종회의장 설운 스님, 호법원장 지현 스님 등 100여 명의 스님들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동영 국회의원, 이항로 진안군수, 등 정관계 인사 포함 1,000여 명이 동참했다.

대구 혜인정사 불자들의 육법공양에 이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의 영산대재 시연으로 막을 올린 이날 법회는 △이임사 △감사패 증정△임명장 수여 △종무원장 약력보고 △취임사 △승가 종도발전기금 전달 △법어 △격려사 △축사 △축하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광대한 부처님 지혜는 허공과 같아 일체중생의 마음에 두루하고 삼세법을 모두 알아 일체중생의 근기도 모두 요달하셨다”는 〈화엄경〉 게송을 설한 뒤 “새롭게 취임하는 진성 스님을 중심으로 전국제일 교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도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진성 스님은 취임사에서 “종무원장이라는 영광과 명예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취임을 맞게 됐다”며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사부대중이 뜻을 같이 한다면 전북종무원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

영광 · 명예보다 책임감으로
전국 모범교구 발전 다짐
5원제도 확립 · 장학회 설립
대사회 역량강화 나선다

구 원로회의 확대를 통해 어른스님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승가본연의 수행가풍 진작과 화합승가를 이루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진성 스님은 또 “종무원과 지방종회, 지방사정원, 교육원, 포교원의 5원제도를 확립, 영산작법 보존회 활성화를 위해 상설전시관 운영을 통한 불교문화 가치의 세계화, 태고불교문화대학과 불교교양대학 설립, 태고진묵장학회 설립, 자비나눔활동을 통한 대사회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임기 중 전북교구가 전국의 중심교구이자 한국불교의 모범교구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오른쪽)이 새로 취임한 진성 스님에게 ‘태고종효광’이라고 적힌 휘호를 전달하고 있다.

제17대 종무원장 도광 스님은 “개인적으로 향상된 삶의 이정표였고 종무원 청사가 마련되는 등 보람된 일이 있었다”고 지난 8년간의 임기 소회를 전했다. 이어 “새 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중심으로 화합과 상생을 기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종도들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도의 중요 현안마다 도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전북발전에 앞장선 진성 스님의 취임을 계기로 태고종이 중생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대표종단으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축하했다.

취임식에서 도광 스님은 교육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으며 무형문화재 영산작법보존회(회장 혜정, 동고사 주지)는 종무원발전기금 500만원과 태고진묵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한편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새해 초 전국 태고종 사찰들과 함께 2023세계잼버리대회 성공기원 용왕대재를 영산작법 보존회와 함께 성대히 봉행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해동율맥 스승의 정신을 기리다

담양 용화사, 12월 3일 해동율맥탑비 제막식

한국불교 해동율맥 스승들의 정신을 기리는 탑비가 조성됐다.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는 12월 3일 경내에서 ‘부처님 사리탑 및 해동율맥탑비 제막식’을 봉행하고 해동불교 율맥을 상징하는 탑비를 조성했다.

조선 선조시대의 제1대 대은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해동율맥은 금당보명, 초의의순, 범해각안, 제산정원, 호은문성, 금해관영, 만암종현, 묵담성우, 혜은법홍에 이어 제11대 수진 스님까지 이어졌다. 이에 용화사는 율맥 스승들의 탑비를 제막하고, 이를 기념하는 부처님사리탑을 함께 조성했다. 또한 9대 율사인 묵담 스님의 삶과 사상을 담은 〈묵담대종사, 그의 선 · 교 · 율〉도 봉헌했다.



해동율맥탑비 제막식에서 내빈 스님들이 탑비 제막을 하고 있다.

행사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암도 스님 등을 비롯한 여러 종단 지도자 스님들과 이개호 국회의원,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제막을 축하했다.

혜초 스님은 법문을 통해 “조사스님들을 선양하는 수진 스님에게 감사드리며, 선 · 교 · 율에 큰 족적을 남기신 묵담 스님 가르침을 널리 펴기를 기원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법문에 앞서 행사를 준비한 수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법석은 묵담 대종사의 탄신 121주년을 기념해 탑비를 조성하고 책자를 발간했다. 후손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역대 가장 많은 교수들이 참여해 묵담 큰스님의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게 됐다”며 “향후 많은 분들이 묵담 스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사는 1부 불공의식과 종산영반, 2부 묵담 대종사 책자 봉정식, 3부 불사리탑 및 해동율맥 11대 율사 탑비 제막식으로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안 경찰서 경승 위촉

부안 경찰서 경찰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할 경승이 위촉됐다.〈사진〉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는 12월 5일 서내 강당에서 경승 위촉식을 열고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내소사 포교국장 혜공 스님, 혜원사 주지 정원 스님을 부안경찰서 경승으로 위촉했다. 경승위원장에는 진성 스님이 임명됐다.

진성 스님은 “오늘 위촉받은 경승위원회의 여러 스님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민 · 경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민 서장은 “경찰관들이 불교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강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탈종공고

• 법 명 : 지현(황정예)

• 승려증번호 : 0186-0174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연화사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연화사길 28-1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중생이 온갖 고뇌에 처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즉시
소리를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한다.

– 법화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신묘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등속히매매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척추교정
비법전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 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관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산소송사재판,이혼수,낙태유산,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얼굴만 보면 알 수 있다)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천기누설)
010-4014-8822

구성학 무료강좌
2017년 12월 16일. 17일
토요반 16일 14시–16시
일요반 17일 14시–16시
3개월 강좌
선착순 각반 10명(장소 관계로)
경산 와촌면 대한리 (불담정사)
010-4876-5353

보담스님 하늘소리
영가천도. 점안 각종
의식. 바라, 작법.
살풀이. 연화무
010-9229-9899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대불 탱화,개금,석불,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제작
이조불교재활용 센타대표
010-9177-7842

사찰, 포교원 안내
(서울, 경기)
부전, 공양주 상담
법당 철거 전문
010-5381-1419

2018년 내 운세
신비한 타로점으로
전화 상담드립니다.
타로수강생 모집
한달만 배우면
2018년 운세 상담가능
010-2748-6321 향수해 보살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7269-3689

공양주 보살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북 울진)
010-2078-9595

기도처, 공부하실 곳이
마땅하지 않으신
비구니스님 누구나.
숙식 무료제공(5명 선착순)
* 본 사찰에서 기도,
부전스님으로 있을 수도 있음
(상담 후 결정)
010-5212-4533

룸비니 석가사
에서 7년동안 계
셨던 비구니스님
을 찾습니다
010-3428-6665

배우자 구함
남 64세, 회사원, 여행 취미
성격 부드럽고 진실한
아들 없는 홀로 되신 여성
인연 바랍니다.
(북한 여성 환영)
010-4074-307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命理學. 실전통변비법
命理學 & 神通術 (스님직강)
기초반, 실전반 모집 (1:1 맞춤 개인교습)
칠성사 부설, 칠성문화원 (경기도 시흥시)
010-8427-6199. 070-4643-6199

1시간이면 비법전수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중풍, 당뇨, 고혈압, 치매, 손발저림
예방, 치유가능
네이버 '현오스님' 검색
010-9229-3801 약손스님 현오

위패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사찰행사 전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터고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회심곡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2)918-5554. 010-7703-1188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초보자 환영, 55세 이하)
041-673-8385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 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사단법인에 등록된 단체 및 사암만이 기부금 행위 등 종교활동을 인증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 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 대법원 등기
※ 대한민국불교종단 평화기장 수여
※ 공인단체 각종 시상을 추천 가능
※ 불교대학(문화센터) 개원
※ 수시 종무 행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 소 부
☎ 011-356-3427 (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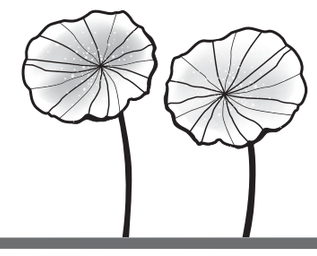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보이고 신뢰가 최상의
친지이고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 법구경 -



양평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 방사. 요사. 공양간. 토지 등 4.500㎡
- 사찰 경관 우수하고 계곡 접함. 산중 사찰
- 양도가액 : 40억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펜션 및 장기요양 안내
허리 무릎 어깨 통증으로 고통 받는분, 암등 불치병으로 투병하시는 분!
따뜻한 남쪽나라 남해 자연 치유마을 황토 구들장 팬션으로 오세요!
전통재래 구들장으로 지어진 뜨거운 방에서 몸의 모든 독소를 배출하시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명상길에서 지친 심신을 충전 하십시오.
장기요양 하실분 환영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 "남해여행닷컴" 네이버 · 다음에서
"황토구들장 펜션" www.구들장팬션.kr을 검색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시면 영험하신 도안스님의 친절한 인생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안스님 연락처 010-9036-2131)
자연 치유마을 황토구들장펜션 주소 : 경남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81번길 23-32
문의전화 : 010-6260-3915 / 010-5352-924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강릉시 사찰부지 ◎ 위치 : 경기도
◎ 대지 : 70평, 부지 400평 ◎ 대지 : 2200평
◎ 합 470평 ◎ 인법당 : 40평, 차량진입
◎ 산 및 바다조망 ◎ 계곡 및 산속
◎ 양도가 : 1억 1천 ◎ 양도가 : 6억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양평 사찰(급)안내
- 한옥 법당. 요사채 등
- 토지 1350㎡. 전철역 13km
- 산중 최고 사찰. 기도 도량
- 수행터로 위치 좋음
- 양도가액 : 3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103-35호 서울에서 1시간거리 감곡IC 10분거리 2018년 전철개통 예정
- 대지 184평, 답 290평 전체 474평
- 삼존불외 약사 여래불 약사기도원 모두 목불부처님, 아미타불, 관세음불, 지장불 약사여래불 삼성각 약사여래기도 도량
- 지하대공 116m, 황토방 건물 약 60평
- 전체 몸만 오시면 됨, 완벽함, 모든것 일체, 납골부지 포함
- 가액 : 2억 6천

010-6674-1356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차편 10분거리)
- 사찰건물 : 32평 독채 등기필
- 법당, 주방, 방 2, 세면장
- 시가지 대로변 포교사찰 남향
- 대지: 도지료 1년 35만원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4천 8백 만원

010-7295-125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 입주, 몸 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봉양읍
- 법당, 거실, 주방, 방
-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 4천 5백

010-5258-1570

암자(토굴)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마곡사 근처
- 면적 100평
- 특징 : 큰스님 공부하셨던 아담하고 예쁜 암자
- 조용한 토굴
- 가액 : 1억원

010-3566-0385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불교 고장 김해 부득이 임대하고저 합니다
- 큰 대로 옆, 건물 65평
- 방사 3칸, 공양간 1칸 화장실 남, 녀 각1개, 주차완비
- 아미타 삼존불, 천수관음 포대화상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절충가능

010-7702-629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3884-0122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주택, 대지 37평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내
- 대지 200평, 1, 2층 7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즉시 법회 가능 시설완비
- 가액 : 3억 3천(가격조정)

010-4561-214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순창
- 종교부지:208평, 대지:63평 전 : 419평, 종 : 690평
- 목조 및 벽돌 구조
- 법당,산신,칠성,독성,요사채 방7개, 거실, 공양간 2개, 화장실 3개, 창고등 다용도실
- 가액 : 2억 3천 500만원

010-4489-334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
- 요사채 : 공양실, 방 2칸
- 가액 : 2억 7천

010-3508-7710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화장실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5천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 기타)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정도 임)

연락처 010-8697-2251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림)

아름다운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성주 대가면 대천리219
- 한옥, 평수 215평 사용실평수 350평 정도 건물 2동
- 가액 : 1억 7천 (융자6천 포함)
- 소나무 울창한 산밑

010-3850-7179

사찰안내 및 전세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소재
- 총면적 : 530평
- 법당. 종무소, 요사채, 산신각, 공양간. 창고
- 가액: 7억, 전세: 2억

연락처 010-2702-030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로 103의 35호
- 대지 367평 전체 옛날 집 약 100년 흙집
- 지금 사용하고 있던 아주 좋은 명당자리, 대학총장님이 태어난 자리
- 약30평.2018년 전철 개통 예정
- 거리 :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 감곡IC 10분
- 가액 : 1억 5천 조정가능

010-6674-1356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 사찰터로 적당한 전답 1천 8백 평
- 가액: 1억 8백만원

010-2016-62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전철역 앞 역세권
- 전용면적 100명, 최신식 현대 최고인테리어 제반시설 완비,
- 보증금 3천만원, 월 220만원 시설비 상담 후

010-5800-933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 2동 437~5 동구시장 맞은편. 명보약국. 골목
- 4층건물 내 2층 40평 중 내실. 상담실 주방. 세탁실. 화장실 법당 29평내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신중탱1점 소불 관세보살 지장보살
- 장엄.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시설비는 추후 상담
- 오후2시 30분 이후. 연락주세요

010-9282-588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위치한 작은 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 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구거(溝渠) 약 100평(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 인연 닿는 스님께 양도 원함

010-7121-3030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 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
- 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아파트 대단지 부근
- 가액 : 3억 5천만원

010-5019-5385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예안면 신남리 702, 701, 693번지
- 도로, 전기, 물, 구옥, 정남향 836평
- 가액 : 사천오백만원

010-6783-2513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도로에서 등산로 20분(950m)
- 법당1, 요사채3, 황토집4동
- 종교용지 전답 800평 (깊은산골 청정도량)
- 가액 : 1억 8천(조정가능)

016-614-0066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 상가 : 4층, 5층, 평수 70평
- 층수 : 4, 5층 법당 및 요사채
- 가액: 전세 1,500만원, 월 80만원
- 현재법회 중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비품 등은 보시고 협의하여 결정

010-3305-5313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산시 중방동(시내)
- 2층 극락전 20평,삼존불,후불탱화, 영가단(목재),극락전/3층 대웅전20평, 후불탱화,신중탱화,대웅전(목재),산왕단 요사채방1칸,옥상20평사용(요사채로꾸며도 됨) 포교원 통로 단독사용.총 60평 사용
- 가액 : 월세 25만원이나 1년에 300만원(시설비 350만원)

010-4077-2747

사찰 전세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
- 평수 : 400평
- 법당, 산신, 용왕, 공양간, 스님방, 건물6동, 집기일체 완비 법회 바로 할 수 있음
- 사찰 앞 아름다운 연못
- 꼭 하실분 연락바람
- 가액: 보증금 2천, 월 50만

010-3850-717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시내 뒷산
- 경관좋음. 정원수 다량. 조경된 아름다운 절
- 포교 최적지
- 대지 1200평. 법당 26평. 요사채 30평 공양실 16평(전체 목조. 단청 완료됨) 창고. 저온 창고.
- 가액 : 8억(대출 1억 안고) 절충가능

010-6603-1456

친환경 삼베타올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 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 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별장 같은 암자
- 위치 : 가야땅 돗대산 자락
- 창건 20년, 대지 270평, 대웅전 23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 용왕당, 현재 평생위패단 준비중
- 주지실, 종무소, 창고, 모든 시설 완벽
- 의료관광 특구지정
- 거리 : 공항 15분 → 시청 5분 → 지하철 5분
- 현재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 100일전 뉴타운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완료
- 가액 : 8억 8천(은융 2억 1천) 안고

010-9906-3631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8,4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지하철입구
- 스님들이 공부하던 법당
- 손개금 전통 삼존불 및 일체 제반시설 실비로 드림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55만원
- 평수 : 35평 전층

010-7149-336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 편리함
- 대지 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 내, 방 2개, 주방 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 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 평수 : 50평
- 삼존불 및 소불
- 가액 : 전세 1000만원, 달세 50만원
- 비품 보시고 결정 몸만오시면 됨
- 불사이전 관계상 급 양도

010-7734-9432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대지 : 969.3평
- 건물 : 대웅전 1층 요사채 2층 요사채 등 총 5동
- 차도에서 50m 산아래 버스진입 남향
- 석상삼존불 일주문 종각
- 가액 : 9억

010-6838-314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 대지 평수 265㎡(80평) 2층 법당 20평, 산신각 1동 1층 요사체 15평
- 아랫체 창고 방 1개
- 산자락 및 아담한 암자
- 가액 : 융자 4천 안고 1억 2천만원 절충가능

010-8794-1257
010-6222-5835

목조 황토 주택
- 위치 : 경남 남해군 남면
- 대지 190평, 건물 22평
- 정각 1동 남향
- 소나무 숲아래 전원주택 기도원. 암자 기존주택
- 찜질방(방 4개), 텃밭
- 2017년 그린 현대식 리모델링
- 가액 : 1억 4천 7백만원

010-5937-2453
010-3831-707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청림동
- 상가 2층 80평 단독사용
- 삼존불, 소불 탱화, 인등 법당, 사무실, 공양간 스님방, 화장실 3개 주차양호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보시고 결정

010-2857-2811

상가 포교원 안내
- 위치 : 전주시내.앞 도로변. 좌로4차선.앞으로 2차선.
- 주변환경. 전북경찰청. 도청. 아파트. 상가. 주택 밀집지역. 공원. 천변산책로
- 대지 61평.뒷마당 있음.건평 90평 각 30평.3층 건물
- 1층:방3개 공양간 해우소. 2층:법당.수미단원목조성.소불300불. 연등.700.인등.영가인등 해우소. 3층.주택.방3개. 화장실2개. 외부.내부 뼈대외 올리모델링.시시카메라 10대
-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면 최고의 위치
- 가액 : 4억 3천만원(불사관계로)

010-5904-8608

英스카우트연맹, 불교 활동 시작

맨체스터 불광산사서 불교스카우트 12월 3일 발족

매주 일요일 英불광산사서 운집
20명 가입, 명상 · 전인 교육 진행
무슬림스카우트 이은 두 번째



영국 최초 불교스카우트 '붓다스 라이트' 회원들이 발대식 후 밝게 웃고 있다.
사진출처=가디언지

영국에 최초의 불교 스카우트가 발족했다. 영국 유력일간지 '가디언' 紙는 12월 2일 영국 맨체스터에 최초 불교 스카우트 '붓다스 라이트(Buddha's Light, 부처님의 빛)' 발족을 보도했다. 이 스카우트는 12월 3일(현지시간) 발족식을 갖고 첫 출범했다.

1991년 창설된 영국 스카우트연맹은 61만 8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스카우트 단체다.

이번에 발족한 불교스카우트 '붓다스 라이트'는 공식 영국 스카우트 연맹 소속 단체로 불교 명상을 비롯해 전인 교육 등을 수행한다.

가디언지는 "영국의 첫 공식 불교 단체로 영국 아이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평가했다.

'붓다스 라이트'는 참여를 원하는 모든 지역 청년들에 개방된다. 붓다스라이트 스카우트 대원들은 매주 일요일 맨체스터 불광산사에서 법회 후 스카우트 활동을 이어간다.

'가디언'지는 보도시각인 12월 2일 당시 8세부터 14세까지 어린이와 청년리더 20명이 가입을 했다고 전했다. 10년 전 말레이시아서 영국으로 이주해 온 문깃최(Munkit Choy) 맨체스터대 과학박사는 자녀를 스카우트에 가입시켰다.

최 교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단지 불교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주고 싶어 가입하게 했다"며 "아이들이 단지 명상과 법문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전범위한 교육을 받고 오길 바란다. 예를 들어 불교적인 삶을 사는 법 등을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 교수는 이어 "이번 불교스카우트 발족은 영국 내에서도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카우트는 1908년 영국 기병대 장교였던 육군중장 로버트 S. S 배든 포얼이 '보이스카우트'를 창설하며 처음 생겨났다. 보이스카우트는 야외생활의 기쁨을 강조하고 야영 · 수영 · 항해 · 등산 · 동굴탐험 및 카누 타기 등의 야외활동을 추구한다. 훈련 진행 과정에 따라 휘장과 뱃지가 수여되며, 일상적인 선행을 장려한다.

스카우트의 뿌리는 기독교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국 스카우트는 이웃 종교에 관대한 편이다. 2006년에는 영국 내에서 최초로 무슬림 스카우트 단체가 만들어 지기도 했다. 2012년에는 이웃종교 스카우트를 위한 헤드스카프 등 특수한 유니폼을 지급하기도 했다.

영국 스카우트연맹 측은 "우리의 스카우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인종과 종교를 존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불교 스카우트 관계자는 "영국 아이들이 뱃지를 위해 여러 활동을 하면서 불교를 이해하고, 더 이상 '중국의 종교'나 '이상한 것'으로 보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모래로 만든 부처님, 마음은 금강석"

인도 불교 모래예술제 12월 2일부터 성황리에 개최



찬드라바가 해변에 조성된 부처님 모래예술
사진출처=The TIMES of INDIA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The TIMES of INDIA)는 12월 2일 인도 힌두교 유적인 코나락 사원 근처의 찬드라바가 해변에 구축된 모래예술제를 보도했다.

2일 개막한 이번 모래예술제에는 독일과 멕시코, 가나와 싱가포르, 스페인, 러시아 등 9개국에서 총 70여 명이 참여해 5일간 모래 예술을 선보였다.

'Save the sea'로 붙여진 이번 모래예술제에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렸다. 두 번째 날에는 'Buddhist Circuit'을 주제로 불교 유적을 묘사하는 모래예술이 대거 선보였다.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 측은 "예술가들은 인도와 해외에있는 다양한 불교 기념물과 우상에 자신의 모래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 평화의 메시지를 예술을 통해 세상에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래 예술가 수다르산 파넥(Sudarsan Pattnaik)은 "해변에 쉽게 접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소중하다"고 말했다.

한편, 코나락 사원 인근의 모리예술제는 2011년 시작됐다. 인도 오디샤(Odissa) 주 정부의 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수만명이 이를 즐기고 있다.

노덕현 기자

인도관광청, 불교 인프라 개발 돌입

인도관광청은 최근 성지순례 루트 개발인 '루다 스탄 다산(Rad 100 crore) 구상'을 통해 네팔과 스리랑카 등을 연결하는 불교 인프라 개발에 나섰다. 이 인프라는 보드가야, 바이샬리, 라자기르, 쿠시나가르, 사르나트 및 스라바스티와 카필라바스투, 룸비니 등을 포함한다.

스탄 다산은 올해 9월 27일 세계 관광의 날에 출범한 인도 정부의 'Incredible India 2.0 캠페인' 연관돼 있다. 인도 문화관광부 장관인 마헤시 샤르마(Mahesh Sharma)는 "불교가 인도에서 유래했으며 8 개의 주요 불교 순례지 중 7개가 인도에 있다. 하지만 인도는 세계에서 불교 순례자의 1% 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마헤시 샤르마 장관은 "인도네시아와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불교와 관련한 관광객들로 붐비고 인도는 인프라와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 사업을 위해 세계은행이 1,800억 루피를 승인했다. 인도는 독창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에 있다"고 말했다. 마헤시 장관은 "불교 영감을 받은 지속 가능한 경제(BISE)라고 부를 수있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실제로 YES Bank에서 중앙 및 주 정부의 정부와 불교 회로 개발에 종사하는 민간인들과 함께 BISE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태국, 불교식 반려동물 장례 '인기'

사원과 연계해 서비스 제공…"불교 포교에 긍정적 효과"



태국 내 반려동물의 장례식은 태국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불교와 샤머니즘이 겹치면서 더욱 유행하고 있다. 불교적 믿음에 의해 공덕을 쌓는 것은 고통이 없는 열반에 이른다고 해 반려동물 주인들이 선호하고 있다. 일부 주인들은 원숭이들이 이러한 장례식을 통해 다음 생에서는 한 차원 높은 존재로 태어나기를 기원한다.

태국 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장례를 불교식으로 치르는 장례문화가 호황을 맞고 있다.

방콕포스트, AFP 등 외신은 태국 내 반려동물의 불교식 장례 문화에 대해 보도했다.

한 스님이 방콕의 사원에서 분홍색 꽃으로 장식된 관에 안장된 시추견을 위해 염불을 하는 동안 견주(犬主)인 핌라차야씨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다. 핌라차야씨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올해로 6살이 된 강아지를 보내며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달러(시추의 이름)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잘 가라고 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핌라차야씨가 지불한 비용은 600달러 정도이다.

태국 내에서는 핌라차야씨 같은 불교식 애완동물 장례식이 호황을 맞고 있다. 개, 고양이 뿐 아니라 심지어 도마뱀, 뱀, 원숭이까지 다양하다. 대회에서 우승한 유명한 싸움닭도 관에 안치되기도 한다. 장례비용은 600달러에서 많게는 10만 바트(한화 약 340만원)에 이르기도 한다.

태국의 반려동물 장례식은 태국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불교와 샤머니즘이 겹치면서 더욱 유행하고 있다. 불교적 믿음에 의해 공덕을 쌓는 것은 고통이 없는 열반에 이른다고 해 반려동물 주인들이 선호하고 있다. 일부 주인들은 원숭이들이 이러한 장례식을 통해 다음 생에서는 한 차원 높은 존재로 태어나기를 기원한다.

핌라차야씨는 "달러도 이번 생에서 사원에 감으로써 공덕을 쌓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례를 치러서라도 그녀가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추세는 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일본 또한 반려동물을 위한 사치스러운 작별을 좋아한다.

하지만 방콕에서의 유행은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방콕 내 대부분의 사찰은 반려동물을 위한 염불, 화장, 불교의식 등을 매일 치르고 있다.

반려동물의 장례식을 치르거나 매장할 도심의 공간이 여의치 않자 장례업자들은 사원들과 연계하기도 한다.

티라왓 새한 씨는 4년 전 반려동물 가게를 운영하다 장례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그는 '태국 반려동물 장례'를 처음 도입했으며, 사원과 연계해 매달 200건 이상의 반려동물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

태국 일부 불교계나 사원에서는 불교식 반려동물 장례에 대해선 아직까지 비판적인 시선은 없다고 한다.

프라크루삼폴 스님은 "반려동물 장례를 통해 '모든 것은 순간'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고, 종교에 무관심했던 사람도 반려견 장례를 통해 사원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긍정적"이라며 "장례를 통해 주인들에게도 가장 고통스런 상황에서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태국 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장례를 불교식으로 치르는 장례문화가 호황을 맞고 있다. 사진출처=dailysabah.com

이나은 기자

방콕경찰, 승풍 실추 해결 나서



방콕 중앙 수사부는 성문제, 사기, 정치문제에 연루된 수도사들에 대해 전국적 단속을 시작한다.〈사진〉

'더스타'는 12월 4일 "태국이 불량한 수도승을 진압한다"고 보도했다. 경찰청장 티터라 농안피탁(Thitiraj Nhongharnpitak)은 "현재 95명의 스님들이 불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또한 농안피탁은 "현재 검거된 스님들은 CSD가 조사중인 첫 번째 그룹이며 계속해서 수사망을 넓힐 것이다. 만약 스님들이 계율을 어기고 불교의 이미지에 흠집을 낸다면 그 누구도 단속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검거된 스님들 중 35명의 스님들은 성 문제에 연루돼 있으며 24명의 스님들은 "초자연적 힘을 지녔다"고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CIB'는 이번 단속이 2주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진형 기자



공주대학교, 금강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대학 및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등록대학

한국불교교육대학 대학원 천불사
COLLEGE AND GRADUATE SCHOOL OF KOREAN BUDDHIST EDUCATION CHEON BOOL SA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338-16 흑성산
TEL : (041) 557-3223 FAX : (041)556-1388

조실 :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문학박사 인환 대종사 주지겸학장 : 철학박사 석 인 경 (太山-印鏡)합장

시마

격조 높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안내문

1. 무속의 영점, 신점이 아닙니다.
2. 주역, 타로, 사주, 점성술 등의 역술도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3. 순수하게 영적인 에너지만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는 기묘한 점술입니다.
4. 고도의 집중력과 강력한 에너지장을 떠올려서 보고 듣기에 적중률이 뛰어납니다.
5. 본인 점술의 최대 장점은 질문자가 물었을 때 두리뭉실하지 않고 깊이 있고 다양하며 상세하게 답변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 담 료 : 10분 이내 7만원, 20분 이내 14만원 .....
10분 마다 7만원씩 분할결제 가능 (선불제)

상담가능시간 : 오후 1시 이후

연 락 처 : 010-9546-9797

시마(XIMA) 배상

마음-훈련

노먼 피셔(젠 프리스트)

〈2〉 공감과 자비심을 훈련하라
– 첫 번째 : 절대적 자비심

마음 훈련 첫 단추 '보리심'

우리가 얼마 동안 삶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의 상황이 엄중함을 깨달았으며 참선 수련이나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영적 수련법을 익혔다고 가정하면, 이제 마음 훈련의 두 번째 요점인 공감과 자비심 훈련으로 넘어갈 준비가 된 셈이다.

이 심오하고 감동적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주의의 말을 해야겠다. 이 부분은 음미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불교의 가장 심오한 -공(空)-가르침에 대한 사색에까지 가 닿으며, 서양 사상에서의 신학, 그중에서도 신의 본성에 대한 성찰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기에 확실히 모두의 입맛에 맞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마음 훈련은 매우 실용적이고 실제적이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들과는 달리) 이 부분은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법에 대해 그렇게 구체적이고 유용한 조건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대신에 여기서는 말 그대로 "세계란 무엇인가? 자아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이는 형이상학적 질문들을 수반한다.

감정이입과 자비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려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자.

영어에는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기술하는 단어가 적어도 세 가지 있다. 감정이입(empathy)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다. 그러려면 우리는 자아에 매몰되어 타인의 경험에 무감각해지지 않아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 대부분은 미처 깨닫지 못한 채로 다음의 오래된 농담을 실천하고 있다. "그래, 내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 이제 나에 대한 너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타인의 감정이 우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상상하는 한에서만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녀가 날 좋아할까? 내가 방금 말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화났나? 이런 것은 전혀 감정이입이 아니다. 진정한 감정이입을 하려면, 잠시나마 자기 관심사를 제쳐 놓고 자신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감정 이입이 반드시 배려를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사람들의 느낌을 감지하는 데 능하면서 그들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는 데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소시오패스와 사기꾼들은 감정이입을 매우 잘하며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비상하다. 한편 공감(sympathy)은 감정이입에 배려를 더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때 우리는 그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길 바란다. 그들이 속상하거나 불행하길 바라지 않으며, 실제로 그들을 배려한다. 자비(compassiom)는 특히 타인이 고통 받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공감이다. 비록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가능할 때는 기꺼이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같이 있어 주는 것뿐이라도 말이다.

마음 훈련의 두 번째 요점에서 제시하는 훈련은 이 세 가지 능력-감정이입, 공감, 자비-을 모두 함양하는 일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이 훈련을 일컬어 '보리심'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영적 깨침을 향한 충동 혹은 열망을 말한다. 영적 깨침이란 바로 자신의 협소한 개체적 감각을 떨쳐 버리는 것이다. 즉 이는 본질적으로 심오하게 이타적인 것이다. 따라서 보리심을 닦는 것은 타인에 대한 진실하고 진정한 배려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집착하지도 오만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니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정확한 지혜에 의거해서 말이다. 일본 선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한 콧구멍 사회에 속해 있다."



감정이입 · 공감 · 자비는
보리심 일으키는 열망
고통 간혔던 벽 부수고
기쁨의 원천 거듭나자

진정한 이타심은 타인의 편익을 위한 자기희생이 아니며, 선해야 하고 친절해야 한다는 죄의식에서 우러나온 감정도 아니다. 이는 나와 타인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그저 겉보기에만 다를 뿐이라는 깊은 인식이다. 그러므로 보리심의 활동과 감정이 미치는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

절대적 보리심을 닦자

이 중요한 두 번째 요점에는 아홉 개의 마음 훈련 경구가 있다. 이 아홉 가지는 절대적 보리심과 상대적 보리심의 두 범주로 나뉜다.

절대적 보리심은 절대적 사랑, 그 어떤 감정보다도 그 어떤 대상보다도 큰, 너무나 커서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따로 없는(둘은 한 절대적 사랑의 힘으로 결합된다) 사랑이다. 사랑 그 자체로서 생의 총체적 조망에 도달하는 사랑이다. 이런 사랑 안에는 상실이 있을 수 없다. 이 사랑은 너무나 커서 모든 것을-심지어 무(無)까지-포괄하여 그 어떤 것도 버려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절대적 보리심은 비었고 완벽하고 광대하고 광활하고 기쁨에 찬, 존재 그 자체의 본성이다.

이처럼 지고한 상태, 지고한 시각과 대조적으로, 상대적 보리심에는 우리의 노력이 다소간 수반된다. 상대적 보리심은 내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실제로 누군가 사랑하는 일을 해나가는 때다. 상대적 보리심은 내가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어떻게든 도우려 할 때, 격려, 지원, 식량, 의복, 더 나은 법률, 개선된 정치 체계 등을 제공하려 노력하는 때다. 상대적 보리심은 끝이 없는 사업으로, 우리는 그중 한 작은 부분에 성공했을 때 행복해 하지만 비현실적인 기대는 품지 않는다.

절대적 보리심과 상대적 보리심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에게 의존한다. 절대적 보리심이 없다면 상대적 보리심이 강제로 부과될 것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온갖 보살핌과 도움에 결국 분노하고 지쳐버릴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 보리심이 없다면, 절대적 보리심은 일종의 거대한 추상이, 아무 내용 없이 크고 높이 솟은 종교적 관념이 되어 버린다.

절대적 보리심을 닦는 첫 번째 경구는 다음과 같다. '모든 것을 꿈으로 여기라.'

이 경구가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려 의도하는 효과는 바로 안도감이다. 악몽에서 깨어나, 방금 전까지 내가 처해 있다고 믿었던 무시무시한 상황이 실은 그저 꿈이었음을 깨닫고 온몸의 긴장이 일시에 풀렸을 때 느끼는 바로 그 안도감이다. 상심하거나 화가 나 있음을 알았을 때, 오늘 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어떤 이유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꿈으로 여기라는 경구를 기억할 수 있으며, 그러면 마음은 좀 더 각성된 상태로 전환할 것이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 모든 문제는, 아무리 힘들든, 심지어 그것이 전개되는 와중에도, 이미 풀려 있다.

'의식의 본질을 탐구하라.' 꿈속에서처럼 모든 것이 지나치는 기억에 불과하며 그 어느 것도 붙잡을 수 없다면, 이런 의문이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이는 누구인가? 그것을 인식하는 이는 누구인가? 우리의 언어에는 의식(consciousness)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아무도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다. 이는 우리의 혼란을 덮어서 가리는 단어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를 훈련하는 것이 이 경구의 요지다.

'평화에 집착하지 마라.' 앞의 두 경구를 잊으라는 뜻에 가깝다. 요지는, 만물의 텅 비고 꿈같은 본성에 들뜨지 말라는 것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개념화하여 중요한 뭔가로, 하나의 생각으로 만들었으므로, 곧 그 생각이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도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멋진 사실인가에 대해서도 잊어라. 그것은 또 다른 변명일 뿐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열어 놓고 쉬라.' 이 일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단순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냥 멈추어 한 차례, 혹은 두세 차례 숨을 쉬어라. 이는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다. 한 번 숨을 쉬고 열린 마음으로 돌아가라.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을 느끼면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인식하고, 그것을 편안하게, 부드럽게 내려놓아라. 현재의 나 자신에게 신물이 나더라도, 불안한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는 불안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더라도, 바로 이 순간만큼은 호흡을 느끼고 몸을 느끼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함을 느낄 수 있다.

'명상 이후에도 환상의 아이가 되어라.' 이 경구는 '명상 이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는 격식을 갖춘 명상에 대한 지침인 앞의 경우와 대조를 이룬다. 이때 우리는 방석에 앉아 자신의 몸과 호흡에 집중한다. 일상의 걱정을 내려놓고, 긴장을 풀고, 열린 마음속에서 쉰다. 반면 이 경구는, 참선 방석에 앉았을 때나 휴식의 순간뿐 아니라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일상과 확연히 다른 삶의 감각을 가리키는-앞의 경구를 수련해야 함을 일깨운다.

여기서 환상의 아이가 되라는 문구가 중요하다. 영적 수행에는 어느 정도의 아이 같은 순수함이 요구된다. 영혼의 급진적 변모가 가능함을, 사랑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음을, 이 미친 세상에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믿는 것보다 더-비록 유치하진 않더라도-천진한 일이 어디 있으랴?

이상이 절대적 보리심의 다섯 개 경구다. 이에 대한 수행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채 그토록 오랫동안 세워 놓았던, 그토록 큰 고통과 슬픔과 고독을 초래해 온 벽을 부수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확장하고 평탄하게 만든다. 이 벽들은 타인에게도 고통을 초래해 왔다. 우리 하나하나는 자신과 주변의 모두를 위한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사랑은 되돌아올 것이며, 이는 언제나 나를 치유할 것이다. 이 경구들을 수행함으로써 이 점을 알았다면, 이제 상대적 보리심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글은 〈마음-훈련 미친 세상에서 평온하게 살기 위한 59가지 매뉴얼〉(도서출판 팡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NEW 임해 밭 죽순 식물성 탈백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임해 밭 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임해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 임해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 임해]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2자
◀ 대북
▶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가야사 도량 약사여래 부처님을 친견하세요
가야사 약사여래 부처님 도량에 지극지성으로 불공드리시면서 소원하시고, 백병의 난치병과 연관된 차를 드세요.
성태산 성수 부처님 원력으로 가피가 바로 옵니다.
가야사 도량에 오시면 언제라도 숙박이 가능하며 불공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각종 종양 차법
• 위 암 : 미후도 괴전우 요자 옴지 차
• 폐 암 : 인동화 천문동 백합 길경 차
• 신장암 : 목통 옴지 토사자 불수 차
• 간 암 : 인진 제조 다슬기 연교 달래 차
• 유 암 : 산자고 조각 화고초 차
• 뇌 암 : 불환금 강황 옴지 불수 차
• 장 암 : 괴화 지실 루로 옴지 차 가자 차
• 직장암 : 괴각자 지실 괴전우 가자 차
• 식도암 : 권백 차, 불수 차
• 혈액암 : 불환금 연교 루로 옴지 차
• 자궁암 :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옴지 차, 불수 차
• 당뇨합병 : 생지황 옥발 여주 불환금 불수 차
• 피 부 : 연교 조각자 옴지 차
• 조갑암 : 권백 차, 불수 차
• 통 풍 : 요자 옴지 불수 차
문의 전화 : ☎ 041-943-5505
도량 주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608-1번지 가야사



대행 스님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녹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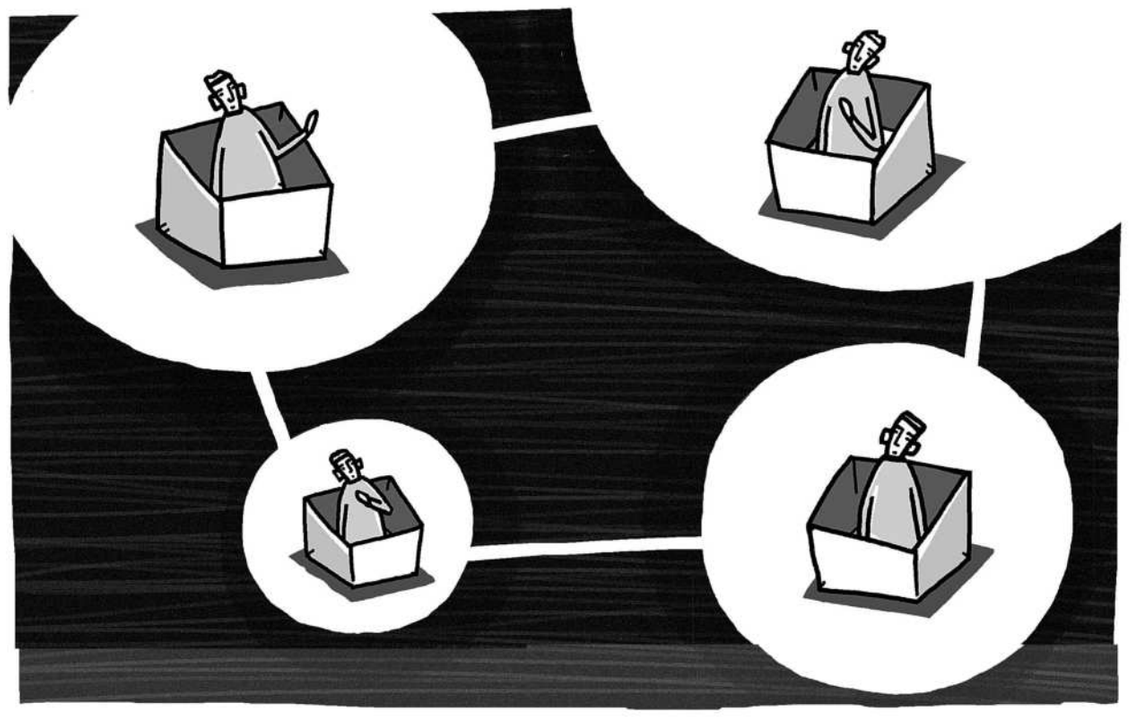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또 한자리를 하게 됐군요. 여러분이 마음먹는 대로 같이 있다면 같이 있는 거고 혼자 있다면 혼자 있는 겁니다. 그 뜻이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그렇게 묘법이랍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연화장불(蓮華藏佛)" 이러면은 아주 최고의 한울을 꿰어 들어서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주인이라는 뜻도 되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하계에 또 더 큰 은하계도 있고 또 더 큰 은하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소속된 은하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은하계 속에 있는 우리 생명력들은 사분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질척한 데서 사는 거나 물에서 사는 거나 한 부분으로 친다면, 또 나무들 풀들을 한 부분으로 치고, 날아다니는 거 또 땅을 딛고 다니는 거, 이렇게 네 분류로 치는 이 속에서 알로 낳는 거, 태로 낳는 거, 질척한 데서 낳는 거, 화(化)해서 낳는 네 가지가 소속돼 있습니다.

그 소속되어 있는 생명이 한데 합쳐진 마음, 즉 공존하는 그 주장자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름해서 사왕천(四王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이름을 지어서 이름이지, 총합해서 지도를 하는 자가 사왕천이라고 이름해서 붙인 겁니다. 이름해서 붙였다고 그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오갈 수 있고 광력이나 전력, 자력, 여러 가지 힘이 서로 서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왕천에서도 벗어난다면 원심력을 얻는다." 지난번에도 이런 얘길 했을 겁니다. 원심력을 얻는다면 그 원심력은 어떡해서 원심력이 될까? 그리고 사무사유(四無四有)라는 그 뜻은 뭐냐. 죽은 사람들의 마음, 산 사람들의 마음이 둘이 아닌 그런 뜻을 가지고 사무 사유 한데 합쳐서,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한마음의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無)의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천차만별로 돼 있는 영령들, 그 처절한 영령의 참혹한 일들, 이름해서 부를 수 없는 일들, 또 산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참혹하고 처절한 영령들, 즉 산사람 한테 침입해서 악이면 악, 선이면 선 그렇게 침입을 해서 인연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그래서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한다는 뜻이 거기에 있고, 팔자 운명이라는 것도 거기에서 이름이 속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팔자 속, 운명 속, 업보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야만이 사왕천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왕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얻는 것은 악이나 선이나 다 놓는 것뿐인데 여러분은 "나는 놓을 수 없다.",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면 "왜 어려우냐?" 나는 그러죠. 그게 아주 아리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렵다고들 그러지만 나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자유스럽습니다. 지금도 자유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제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가고 오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만나고, 스스로 교차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자유자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끄달리지 말고 모든 것이 바로 내 근본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전부 여러분의 한마음이 근본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이, 즉 말하자면 오고 감이 없는 빛보다 더 빠른 누진통(漏盡通)으로 하여 천체무전통신기처럼 광력이나 전력에 종합된 그 에너지는 바로 저 은하계로 통하게 됩니다. 은하계의 별들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직속으로. 그러기 때문에 한마음의 뜻을, 무(無)의 세계의 한마음의 뜻을 알려면 내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는 상봉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안테나는 근본의 전체 통신을 할 수 있고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거와 같죠. 즉 말하자면 심안이 밝아진다 하는 뜻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고 감도 없는 육신통, 이것이 천백(千百)으로 화(化)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이 의심치를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믿는 사람이 이거를 해서 안 되는데….' 꼭 후회가 들어가고 반성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데 정말 나를 깨닫는 그 길을 택하려면 후회도 반성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없는 거다 하고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은 내 마음 근본 주인공 속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즉 직속으로 같이 상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 각각 논다면 이거는 정말이지 여러분은 자기 몸 하나 추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거를 했든지 뒤돌아보지 마세요. 잘못됐어도 그것은 잘못되게 한 장본인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 되놓는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정돈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냥 참행이요, 그것이 참선이요, 행선(行禪)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왜 잘 써야 하느냐. 여러분이 한번 잘못 쓰면 이 몸뚱이 속에 업식으로 뭉쳐집니다. 저지른 대로 업식이 돼서 내 몸뚱이에 뭉쳐 있으니 거기에 속지 말고, 잘못되는 것도 업식으로 뭉쳐져 있는 인과로 인해서 나오는 거니까 모든 걸 놔라. 맡겨 놔라.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녹일 수밖엔 없다.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는 없거든. 어떤 때 보면은 여러분이 재밌게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있는데 시커먼 게 거기 죽들 앉아 있어도 여러분은 눈이 멀어서 못 봐. 잠시 잠깐 웃고 즐길 거라면 차라리 그게 뭡니까? 그게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의 그 업식으로 인해서, 업식을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바깥에서 오는 거,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찰나찰나 닥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우리가 '구정토(九淨土)'라고 말을 합니다.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에 소속되어 있는 구정토다 이 말이죠. 지금 은하계가 있으면 은하계의 별들을 보호하고 있는 태양계가 있습니다. 다 같이 그 태양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사생(四生)입니다. 태양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자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어도 안 되고 바람이 없어도 안 됩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도 생명이 있고 흙도 생명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도 안 되고 흙이 없어도 안 되는 이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흙과 물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태양과 바람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죠. 태양이 위로는 근본 별성을 보호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들을 자라게끔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정토는 어떻게 해서 구정토라고 그러느냐 하면 은하계에 있는 혹성들만 해도 이거는 삼심(三心)에…. "삼심!" 이렇게 하는 건 개별적인 것이 되지마는, "삼세심(三世心)" 하는 것은 구정토가 다 들어갑니다. 혹성이 다 포함되죠. 혹성 외에 있는 것은 구정토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 그 구정토가 소속돼 있는 건 은하계에 소속돼 있는 거죠. 그건 왜냐. 힘은 각자 강하지마는 우리 생명체들은 전부 별성에 있으니깐 말입니다. 그래서 "별이 떨어진다. 별이 떨어지면 이승에서 사람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잘못된 마음들이 한데 모인다면, 지금도 한데 모여서 이렇게 덩어리가 져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별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여기 세상에서 살면서 깡패나 강도나 도둑, 마적 이런 거나 똑같은 얘깁니다. 또 이걸 비교해서 한번 말하죠. 여간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공직에 있어서 사람을 너무 못살게 자꾸 일을 저지르니까 추방을 시켜서 내쫓았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앙심을 먹고서는 나쁜 놈들을 전부 모으는 거야. 오 년이 되든 십 년이 되든 모아 가지고서는 단결이 돼 가지고는 사람을 해치는 거야.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마음들도 악이 있고 선이 있다면 악이 그렇게 선을 해

☞ A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무의 세계의 한마음의 뜻을 알려면 내 안테나를 세워야!

☞ A17면에서 계속

치기도 해. 악과 선을 다 놓은 상태에는 하나의 주장자가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있는데, 그 주장자 밑에서 악과 선을 다루고 일하는 그 주모자를 해치게 되면은 혼란이 오거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령들의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면 소소한 우리 백성들이 손해를 보는가 하면, 정말 이 별성에서 싸움박질들이 난다면 이거는 무슨 조그마한 하나만 잘못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피해가 있단 말이야. 마음세계에서 싸움이 나면 어떤 때는 파산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라죽기도 하고, 굶어죽기도 하고, 화산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혼란을 정돈하고 잘 이끌어 나가려면 우리 한국에서도 대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으로써 경제난을 비롯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 혹성 하나에 소관된 문제입니다. 세계를 세계라고 하지만 구정토에서 요거 하나 소속되어 있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정토에 소속돼 있는 거나 똑같고 구정토는 또 은하계에 소속돼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마음은 직접 통합니다, 이 불성 자체가.

옛날 얘기 한마디 하죠. 옛날뿐만 아니라 옛날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잘 파악해서 들으세요. 한 사람이 훈련대장으로서 권위가 당당하고 무관으로서는 조금도 손색이 없어 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권력은 있으나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고 너무 경솔하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 삼족을 멸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도 하고 부모에게도 효도가 없어, 또 형제에게도 아름다운 마음이 없고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지를 못했어. 그랬기 때문에 남한테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어느 날은 말을 타고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스님 한 분이 절 지을 돈, 시줏돈을 짊어지고는 끙끙거리며 올라가는데 도둑들이 들이덤벼서는 스님을 죽이고 돈을 뺏으려고 하니까, 그걸 물리치고 스님도 살리고 돈도 빼앗아서 그 스님에게 다시 주었단 말이야. 그러고는 후미진 데 혼자 다니시지 말라며 잘 보좌해서 올려 보내곤 말을 타고 다시 내려왔단 말이야. 그래 그 스님은 무사히 절에 도착해서는 시줏돈으로 절을 잘 지었지. 자기 생전에는 그거 한 가지밖엔 잘한 게 없어, 자기가 나중에 늙어 가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모든 게 자기한테 조건이 불리해. 그런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이 어른이 죽었단 말이야.

죽었는데 독사지옥으로 떨어졌어. 독사지옥으로 떨어졌어도 그냥이나 놔뒀으면 좋겠는데 그때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산돼지들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하는 소리, 이 소릴 잘 들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죽였다고 해서 원망을 안 했다면,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 그렇고, 자기가 지은 인연이라 그렇고,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렸으면 산돼지로도 되지 않았을 텐데, 이건 앙심을 먹곤 잔뜩 이를 가니까 산돼지밖에 될 수가 없거든.

한쪽은 산돼지가 됐고 한쪽은 독사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아, 독사지옥으로 떨어져서 오백 년을 지내도 독사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거든. 그냥 그 소굴 속으로 들어가면 그거 다 업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촉각이나 시각으로나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심안의 눈이 있어야 보지. 그러니 이게 독사뱀이 둘이 사랑을 하는지 사람이 사랑을 하는지 몰라. 자기 모습이 흉악한지 자기한테 독이 있는지 그것도 몰라. 그러고선 그 속에서 또 낳게 되고, 죽으면 또 뱀이 되고, 잡아먹히고, 또 쫓기고 밟혀 죽고 찢겨 죽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자식이 찢겨 죽게 되면 또 어미나 아비가 그냥 독을 품고선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자식은 죽고, 이렇게 애를 말리면서 살기를 오백 년을 살았다 이거야.

오백 년을 살다 보니까 하루는 어느 결에 새끼들을 오물조물 낳아 놓고는 다복하게 음식을 먹는데 웬걸, 산돼지들이 약초 뿌리를 파먹느라고 그 땅을 막 파헤치는 동안에 뱀 소굴이 모두 벌겨졌단 말이야. 그게 원수로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를 갈면서 '너 잘 만났다' 이럭하고선 전부 죽였단 말이야. 전부 죽고 나서 독사, 즉 남편이 말이야, 자식, 부인 다 죽고 자기도 죽어서 애처롭게 떠억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기가 막혀! 영이 돼서 보니까 말이야.

살 길이 없나 하고 휘적휘적 보다가 이제는 살모사 굴로 들어갔다고. 그게 또 우연히가 아니야. 자기가 한 것대로 길을 받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이 안에서 다 업식으로 만나서 업보로, 인과로 됐으니까 자기를 끌고 간다는 게 나쁜 데로만 끌고 가는 거지. 그래 거기에서 살모사로 태어나서 자라 가지고 장가를 들었단 말이야. 장가를 들었는데, 살모사는 새끼를 낳으면 아비는 능구렁이가 되고, 살모사 새끼들은 어미를 잡아먹어야 구렁이로서의 모습을 바꾼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이 내 말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고것만 잘 들어요, 인과에 대해서.

그래서 살모사 속에 들어가서는 떠억 장가를 들어서 자식들을 낳아 놓고 보니 아주 재롱도 잘 부리고 귀엽고 좋거든. 그런데 어느 날 오몰조몰한 자기 새끼들이 제 어미를 잡아먹는단 말이야. 먹고 자라. 이 노릇을 어떡합니까? 자기는 그런 걸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는 거야. 그래 가만히 보니 그 어미가 이 목줄기의 독을 팍 없애면서, 요즘으로 치면 그게 마취나 한가지지. 그 독을 딱 빼 버리고 쫙 드러누워 있으니까 아, 그냥 새끼들이 그저 너도나도 뜯어 먹고는 또 자라요. 그렇게 뜯어 먹는 그 광경이라니…. 뼈다귀만 남겨 놓고 다 뜯어먹고는 뼈다귀는 뼈다귀대로 개미떼들이 또 와서 뜯어 먹고 가져가는 그 광경! 그거를 다 보고 난 뒤에야 이제 그게 능구렁이가 된대요.

그걸 다 보고 난 남편은 너무 허무해.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슬슬 나왔어요. 나와서 어느 풀섶에 처억 기대서 강을 내려다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소리를 그 스님이 들었어요. 오백 년이 지나고 벌써 십만 년이 지났다는 얘기야. 십만 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뱀 생활을 한 거야. 그러니깐 그 소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 이거 거짓말로 알아들어서는 안 돼요. 진짜 지금도 그래요. 뱀뿐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쥐 새끼로 들어갔다면 쥐 새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은 아주 쉬울 것 같지만 쥐 새끼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스님이 도솔천(兜率天)에서 열반을 하시고 도를 통하시고서 저 도솔천의 연화장불(蓮華藏佛)이 돼 가지곤 터억 보니까 아, 그 뱀에 연관이 돼 있거든. 우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때 살려 준 그 고마움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 보니깐 아하, 이거 그때의 인연이 이제서야 참회를 하고 허무감을 느끼고 생에 대해서 후회를 하니 참….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제 들린 거지. 그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얼른 들렸을 텐데 그전엔 아주 좋기만 하고 그게 사는 걸로만 알았으니까 뉘우치지 않는데 스님한테 들릴 리가 있나요. 그래서 그 소릴 듣고 옥황상제한테 한 찰나에 연락을 해서 참, 그 인연을 제도하러 내려갔단 말이야.

그건 그렇고, 이 구렁이가 앉아서 울고 있는데 말이야, 훈련대장으로 있을 때에 그 밑에서 사람을 끌어오고 죽이고 재산 뺏고 그러던 그것이 두꺼비가 돼 가지고선 눈물을 흘리면서 자꾸 뱀 앞에 와서 약을 올리는 거야. 그런데 이 뱀은 그 사연을 몰라. 두꺼비가 계속 뱀을 놀리고 있는데 어느 스님이 터덜터덜 오시거든. 오시니까 거기서 터억 소리가 나는 거라, 이 뱀이 그 소리를 들어, 인제. 두꺼비도 듣고 뱀도 들어.

"너희 둘 잘 만났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만난 것도 과거로부터의 인연이니라. 너희들은 악행을 너무 저질러서 만남도 이러한 것이니라. 저 두꺼비도 본심은 착한데 너의 말을 듣고 일을 저질렀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니까 네놈이 더 잘못했어. 너는 나를 한 번 살려 준 것밖에는 선행한 게 없어.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이 두꺼비…." 그래 그런 설법을 쭈욱 했어. 그러니까 그만 뱀이 우는 거라. 울면서 두꺼비한테 하는 소리야. "만약에 내가 너를 잡아먹으면 내 몸은 그냥 버리고 나는 빠져나갈 수 있지만, 너는 내 몸에 의해서 몸이 두꺼비로 다 화(化)하게 되니 너는 두꺼비를 또 벗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러지 말라." 하니까, 그 스님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을 했지, 뱀더러.

"네가 저지른 거니까 빨리 두꺼비를 삼켜라. 그러면 내가 인도를 할 테니 요 들판만 내려가면 암자가 있는데 거기 큰 솥 걸어 놓은 데 그 아궁이에 오늘 밤에 들어가 있으면 내일 아침에는 거기다가 불을 지필 테니 절대로 뜨겁단 말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몽땅 타 없애라. 던져라. 네 몸뚱이를 하나 던지면 두꺼비도 살고 너도 사느니라. 그래서 인도환생을 하되 그때는 인간으로 태어나 나쁘게 살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라. 십만 년 만에 인간으로 도로 갖다 놨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하기에 달렸다. 나는 그 은혜로 인해서 절을 짓고 내 목숨이 살고, 내 목숨이 살았기에 도를 이루었고, 도를 이루었기에 네 울음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러니 그렇게 알고 몸을 던지는 것이 네가 빠져나갈 길이니라." 그러거든.

그래서 뱀은 두꺼비를 냉큼 집어 삼키고서는 스님을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서는 다른 사람 몰래 아궁이 속으로 들어갔지.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서 눈을 꿈벅꿈벅하고는 가만히 있으니까 몸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단 말이야. 두꺼비는 독이 있어서 먹으면 그냥 죽어서 그게 뼈 마디마디마다, 즉 말하자면 썩는 대로 두꺼비가 돼요. 그 독이 퍼지니깐 얼마나 아픈지 비꼬곤 그냥 있어도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다음 날 아침 어떤 스님이 와서 불을 지피거든. 불을 지피니 얼마나 죽겠느냔 말이야. 그러나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인도환생을 못한다는 말에 그냥 꾹 참고 그 고비를 넘겨서 인도환생을 했대요. 그 뒤는 뭐, 또 자기 할 탓이지만 말이야, 도로 갖다 놨으니.

그래서 우리의 이 몸속이라는 자체가, '천상 인간도 벗어나야 된다' 하는 소리는 뭐냐 하면은 사왕천(四王天)의 천상 인간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벗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선이라고 해서 "선은 짓되 악은 놔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선으로서 선을 짓게 되면은 선으로 가다가 악을 또 지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미(迷)해질 수가 있고 길지가 못해. 또 한 점은 선과 악은 다를 수가 없어. 또 한 점은 영령들과 인간 산 사람들과는 또 다를 수가 없어.

그러니 모두 놔라 이거예요. 모두 모두 맡겨 놔라 이거야. 놓으라니까 무슨 놓을 게 있어서 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믿고 거기에서밖에는 해결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감사함을 주지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서 모두 품 안으로 안을 수 없고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없다, 거기밖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은 거기밖에 없다 하고 믿고 나가라 이거지. 그것이 놓는 거라고.

그것이 놓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놓고 두 번 놓고 자꾸자꾸 놓아 들어가면 업보로 뭉쳐진 이 중생들이 다 그냥 보살로 화해 버려.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니 좋습니까. 거기에서 호법신(護法神)도 생기고, 수호신(守護神)도 생기고, 화신(化身)도 생기고, 법신(法身)도 생기고 모두가 수효가 없이 생기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냐고요. 가정이 화목해지고 하는 일마다 귀인이 생기고 발이 넓어지고 속의 모든 두려움이 없어져 떳떳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88년 12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거를 했든지 뒤돌아보지 마세요.
잘못됐어도 그것은 잘못되게 한 장본인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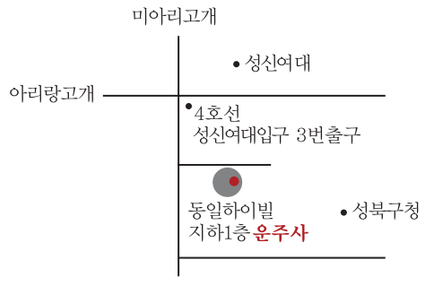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1층 Tel. 02-3672-7181



| 불자 세상보기 |

내 옆 부처님께 귀 기울이자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지난해 사자성어 '君主民水' 처럼
민심 들끓었고 정권이 바뀌었다
배 바로 띄웠으니 무얼 해야하나

한 해를 돌아보며 모두 바쁘지만
잠깐 내려놓았던 인연을 되새기자

善緣도 惡緣도 모두 나의 부처님
그들에 귀 기울여야 세상 바뀐다
세상 변화했듯이 자기 삶도 변해야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성큼, 다음 해의 한 자락으로 숨 가쁘게 걸음을 옮기는 모양새의, 벌써 12월이다. 아직은 다 지나지 않은 올해, 지난해 12월에 선정되었던 '올해의 사자성어'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군주는 배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또 능히 배를 뒤집기도 한다.(君主人水, 水能載舟, 亦能覆舟.)"

당 태종의 정치철학을 묶은 책 〈정관정요(貞觀政要)〉의 '정치의 바탕을 논함(論政體)'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당 태종에게 직간(直諫)했던 신하로 유명한 위징이 당 태종의 전횡을 경계할 때 인용했던 고사에서 비롯된 사자성어가 '군주민수(君舟民水)'이기도 하다.

위징이 죽고 난 뒤에 태종은 '자신의 잘못을 경계하는 거울과 같은 사람'이라며 그를 기리는 비석을 세웠다. 하지만 위징이 자신에게 직간했던 글의 초고를 남긴 것을 알고는 크게 화가 나서 비석을 무너뜨렸다. 그 글들에 자신이 잘못했던 행동들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던 까닭이다. 고구려 정벌에 실패하고 난 뒤에 "위징이 살아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에, 후회하고 다시 비석을 세웠다는 일화도 전한다.

어쨌든 지난해 12월에 선정되었던 사자성어를 되새기기라도 하듯, 나라가 한바탕 홍역을 앓았고, 민심을 반영하듯 정부가 바뀌었다. 정부가 바뀌었으니, 바뀐 만큼 우리네 삶도, 우리네 생각도 바뀐 것일까? 혹은 물결을 바꾸어 배를 바로 띄워 두었으니, 선장에게 배를 맡겨놓고 팔짱을 끼고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일까?

30여 년 전인 1986년, 종정이셨던 퇴옹 성철 스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에 발표한 법어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귀여운 부처님들, 허공을 훨훨 나는 활발한 부처님들, 교회에서 찬송하는 경건한 부처님들, 법당에서 염불하는 청수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필자는 이 법어를 이렇게 풀이한다. '남의 나라 부처님도 귀중하고, 내 나라의 부처님도 귀중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내 옆에 계신 부처님은 더욱 소중합니다. 왜 당신 옆에 부처님을 외면하고 또 모른 척하십니까?' 라고 말이다.

연말이 되었다. 한 해를 돌이켜 보느라고 다들 정신없이 바쁠 때다. 고마운 인연도 많고, 눈 부라린 인연도 많을 법하다. 고마운 인연은 고마운 인연이라서 나를 기다려 주지 않고, 눈 부라린 인연은 눈 부라린 인연이라서 나를 외면한다. 고마운 인연이든, 눈 부라린 인연이든, 다들 내 인연이고 내 부처님이다. 남의 곁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고, 내 곁에 있는 부처님이기에, 고맙기도 하고 눈 부라리는 사이이기도 하다. 그때 고마웠던 인연의 부처님께 눈 부라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눈 부라렸던 부처님께 지금은 고마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상을 바꾸는 큰일도 좋고, 나라를 바꾸는 큰일도 좋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일까? 세상을 바꾼 만큼, 나라를 바꾼 만큼 내 삶도 바꾸어 놓을 때다. 연말이라, 연초라서 바쁘다고 외면하지는 말자. 그렇다고 찾아가고 안부 묻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 삶에 한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내 삶의 부처님이신 조그만 인연들이 여전히 내 마음 속에 소중한지, 그 소중함을 잊지 않고 있는지 한번쯤은 하루 저녁쯤은 시간 내어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바꾸어주는 그들 바로 옆의 부처님들을 여전히 소중히 모시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이야기다.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내 옆의 부처님에게 귀 기울일 때까지. 바람이 많이 차다. 나를 아는 모든 부처님이 옷깃을 여미고 다니셨으면 좋겠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부장

나의 부처님과 당신의 하나님

연말이다. 이 시기가 되면 자의든 타의든 보게 되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연예 관련 시상식이다. 그런데 불자들은 시상식을 보기가 꺼려진다. 기독교 연예인들의 '하나님 감사' 퍼레이드 때문이다. 국고와 세금이 지원되는 공공재인 공중파 방송에서 '하나님 감사'를 듣는 것은 가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찾았으면 2014년 한 방송국 시상식에서는 사회자 신동엽 씨가 진행 중 나서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데 절에 다니면 부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또 교회 오빠와 사귄다는 이야긴 들었어도 절 오빠와 만난다는 얘긴 못 들어봤다"며 "오늘 불자가 계시다면 부처님 이야기를 한 번 부탁드리겠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요즘 이야기 하는 '절 오빠, 절 언니'의 대중화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

그럼에도 매년 연예인들의 수상 소감에는 부처님보다는 하나님이 절대 비중을 차지한다.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공중파 방송에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언급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감은 예외였다.

영화 '아이캔스피크'로 제38회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나문희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11월 25일 열린 영화제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안고 이렇게 말하며, 수상 소감을 이어갔다.

"지금 96세이신 친정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문희의 부처님께 감사드린다."

반응은 센세이션 했다. 11월 2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메인 앵커인 손석희 아나운서는 앵커브리핑에서에서 나문희 수상소감을 직접 인용하며 "종교 화합의 멘트"라고 평가했다. 실제 대부분의 평가가 그랬다.

이후 한 연예매체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나문희 씨가 가진 신앙적 겸양이 엿보였다. 그녀는 '종교화합 수상 소감'에 대해 이렇게 털어놨다.

"어머니가 지금 제 나이에 하나님을 믿으셨는데 지금도 신앙을 이어가고 계세요. 지금 그 신앙으로 제가 있을 수 있었고요. 반대로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부처님을 믿게 됐어요. 어머님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제가 좋아하는 부처님께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신만 이야기하면 섭섭하니까요."

어머님을 위해 하나님에게 감사드렸고, 자신이 좋아하는 부처님께도 감사드리고 싶었다는 그녀의 말에서 대승불교의 가르침인 '자리이타(自利利他)'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대승불교에서는 자리(自利)와 이타(利他)를 완전하고 원만하게 수행한 이를 부처라고 한다. 보살이 자리이타의 길을 걸음으로써 성불하게 된다고 본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따라가는 보살의 마음. 어찌보면, 이 보살의 마음이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행동 가치일 것이다. 또한 보살의 마음에서 종교 화합과 상생의 길이 있을 것이다.

연말이다. 곧 예수께서 오신 날이 다가온다. 합장하고 보살의 마음으로 맞이해 본다. '당신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세상이 오길.'

社說

승가교육 포상, 인재불사 활력소 되길

어느 단체, 조직이건 사람이 모여 일을 이루기에, 참 사람을 키워내는 인재양성은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 승단 또한 마찬가지다. 잘 키운 상좌, 재가의 열 자식 안부럽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젊은 스님은 불교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자, 불법 전승의 핵심이다.

이런 중요성에 조계종이 종단 최초로 승가교육 발전에 헌신한 30년 이상의 원로 스님들에게 포상을 시행한다. 승가교육 공로자 포상은 '수행가풍과 승풍진작'을 기치로 건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이 취임 첫 날 포상 추진 계획을 지시해 이뤄졌다. 교육원은 교육 현장에서 도제양성에 매진해 온 스님들을 선별해 비구·비구니 스님 10명을 선정했다.

조계종은 출범한 해인 1962년 12월 제2회 임시중앙종회에서 '교육법'이 제정하며 승가교육의 단초를 마련했다. 하지만 포교대상, 불교언론문화상, 불교출판문화상, 불교사회복지유공자 등으로 포교, 복지, 언론, 출판의 분야 유공자들을 포상하는 반면 조계종 근간을 세우고 현대적인 승가교육과 종단이 있기 까지 공로를 세운 스님들에 대한 포상은 없었다.

이번 승가교육 포상제도 도입은 조계종 3대 지표 중 하나인 도제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순한 교육이나 은사와 상좌 스님간의 유대가 아닌 참 인재를 키워낸다는 점에서 이번 승려교육 공로자 포상은 불교 미래를 밝게하는 불사 중 하나로 평가받을 것이다. 출가자는 수행자의 본분사와 더불어 사회를 정확히 진단하는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적 수행으로 이 시대 사회현상을 읽는 지혜와 중생들을 섭수는 자비심을 갖춘 참 스승들의 활약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세종시의회, 현명한 市政 펼쳐라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지원예산 20억 원에 대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전액 삭감을 결정한 이후 세종시에 종교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예산 삭감의 정확한 이유조차 밝히지 않아 일부 개신교 인사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시의회가 적절치 못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모 시의원은 위원회 회의서 일부 개신교계의 주장을 답습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의무조차 저버렸다. 해당 부지가 확대된 사유나 예산 지원 형평성 등은 이미 많은 자료로 검증된 내용임에도 뚱딴지 같은 주장을 일삼았다. 종교단체에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준 사례와 이후 소유권을 특정 단체가 갖는 사례가 있는지 묻는 몰상식한 질문도 나왔다.

이는 문체부 전화 한 통으로도 확인 가능한 내용이다. 게다가 이미 전국적으로 국비와 시도비 지원을 통해 건립되는 종교계 문화시설은 셀 수 없이 많은 데다 소유권 역시 자부담에 따라 해당 단체에 귀속된다는 내용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해당되는 것이다.

문체부도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한 이후 이미 예산을 배정했고, 이춘희 세종시장 또한 법적·행정적 하자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이제라도 한국불교문화체험관에 대한 억지주장을 펼치는 일부 개신교계 인사들과 지역언론은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포항시의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길 바란다. '불교'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할 게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시정을 살필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달마도족자

십장생이 들어간 16나한도

작품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화백의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합니다.

■ 그 림 만 : 70㎝ × 폭 44㎝ | ■ 판매가 : 각 70,000원

■ 족자포함 : 120㎝ × 폭 54㎝ | ■ 판매가 : 각 100,000원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지입니다. 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연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분 한 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이 영원한 수호신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16나한도



달마도

16나한도를 구입하시면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드립니다.

현불샵 ☎ 02)2004-8213, 010-6701-7709 |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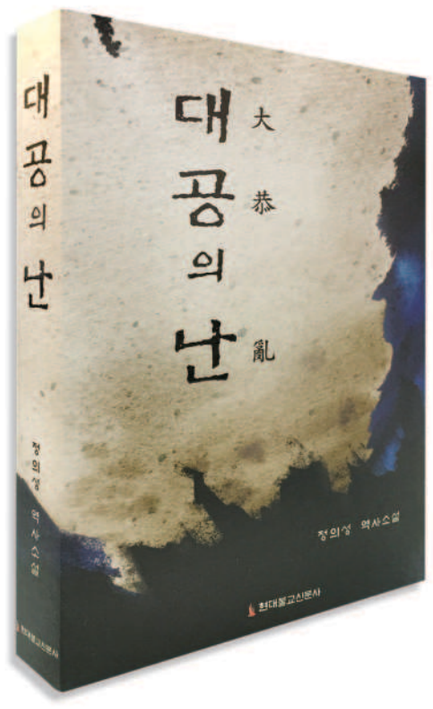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BTN 대표이사 서성우

70여 년 제주불교 일군 살아있는 '유마거사'



그대는 자비보살

조명철 (84 · 혜향문학회 명예회장)

제주교육계 및 불교계의 원로인 조명철(84) 혜향문학회 명예회장은 제주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1948년 4 · 3 당시 중문중학원 1학년으로 입학, 만허 원문상 스님과 사제의 인연을 맺었고,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재학 시 제주대 교수로 재직했던 진원일 스님으로부터 동양문학을 사사했다. 그 인연으로 조 회장은 당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연합체인 제주불교학생연맹 회장을 맡기도 했다. 이어 태고종 제주교구 신도회장, 법화사 신도회장, 제주도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 혜향문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도의 현대불교사 속에서 '조명철' 이라는 이름은 70여 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흐르며 제주불교를 일궈왔다. 일심으로 살아온 그의 삶이다.

불심으로 유년 · 청년기 보내

14세때 만허 원문상 스님과 佛緣

중문중에 원문상 스님 공덕비 조성

무애 스님 불교강론으로 청년기

대학때 진원일 스님 두 번째 스승

격변의 시대 속에서 불심 키워

대학 때 제주 불교학생연맹 회장

진원일 스님 반대로 출가 접어

매일 〈금강경〉 독송하며 잡념 없애

"고해 뒤에 행복의 바다 있어"

해방공간의 지식승이자 교육자로 잘 알려진 만허 원문상(1908~1950년) 스님은 조 회장의 불심의 뿌리가 되어준 큰 스승이다. 서귀포시의 작은 마을인 하원동에서 태어난 원문상 스님은 혜화전문학교(동국대 전신)를 졸업했고, 당시 제주에선 유일한 한글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당시로서는 깨어있는 지식인이었다. 1947년 고향인 하원에 설립한 중문중학교에서 교육자의 길을 걸으며 조 회장과 사제의 인연을 맺게 된다. 14살 무렵의 청소년기에 조 회장의 눈에 비친 원문상 스님은 스님이 아닌 교사였다. 귀엽고 똘똘해 보였던 조 회장을 스님은 애제자로 여겼던 모양이다. 하루는 오전 수업을 마친 후 함께 갈 곳이 있다며 데리고 간 곳이 바로 천년고찰 법화사였다.

"그날이 부처님오신날이었어요. 법화사에 도착하니 만국기 등이 걸려있고, 연등도 많이 달아 놓았더라고요. 사람들로 야단법석이었어요. 선생님이 나를 잠시 기다리라 하고 요사채에 들어가시더니 가사장삼을 입고 나오셨어요. '아! 선생님이 스님이셨구나!'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존경하던 선생님이 스님이셨기에 조 회장도 자연스럽게 불문에 귀의하게 된다.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는 게 일반적인 불연인데, 조 회장의 불연은 스승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스승의 불심은 고스란히 제자에게 전해졌다. 하지만 제주의 근현대사에 가장 큰 고통을 안겼던 '4 · 3' 의 광풍이 몰아칠 무렵이었기에 스승과 더불어 신행생활을 제대로 할 기회가 적었다.

"제주 4 · 3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시작됐어요. 학교가 불타버려 마을 창고 등을 빌려 힘겹게 공부를 했어요. 지역별로 집단활동을 하게 되어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죽창 들고 지서로 나가 보초를 서거나 마을 성담을 돌며 보초서는 분들이 졸지 않도록 하는 일을 했지요. 그러니 제대로 공부할 형편은 전혀 안 됐지요."

조 회장이 중학교 3학년 때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 뒤로 원문상 스님이 보이지 않았다. 예비검속으로 잡혀갔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다. 학교 경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원문상 스님의 검속은 새로 부임한 모 교감의 고발에 의한 것이었다는 소문도 돌았다.

1950년 7월 서귀포경찰서 '공무원 구속자 명부' 에 의하면 원문상 스님은 '좌익좌상 극렬분자' 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투철한 민족주의자로 지역민들의 계몽운동에 앞장섰던 의로운 스님이었다.

원문상 스님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 잡혀 갈 것을 예감했던 것이었을까. 가장 소중하게 간직했던 책, 〈한글갈-최현배 저, 1940〉을 애제자인 조 회장에게 "한글을 열심히 공부해 학자가 되거라"며 선물했다. 그 책 모서리며, 책 속엔 원문상 스님의 낙관이 곳곳에 찍혀 있을 정도로 매우 소중히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서북청년단 출신 교감은 눈에 가시 같았던 원문상 스님이 없어지자 횡포가 심각해졌다. 결국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은 교감의 비리를 고발하는 청원서를 쓰게 된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조 회장이 당시 김충희 제주도지사를 면회해 진정서를 제출한다. 얼마 후 그 교감은 타 학교로 전보된다. 조 회장이 한국불교학생연맹 제주지역 회장으로 관음사 포교당에서 활동할 당시 관음사 직전 신도회장인 김충희 전 지사와 다시 조우했던 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던 듯하다.

4 · 3의 화해와 상생의 물결이 일면서 2007년 비로소 중문중학교 교정에 원문상 스님의 공덕비를 조 회장이 비문을 정갈하게 다듬어 세웠다. 조 회장은 "그날 왜 그리도 마음이 따뜻하고 홀가분하면서도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의 아픔을 회상하는 그 자체가 가슴 아팠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유년 시절에 가장 큰 인생의 항로를 가르쳐 준 원문상 스님을 비극적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묻어야 했던 조 회장은 스승에 대한 마음의 빚이 남은 것일까.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그의 불심은 확장되고 깊어진다.

"서귀농고로 진학을 했는데 근처에 정방사가 있었어요. 무애 스님이 주석했는데 지성을 갖춘 보기 드문 분이셨죠."

당시 조 회장은 주말이면 불교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과 함께 무애 스님의 불교 강론을 들으며 불심을 키워갔다. 그리고 그 불심으로 청년기를 보낸다. 그는 불교의 내면적 깊이와 본질에 점점 가까이 다가갔고, 불교는 그의 삶의 좌표가 되어간다. 마왕 파순의 그 어떤 유혹에도 부처님이 넘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조 회장의 마음속에는 불심이 금강석처럼 단단해져 갔다.

1954년 조 회장은 제주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원문상 스님에 이은 두 번째 인생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진원일 스님과 인연을 맺게 된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박원자의 '인생을 바꾼 108배'

B5 문화 김민서 작가의 '관세음보살 특별기획전'

B6 '간사이 아줌마' 의 일본사찰 엿보기 고겐지와 관음 마을



1995년 새로 지은 '알 관음사'에서 신도들과 함께 기념촬영. 사진 뒷줄 맨 왼쪽이 조명철 회장.



제주지역 청소년 유해 환경감사단 활동중인 조명철 회장. 사진 앞줄 오른쪽이 조 회장.

"수행하고 계율지키고 포교해야 참불자"

70여년 제주불교 발전에 헌신

태고종 제주교구 2대 신도회장

법화사 복원추진위 부위원장도

법화사 복원 불사 이끈 일등공신

불교정화운동 혼란기 겪으며

제주불교에 대한 애정 깊어져

'조명철 회장' B1면에서 계속

"당시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진원일 스님이 동양문학을 가르쳤어요. 중국 대문호 이태백, 두보, 백낙천 등의 시부를 중심으로 강의했고, 우리나라 김삿갓의 해학적인 시를 소개해 웃기도 했지요."

진원일 스님은 관음사 포교당(현 제주은행 본점 맞은편 중앙주차장) 대웅전 오른쪽 요사채에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 조 회장은 자연스럽게 진원일 스님과 사제의 인연을 맺고 포교당에서 불교학생활동을 하게 된다. 당시는 휴전 직전이라 불교학생회가 아니라 '불교학생연맹'으로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 활동한 조직이었다. 제주대학교는 국문과, 영문과, 법학과, 축산과 4개 학과에 불과했지만 40여 명이 불교학생연맹에 가입했고, 고등학교는 제주농고, 오현고, 제주여고, 신성여고 4개 학교에서 남녀 학생 80여명이 가입해 일요일이면 대웅전은 학생들로 붐볐다.

당시 불교학생연맹의 회장을 맡게 된 조 회장은 지도법사인 조원일 스님과 함께 일요법회를 알차게 이끌었고, 진원일 스님은 조 회장의 멘토가 된다. 그리고 4·3의 영향으로 한라산 입산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제주도 불자들은 1955년 제주시 도남동에 '알(아래) 관음사(현 보현사)'를 짓게 된다. 당시 관음사 주지는 바로 일붕선교종을 창종한 서경보 스님이었다. 스님은 자신이 쓴 〈불교입문〉을 조 회장에게 선물한다. 이를 통해 조 회장은 토론의 장을 만들었고, 학생들은 이를 통해 불교공부와 신행생활을 넓혀갈 수 있었다.

"불교는 교리 공부가 먼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수행의 토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스님들의 설법에만 의지하는 것보다 스스로 불서를 읽고 교리 공부를 확고히 한 뒤 수행하고, 일상생활에서 계율을 지키며 포교를 해나갈 때 불자의 삶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불교학생연맹 활동을 통해 공부가 점점 깊어진 조 회장은 출가를 결심하고 진원일 스님에게 그 인연을 물었다. 하지만 진원일 스님은 조 회장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고, 조 회장은 평생 재가불자로 살 것을 다짐한다.

그 무렵, 불교정화운동이 일어나면서 비구와 대처 간 분쟁으로 불교계는 큰 혼란을 겪어야했다. 제주 지역의 불교계도 그 혼란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 절대 소수인 비구측이 사찰 점령에 나섰지요. 제주에서도 진원일 스님을 내쫓기 위해 그들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았고, 학생들이 포교당을 지켰어요. 결국 싸움이 벌어졌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학생들에게 밀려 후퇴를 했어요. 그렇게 몇 차례 밀고 당기는 사이 신도회가 소집되어 논쟁이 벌어졌고, 결말이 나지 않자 경찰을 동원, 진원일 스님을 끌어내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그 후 1970년 태고종이 창종되고, 태고종은 교세 확장을 위해 제주시민회관에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조 회장은 당시 계사였던 묵담 대종사로부터 '인재(忍齋)'라는 불명을 받고, 한국불교태고종 제주교구 제2대 신도회장을 맡으면서 제주불교 발전에 헌신하게 된다.

이후 조 회장이 제주도교육청 장학관으로 근무할 무렵, 부친이 돌아가시고 서귀포시 하원동 천년고찰 법화사에서 49재를 봉행하게 된다. 조 회장에게 법화사는 마음의 고향 같은 사찰이다. 고향인 서귀포시 하원동에 자리 잡은 연유도 있지만 원문상 스님을 인연으로 불심이 피기 시작한 곳이기 때문이다.

당시 조 회장은 법화사 주지 시몽 스님과 인연을 맺게 된다. 시몽 스님은 법화사가 고려시대 비보사찰로 고찰임을 인지하고 복원의 큰 꿈을 그린다. 그 원력에 최초로 힘을 보탠 이가 바로 조 회장이다. 조 회장은 시몽 스님과 함께 제주도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창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대학 선배)을 찾아간다. 복원 계획을 설명하고 설득 끝에 사찰 진입로 포장 예산 지원을 받게 되면서 법화사복원추진위회가 구성되고, 복원의 대작불사가 시작된다.

"법화사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서귀포 지역 유지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변성근 사장, 소암 현중화 선생, 김황수 전 교육감 등을 찾아가 복원추진위원회 동참을 권유했지요. 김 前 교육감은 자신이 비불자라며 사양했는데 나중엔 지방문화재 복원 차원에서 동참하겠다고 쾌히 승낙하더군요. 그러자 전국적으로 유명한 서예가인 현중화 선생도 '김 교육감이 동참하겠다고 하니, 내 팔이 끊어질 때까지 작품을 써서 법화사 복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지요. 결국 몇 달 후 제주칼호텔에서 작품전시회를 열어 복원활동기금을 조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법화사복원추진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가 지원과 신도들의 보시를 통해 18년 동안 7차례 걸친 발굴과 세미나를 열었다. 이에 부지는 2천 8백평에서 2만 5천여 평으로 확장됐고, 그 위에 대웅전, 남순당, 요사채, 구화루 등의 복원은 물론 2천 5백여 평의 구품연지와 조경까지 마무리 되면서 법화사는 찬란했던 고려시대 천년고찰의 위상을 되찾게 된다.

조 회장은 지난 70여 년 동안 마음에 담아 두었던 불교에 대한 생각을 설파했다.

"불교는 무신론(無神論)입니다. 신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즉,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아미타불을 신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극락세계가 서방정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극락이 있습니다. 번뇌 망상으로 내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극락에 가겠습니까. 내 마음에 극락을 지어야죠. 아미타부처님을 일심으로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청소가 주변의 더러움을 닦아내는 것이라면, 수행은 마음의 때를 씻고 닦는 것이라고 조 회장은 생각한다. 그래서 조 회장은 매일같이 집안을 청소하듯 〈금강경〉을 독송하며 마음속의 잡념을 없앤다.

"〈금강경〉을 독송하다보면 잡념이 들어온 것을 금방 알아차려요. 눈만 글을 보고, 생각은 딴 곳에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과거에 가 있는 것이지요. '마음이 과거로 가면 괴로움이요, 미래로 가면 불안이요, 현재에 머물면 행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현세극락이 바로 그것이지요. 내가 현재 극락에 살아야 죽어서도 극락에 가는 것이지, 지금이 지옥인데 죽어서 어찌 극락에 간다고 말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했다. 하지만 조 회장은 고해 뒤에 행복의 바다가 있다고 말한다. 괴로움과 기쁨이 하나란 말이다. 80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양분 삼아,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에 괴로움의 바다를 극락의 바다로 만들며 살아온 '참 불자의 삶'을 몸소 보여준다.

제주=이병철 제주불교 신문기자

조명철 회장은?

1941년 제주도 서귀포에서 태어났다. 1954년 불교학생연맹의 회장을 역임했다. 1961년 오현고 교사를 시작해 1994년 제주도제주시 교육청 교육장을 역임했고, 1999년 정년 단축 퇴임했다. 1981~85년 태고종제주교구 신도회장을 겸하면서 법화사 복원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태고종단 발전과 법화사 복원불사을 이끌었다. 1986년 법화사 신도회장, 1997년 제주불교총연합회 부회장(신도대표), 2015년 태고종 제주교구 신도회 고문,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신도회 고문을 맡았다. 2002년 제주도문화상(예술부문), 2004년 붓다대상(사회봉사상), 2010년 대한민국불교문학상 본상 등을 이외의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조 회장은 스승 원문상 스님으로부터 받은 책 〈한글갈〉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우울증, 108배 수행으로 이겨내다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㉔ 우울증의 묘약



그림 · 박구원

"얘들아, 여보! 내가 무얼 그렇게 잘못한 거야?"

최근 한 주말극에서, 자식 넷을 키운 아버지가 잘 나가던 사업에 실패해 오랫동안 무능한 생활을 해오면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수시로 원망의 말을 듣자,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혀 강가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허공에 던진 말이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감과 실직이나 퇴직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 땅의 아버지들이 겪는 애환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 보고 있는 내내 마음이 짠했다. 불안장애와 우울증 환자가 오십대에 가장 많다고 하는데, 중년남성들이 겪는 이른바 갱년기 우울증은 남성 호르몬 분비 저하와 사회적 지위의 변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인생이 뭐 그런 것 아닌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하고 방치하다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좋은 방법으로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본인만의 운동과 취미생활을 즐길 것을 권하고 있다. 즐겁게 활동을 하면 긴장할 때 뇌에서 나오는 에페네프린 등의 호르몬 분비가 줄고 대신 기분을 좋게 하는 세토닌이 늘어나 우울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과 함께 산행하기, 하루 이삼십 분 햇볕 쪼이기 등을 권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108배가 아닌가 싶다. 집과 가까운 데 절이 있으면 운동도 할 겸 걸어갔다가 햇살 가득한 법당에서 108배를 하고 나오면 그 짜릿한 충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주말마다 운동 삼아 산에 올랐다가 절에 들어가서(어느 산이든 반드시 절이 있으니까!) 108배를 하고 내려와 된장찌개 한 그릇 사먹는 것으로 심신의 건강을 챙기는 분들도 있다. 무슨 운동이든 함께 하면 동지애가 생기는 걸 경험할 수 있는데, 가족과 함께 하는 108배는 절을 하고 난 뒤 기쁜 마음을 공유하고 좋은 가치를 함께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지애 이상의 가족애를 돈독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도반 한 사람은 사십대에 부모님을 잃고 마음이 우울한 데다 가정의 우환까지 겹쳐 우울증의 나락으로 한없이 빠져들었다고 한다. 직장에 나가 일을 하고 있어도 하루에도 몇 번씩 부모님을 따라가고픈 마음이 들만큼 우울증이 심해질 무렵, 한 달에 한 번 3000배를 하면서 극심한 우울증을 극복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던 그 느낌, 도반들 틈에 섞여 절을 하고 산을 내려올 때 느꼈던 그 기쁜 마음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목숨을 버리고 싶었던 우울감을 이겨내기 힘들었을 거라고 했다. 지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집에서 108배를 하고 일 년에 몇 차례 도반들과 3000배를 하며, 경전 읽기에 푹 빠져 있다.

정신적인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은 전세계적으로 현재 1억 명 이상이 앓고 있는 질환이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곁에서 생활하는 사람 또한 큰 문제다. 자연스레 감기 옮듯 전염이 된다고 하는데, 더 심각한 것은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살아있는 가족들의 삶이다. 10여 년 전, 한 유명 여배우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몇 해 사이로 남동생, 전 남편, 운전수까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은 가족을 걱정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 중 한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고 나면 나머지 가족도 열에 아홉은 감염이 된 채 고통 속에 살아간다.

매일 반복적으로 몸을 낮추어 절을 하면 혼란한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된다. 파도가 잦아든 맑고 깊은 바다에 삼라만상이 그대로 비추듯,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현실화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생에서 뿐만 아니라 오랜 생을 살아오면서 했던 내 말과 행동의 결과가 지금 풀려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내가 겪는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게 된다. 막연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했던 것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로 바뀌면서 적극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일을 수용할 때 번뇌로 출렁였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게 된다. 한 노비구니 스님은 젊은 시절, 전국의 적멸보궁을 순례하며 하루 몇 천배씩 강도 높은 절을 하다가 문득 전생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전생을 알게 되자 현실의 삶을 적극적으로 받아

1억 명 앓는 질환 우울증
절 반복하며 감정 순화
가족애까지 돈독진 효과

들이게 되었다고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때 현실에 대한 원망과 회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다. 내려놓으면 알게 된다. 삶의 어느 부분에서든 시간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을 담담히 수용하는 법을, 그리고 상대방이나 세상으로 인해 내가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받고 있다는 것을.

500배로 우울증 벗어난 며느리, 자비행씨

"108배? 너무 좋아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절 이야기가 나오자 이렇게 말하며 눈을 반짝였던 분을 얼마 전 남해 용문사에 다녀오는 길에 만났다. 108배로 인해 낮은 자존감과 깊은 우울증에서 벗어나 자신감으로 충만한 새 삶을 찾은 그녀는 오십대 초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렵한 몸매에 쾌활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가 절을 하기 시작한 것은 결혼 후 함께 살던 시어머니의 호된 시집살이 덕분이었다고 한다. 사사건건 며느리의 삶을 통제하고 주도하려 했던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공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다.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이 싫기만 했다.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는 일이 고역일 만큼 식사를 하는 모습까지 싫고 미웠다. 남을 미워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은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이다. 오죽하면 옛 도인들께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없애면 삶에 큰 어려움이 없다' 고 했을까. 미워하는 마음이 깊어지자 우울증이 찾아왔다.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고 한심하게 느껴질수록 자존감이 낮아졌다.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았지만 그때뿐 돌아서면 다시 똑같은 지옥의 연속이었다. 매일 복잡한 마음으로 서성일 때, 일간지에 연재되던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를 읽다가 '스님들도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절을 한다' 는 구절이 마음이 콕, 박혀 들어왔다.

"도를 닦는 스님들도 누군가 미울 때가 있구나, 그럴 때 절을 하는구나!"

당장 절을 하기로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 정보를 찾으니 절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날 저녁부터 하루 5백배를 하기 시작했다. 효과는 당장 나타났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루 500배를 하려니 우선 시어머니를 미워할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수년간 쌓인 미움이 절 500배 하는 것으로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집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칠 때마다 또 시시때때로 미운 감정이 일어나 요동을 쳤다. 생각을 다른 데로 옮겨보았지만 잠시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럴 때 주력을 함께 하면 효험이 있다는 정보를 얻고 능엄주를 써가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는 전철에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외웠다.

어느 날부터 하루 500배와 능엄주가 우울한 마음을 거두어내기 시작했다. 맹렬히 두 가지에 집중하자 몸도 마음도 가뿐해지면서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느껴졌다. 자신감이 솟았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면 늘 남편 뒤에 숨어 그의 처분만 바랐던 소극적이고 자존감 없던 자세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매사 주도적이 되어갔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인가 스스로 깨우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몸이 하자는 대로 쉽고 편한 삶을 추구하며,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 착각했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날이 갈수록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부터 자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우리 모두가 부처' 라는 말이 저절로 이해되었다. 내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이니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시어머니도 소중한 부처였다. 늘 문제의 해결을 밖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전도몽상이었는지를 깨닫게도 되었다. 내가 온전한 지혜와 자비를 갖춘 부처인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가려져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기 시작하자 눈물이 많이 나왔다. 자신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으로 잘못 살아왔는지 많은 참회가 되었다.

"살아가면서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매일 3천배를 하라' 고 하셨던 성철스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첫 3천배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그것이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이며, 큰 욕심 없이 진심으로 절을 하다보면 사물이 밝게 보이는 변화를 느꼈죠."

그녀의 이러한 변화는 정신적인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허리에 근육이 생겨 아무리 절을 해도 허리 아픈 줄 모르고, 자세가 바르게 되니 따로 몸매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게 되었다. 절을 하면서 온 몸의 근육과 관절들을 반복적으로 수축 이완시키면서 굽히고 펴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척추가 바로잡히는 효과를 자연스럽게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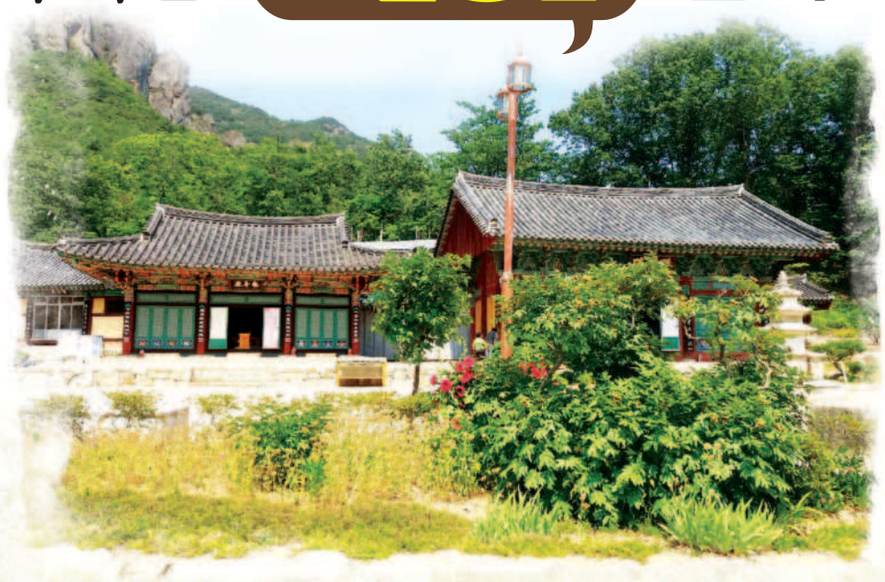
"108배는 나에게 캄캄한 세계에서 환한 마음의 세계로 가게 하는 전환점이 되어주었어요. 아무리 좋은 법문도 내가 수행해서 깨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즉 내가 스스로 깨친 것만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절수행을 통해서 깨달았죠. 가장 큰 변화는 스스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던 습관이 사라지자 무슨 일이든 편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되었죠.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성격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긴 것도 큰 변화예요. 그리고 애쓰지 않아도 좋은 인연들이 만들어졌죠."

매일 매일이 새롭게 느껴지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녀에게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그토록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할까를 물어보았다.

"시어머님이요? 요즘은 어머니를 부를 때 '사랑하는 어머니?"이렇게 불러요. 연세가 많다보니 요즘 초기 치매증상을 보이시고 있는데, 이제 제가 잘 돌봐드려야 할 차례죠. 좋은 인연을 만드는 노력이 수행이잖아요."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걸 알면 어떤 문제도 헤쳐 나갈 수 있다. 나를 수없이 낮추며 겸손을 배우게 하는 108배는 그 진리를 알게 하는 첩경이 아닐까 싶다.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삽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12.6~2017.12.1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저잣거리 스님의 '깨달음과 행복' 108편

그래도, 가끔

법현 스님 지음 | 북락 펴냄 | 1만 8천원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역촌중앙시장의 '저잣거리 스님'으로 더 유명한 법현 스님 〈사진〉은,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페이스북 등 SNS 공간도 중요한 도량이요 법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카친, 스친, 밴친, 페친들과 활발히 소통한다. 시민사회와 종교, 불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어울림 또한 중요한 수행이요, 전법이란 생각을 갖고 각계각층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며 호흡한다. 한국불교태고종 부원장과 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종교인평화회의 종교간 대화위원장을 역임하고, 성공회대서 스님과 함께하는 채플 강의 했으며,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활동중이다. 선(禪)과 농사(農事)와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진정한 불교의 사회적 실천운동이라는 생각에 이웃종교들과도 교류를 자주 가지며, 때로는 승려가 아니라 농사꾼이 되기도 하고, 촛불혁명 때는 촛불이 되어 함께 나섰다. 시장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저잣거리 시장인 역촌중앙시장 2층에 〈열린 선원〉이라는 포교원을 열고, 시장 사람들의 친근한 벗이 되기도 하고 농사를 짓는 등 선농(禪農) 일체의 길을 걷고 있다. 이번에 엮은 〈그래도, 가끔〉은 그동안 카친, 스친, 밴친, 페친들과 소통한 글을 한데 모은 것이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고해(苦海)인 사바세계의 삶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기〉에서부터 시작해, 그 고해의 삶을 〈내려놓기〉, 그 고해의 삶에서 〈벗어나기〉, 그리고 그 고해의 삶과 더불어 〈행복하기〉 등 기승전결의 형태로 구성돼 있다. 법현 스님은 이 네 가지 삶의 형태를 통해 이웃들이 미망과 고통의 삶서 벗어나 해탈과 자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詩) 형식을 빌려 알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게 문학적 장치를 이용해 그동안 자신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이웃들과 소통한 글과 사진을 한데 모아 책으로 묶었다.

그 때문일까? 이 책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법현 스님의 가슴에 어머니처럼 항상 살아 숨 쉬는 모성(母性)과 자비로서의 언어와 메지지이다.

법현 스님은 실제로 모시고 사는 팔순 노모의 언어(전라남도 언어)를 빌려 정감 넘치면서도 따뜻하게 이웃들에게 '눈(眼) 잘 덮어서 보리(菩提)싹 잘 자라게 하거라'라며 깨달음과 삶의 행복론을 해학적으로 동시에 전한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겨울철 작물인 '보리'를 깨달음의 '보리(菩提)'로 승화시키며 삶의 애한과 고통을 순식간에 따뜻한

저자, SNS도 중요한 전법도량
종교와 계층 뛰어넘는 행복론

행복과 깨달음의 경지로 치환시킨다. 스님의 이러한 잠언적인 행복론과 깨달음의 메시지는 종교와 계층을 뛰어넘어 이 세상 전체로 관통한다. 먼저 1부 〈바라보기〉 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주 상식적이고 평범한 노래가 법현 스님의 해학과 혜안을 거쳐 부지불식간에 우리들을 깨달음과 행복의 세계로 안내한다.

"열차가 멈출 때 앞으로 쏠리던 몸이 떠날 땐 뒤로 젖혀지거나 출렁거리는 배 위에서 멀미를 하는 까닭은 겉과 속이 따로이기 때문이다/쏠리지도 젖혀지지도 않고 멀미도 잡으려면 약보다는 앞과 뒤, 겉과 속이 하나 되는 마음을 먼저 먹어야 한다" 〈관성과 멀미〉 中에서

또한 제 2부 〈내려놓기〉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익살적인 이야기 시로 어리석음서 깨어나지 못하는 중생들에게 자유와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전해준다.

"산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딘 장님이 굴러굴러 내려오다 어찌어찌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 붙잡고 매달렸다/두 손을 철봉 잡듯이 꼭 잡고 매달려 살려달라고 주위를 향해 소리쳤다/ 한참을 그렇게 살려달라 소리치며 매달려 있으니 기운은 빠지고 곧 나무에서 손을 놓칠 것 같아서 무서웠다/ 천길 낭떠러지일 것이기에/ 다행스럽게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길래 더 크게 소리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고요한 소리로 말했다. "손을 놓으시오/장님은 그러면 죽을 텐데 왜 그리 모지냐면서 울음으로 애원했으나 행인은 손 놓으라는 소리만 하고 가버렸고 힘은 다 빠져버렸다/이제는 죽었구나 하며 나무를 잡은 두 손에 힘이 빠지며 놓쳤는데 떨어져보니 금세 발이 땅에 닿았다/눈에 보이지 않아 무서워서 오그린 탓에 다리가 땅에 닿지 않았던 것이다/그 누구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다. 손을 놓는 것이 살 길일 수 있다. 놓으라고 손을 놓으라고 그럼 살 수 있다고 내게 말해주는 이 있는가?"

〈손을 놓으면 산다오〉 中에서

제 3부 〈벗어나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설의 시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타를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제 4부 〈행복하기〉에서는 이러한 삶의 단계(수행 과정)를 거쳐 행복의 진정한 얼굴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재치 있는 익살과 해학의 언어로 중생들의 그 몽매한 마음을 깨우쳐준다. 이처럼 이 책에 수록된 108편의 노래와 시는 법현 스님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중요한 법당이요 전법도량이라 생각하고, 익명의 독자들과 함께 직접 소통한 내용을 한데 묶은 것이다.

법현 스님이 머리말에서 밝힌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어디서부터나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손수건 같은 책이 되기를 바'란다는 바람과 함께 '한 꼭지 읽고 창밖을 한 번 바라보고, 또 한 꼭지 읽고 창밖을 한 번 바라보는 것은 어떨는지요?'라고 반문하는 모습이 가슴 가득 연꽃처럼 피어나는 순간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왕실 불사의 흔적은?… 왕실 사찰 '원당'

원당, 조선 왕실의 간절한 기도처

탁효정 지음 | 은행나무 펴냄 | 1만 7천원





내원당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창덕궁 후원.

"시대의 마음을 읽는 것이 역사를 통찰하는 가장 쉽고 재미있는 길"이라는 저자 탁효정의 〈원당, 조선 왕실의 간절한 기도처〉는 왕 중심의 조선사 뒤에 가려진 왕실 여인들의 지성스런 불사를 소설처럼 생생히 재현한 일종의 역사책이다. 한낱 투기와 가십의 소재에 불과한 왕실 여성들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옛 사부대중의 자생적 개혁 의지와 지혜를 보여준다.

원당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간절히 비는 집'이다. 조선 왕실 사람들은 절을 짓고 그 안에 위패나 초상화를 모셔 자신만의 소원을 담은 공간을 만들었다. 주로 죽은 부모나 남편, 요절한 자식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건축된 원당은,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서 아들 회임을 발원하는 기도처의 성격을 띤다. 불교의 구도적 성격에 기복 신앙이 더해지고, 세종의 한글 창제로 불경이 대중화되면서 불교는 명실상부한 민중 종교가 되었다. '원당'이라는 말 자체는 낯설지만, '명당'이라던가 '영험한 기도처'란 익숙한 민중 신앙으로 지금껏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 셈이다.

이름 없는 무장에 불과했던 이성계가 역사상 가장 견고한 왕조라 평가받는 조선을 건국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얼까? '상갓집 개'라는 하찮은 별명으로 불렸던 왕실의 먼 친척 흥선대원군이 권력 최상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신화와 같은 역사의 이면에는 '천하 명당'이 있다. 명당에 부모의 묘를 이장하거나 절을 세우고 성심으로 기도한 끝에 뜻을 이루는 것이다. 조선왕조사를 따라 명당을 읊다 보면 선조부터 순종까지 왕을 열넷이나 배출한 길지 동작동 화장사(현 국립현충원)가 등장한다. 중종의 후궁 창빈 안씨를 이곳에 모셔 손자 하성군이 선조가 되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묻혀 그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되었으니 왕을 배출하는 곳은 확실한 듯하다. 하지만 저자는 이 '명당'에 얽힌 아이러니들도 놓치지 않고 언급한다.

원당을 이해한다는 것은 명당을 파악하는 것과 같다. 이는 곧 명당을 애타게 찾았던 그 시대의 간절한 기도, 그 욕망과 아픔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폭군' 연산군과 광해군, '팜파탈' 조귀인과 장옥정, '국모' 명성황후 등 흔히 우리가 친숙한 별명을 붙여 부르는 왕실 사람들과 그 원당에 얽힌 사연들을 보면 그 호칭이 후대의 역사관, 즉 현재의 욕망과

원당, 무언가를 간절히 비는 집
현재 남아있는 원당 많지 않아

아픔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역사서들의 일편지견에서 벗어나 세종의 독재 군주적 측면, '무능한 왕'이란 오명을 벗기 시작한 광해군의 콤플렉스, 공포정치를 펼쳤던 세조의 선업(善業) 등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본다. 그런가 하면 조선 시대 여성을 다룰 때마다 겪게 되는 고충도 털어놓는다. "여자가 사람이 아니었던 시대,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적 의미와 인간의 존엄성을 찾"는 일이 마치 목이 좁은 유리병에서 자란 새를 꺼내는 일 같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500년 역사를 가능케 했던 것은 어둠 속에서 촛불을 밝히고 치성을 올린 왕실 여성들의 불심이었고, 또한 역으로 500년간 이어져 온 왕실 불교는 왕실의 여성들이 막막한 삶 너머 내세를 상상하며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영겁회귀의 삶과 욕망, 죽음과 참회가 원당에 오롯이 깃들어 있다. 저자는 "한 사찰의 역사에는 수많은 인연과 수없는 마음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하나의 인드라망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사찰 원당에 깃든 왕실 사람들의 기도에서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 이치를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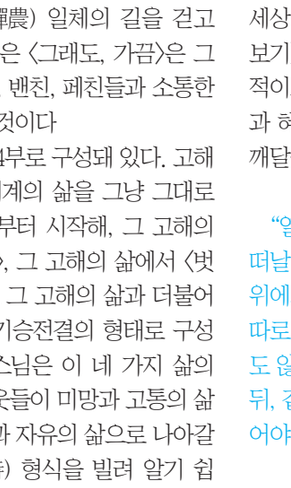
현재까지 온전히 남아 있는 원당은 그리 많지 않다. 불교에 반감을 지닌 조선 유학자들의 방화와 잦은 외침, 일제강점기의 문화 정책, 한국전쟁에 의해 수많은 불교 유산들이 전소 및 훼손되었다. 원당의 원형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은 의성 고운사의 연수전이다. 영조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이 건물은 특이하게도 사찰 전각이 아닌 유교식 사당 형태로 건축되었다.

기로소(耆老所)는 정이품 이상의 관직을 역임한 70세 이상 문신들의 친목 기구로, 왕과 함께 연회를 열며 회원 간 화친하는 곳이다. 유교적 효치주의에 기반을 둔 기로소가 자진해 사찰에 원당을 설치했다니, 왕비나 대비의 내탕금을 털어 예산을 마련한 조선 초중기의 원당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는 조선 후기의 불교가 더 이상 배척이 아닌 공존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진왜란 당시 전투에서 승군들의 활약과 전쟁 복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불교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인정한 것이다. 게다가 주자학 이데올로기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불교를 견제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은 승려들과 지적 · 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갔고, 불교계 또한 유교와의 융합과 공존을 위한 접점들을 모색했다. 원당을 이해한다는 것은 조선의 역사를 다르게 보는 하나의 창을 내는 것과 같다.

김주일 기자

현밀과 삼승의 모든 지혜를
포괄하고 있는 보석과 같은 가르침!

문수진실명경 역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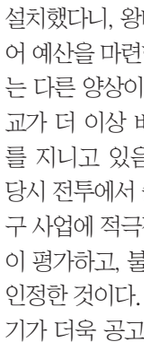
티베트불교에서 종파를 떠나 모든 수행자들이 수지 독송하는 경전!

네팔에 머물며 수행과 티베트 경론 번역에 힘쓰고 있는 중암 스님이 인도와 티베트 주석서들을 참조하여 방대한 설명과 각주를 달았다.

중암 선혜 역주/신국판 양장/752쪽/값 35,000원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동두천 작은 절, 광명스님이 전하는 행복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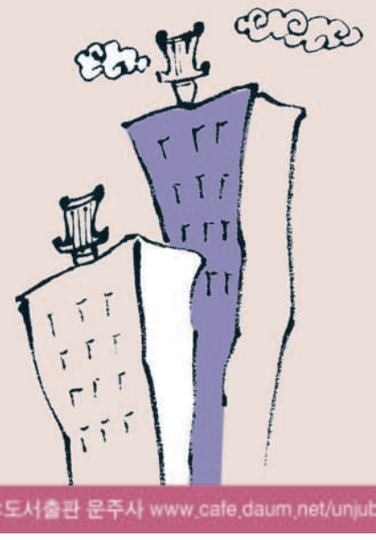


행복도 불행도 저절로 오지 않는다!

소박하고 소탈하고 정겹고 사람 냄새 나는 곳, 무심정사 사람들의 이야기

읽는 이들을 저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이야기,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광명 지음/국판 무선/240쪽/값 1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선재동자 없고 매화 핀 수월관음도



선재동자가 없고 배경에 매화를 그려넣는 등 새로운 형식을 시도한 김민서 화가의 수월관음도.

김민서 불교미술작가의 '관세음보살 특별기획전'
12월1일~31일 동화사 법화보궁갤러리

기존 도상 탈피 새로운 시도
"보살의 형상 아닌 마음 그리고 싶어"

대자대비로 기억되는 관세음보살은 고해 대중이 마음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미술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관세음보살을 그리는 일은 단순히 미술이 아닌 신심의 발현이며 수행의 일환이다. 붓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깊은 신심과 간절한 원력 없이는 여법한 관음도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관음도를 만난다.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대구 동화사 법화궁갤러리에서 열리는 김민서(지원불교미술연구소 소장) 불교미술작가의 관세음보살특별기획전이다. 김민서 화가의 4번째 개인전인 이번 기획전에 전시되는 관음도 20여 점은 김민서 화가가 1년 6개월 동안 신심과 원력을 붓 끝에 모은 것들로서 새로운 형식의 관음도다.

"대자대비하신 보살의 실천적 자비행을 닮고 싶은 마음이 일기 시작했어요. 관세음보살의 형상이 아닌 본래면목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어요."

서양미술을 전공한 김민서 화가는 모태 안에서 불교를 시작했다. 그는 화가로서 자신의 내면을 보다 밀도 있게 쏟아내기 위해 동국대 대학원에서 다시 불교미술을 공부했다. 그리고 30여 년 불화를 그려왔다. 어느 날 마주한 관세음보살의 진면목에 원력이 일었다. 마음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마음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관세음보살의 진면목을 그려내기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보살의 형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보살의 그 자혜로운 마음을 그려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력이 되었죠. 그리고 행복이 되었죠. 일생동안 보살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그리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원력입니다."

김민서 화가는 자신의 몸과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불심을 완성하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 그 중 하나가 관세음보살이며, 그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관세음보살을 그린다. 자신이 들여다본 관세음보살,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관세음보살을 그린다.

또한 많은 대중에게 관세음보살의 자혜로운 모습을 전하기 위해 그는 새로운 생각들을 시도했다. 김민서의 수월관음도 배경엔 매화가 피어있고 선재동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기존의 도상에 얽매이지 않고 관세음보살의 모습에 집중했으며, 은은하고 부드러운 채색을 시도해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시도했다.

관세음보살은 법화변상도의 성중이다. 그래서 아미타변상도 속의 협시보살로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관음신앙이 보다 강조되고 독립적인 신앙의 형태를 취하게 됨에 따라 독립적인 불화의 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생이 그린 '백의수월관음화', 복령사 수월관음화, 서구방과 혜허, 그리고 김우문이 그린 수월관음도, 무위사 '양류관음도', 도갑사 '삼십이관음응신도' 등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관음도가 그려졌다. 그리고 2017년, 우리는 또 다른 수월관음도, 백의관음도, 유희관음도를 본다. 김민서의 관세음보살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김민서 화가는…

개인전 4회와 다수의 초대, 단체, 기획전, 해외 기획전을 열었다. 동국대학교대학원(불교미술석사)을 졸업했다.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울산미술협회 회원이며 지원불교미술연구소 원장으로 있다.

웰메이드 다큐로 한해 마무리를

BTN, 고품질 다큐 2선 방영

번잡한 연말을 웰메이드 다큐멘터리로 마무리하는 것을 어떨까.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은 연말을 맞아 다큐멘터리 2선을 시청자들에게 선보인다. 특히 두 작품 모두 공익 지원사업에 선정된 수작(秀作)들이어서 눈길을 끈다.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활용프로그램 민간보조사업으로 선정된 2부작 다큐인 '시민의 터전, 서울 한양도성'은 오는 12월 13일 오후 9시에 방영된다.

현존하는 전 세계 도성 성곽 중에서 세계 최장 기간 도성 역할을 했고 남아있는 수도 도성으로 세계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한양도성의 가치와 생명력을 재발견하며, 시대를 거치며 그 속에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방영되는 '나를 찾는 마음여행-명상'은 올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이다.

불교의 철학과 가르침의 배경으로 성장한 미국 명상 대중화의 실태와 현장이야기 생생히 담았으며, 한국·미국의 명상전문가들의 스토리텔링과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한국계 미국인 방송인 수잔 리 멕도널드가 동행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전통판화공모전, 배남경 '빛길-색' 대상

12월 24일 시상식… 고판화박물관서 1월 말까지 전시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전통판각법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5회 원주 전통판화공모전에서 현대 목판화 중견작가인 배남경(55)의 목판화 '빛길-색, Red and Road'가 대상인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

'빛길-색, Red and Road'은 다색목판화이지만 여러 색판을 쓰지 않고 단 하나의 판을 점증적으로 제판하면서 인출하는 일판소거법을 사용해, 7~8차례의 제판과 수십 차례의 인출작업을 거듭하여 회화와 같은 공간감과 깊이를 보여준다.

국내 유일의 전통판화 공모전인 제5회 원주 전통판화 공모전에는 전통판화, 창작판화, 생활판화 3개 분야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4회 연속 전통판화 부문이 대상을 받았던 전통을 깨고, 현대 목판화작가들의 창작판화부문에서 대상이 나와 앞으로 현대 목판화 작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게 했다.

창작판화와 전통판화 등 전문작가들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 판화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판화예술에 심취한 일반인들의 참여로 우수한 작품 100여 점이 접수되었으며, 1년 동안 생생문화재사업 전통판화 학교 학생들과 템플스테이로 진행된 숲속판화에서 기량을 닦은 수련생들도 생활분야에 참여했다.

전통판화부문 최우수상인 강원도지사상에는 국가 인간문화재 106호 각자장 이수자로 다양한 전통판각을 전승하고 있는 한병옥 작가의 '비로자나 설법도'가 선정됐으며, 원주시장상인 우수상에는 현대 목판화작가인 이언정의 'City 7'과 생활판화부문 전진은 작가의 '문수보살상'이 선정됐다.

고판화박물관장상에는 맹창균 작가의 '오륜행실도'와 박보경 작가의 'Tranguil', 중앙대 김건희 학생의 '관심주기', 경성대 권수진 학생의 '용기라는 의미 2'가 선정됐다.



최우수상-한병옥 作 '비로자나설법도'

수상작품은 12월 24일부터 고판화박물관 전시실에서 내년 1월 중순까지 전시되며, 시상식은 개막식 당일 11시에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BBS 라디오, 하반기 개편 방송 시작

12월 4일부터… '밤의 창가에서' 등 새 편성

BBS불교방송(선상신 사장, 이하 BBS) 라디오가 하반기 개편을 진행하고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들을 시작했다.

12월 4일부터 이뤄지는 하반기 개편에는 '이지형의 밤의 창가에서'(평일 밤10시~12시)가 새롭게 편성돼 눈길을 끈다. '밤의 창가에서'는 과거 가수 故 김광석이 진행했던 인기프로그램이었다. 이번 개편으로 '토이'의 객원보컬이었던 싱어송라이터 가수 이지형이 '밤의 창가에서'의 새 DJ가 돼 청취자들을 만난다.

불교적 안목의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BBS 화쟁토론'(금요일 오전8시~9시)도 주목된다. 'BBS 화쟁토론'은 우리 사회에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화쟁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BBS불교방송만의 시사프로그램이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의 진행으로, 매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주말 생방송 실시로 청취자와의 소통도 확대된다. 새로 신설된 '오늘은 라떼처럼'(토,일 저녁7시~9시)은 따뜻하고 사려깊은 음악과 이야기로 꾸며진다.

기존 인기프로그램들도 방송 시간대를 확대해 청취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BBS 간판 종합뉴스인 'BBS 뉴스파노라마'는 기존 시간보다 10분 늘어난 평일 오후 6시~6시40분까지로 확대되고, 'BBS경제토크'도 토요일 오후6~6시40분까지, 'BBS뉴스와 사람들'도 일요일 오후6시~6시40분까지 방송된다. 이에 따라 매일 오후6시30분에 시작하던 저녁예불은 10분 늦춰진 오후 6시40분부터 7시까지 매일 방송된다.

BBS인기 프로그램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 1부'는 기존 월~목에서 월~금으로 방송요일이 늘어난다.

이번 개편에 대해 BBS는 "변화하는 포교 패러다임에 발맞춘 특화된 콘텐츠가 청취자들에게 깊은 재미와 감동은 물론 시대의 흐름과 함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12월 야간개장 '큐레이터와의 대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매주 수요일 야간 개장 시간(21:00까지)에 박물관 큐레이터의 상세한 전시품 해설과 관람객과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참여형 프로그램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금동반가사유상과 불복장 등 불교관련 상설전시장에서도 진행된다.

2017년 7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와 7시, 2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상설전시실과 특별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상설전시관 프로그램에서 '600년경에 제작된 금동반가사유상(불교조각실, 12/6)', '불복장 직물의 색과 방위(고려실, 12/13)' 등에 대해 설명한다.

특별전 프로그램으로는 새롭게 개막하는 특별전 〈예르미타시박물관전, 겨울 궁전에서 온 프랑스 미술(2017.12.19.~2018.4.15.)〉의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17~20세기 초까지의 프랑스 미술의 흐름과 러시아인들이 사랑했던 프랑스 문화에 대해 설명한다. 박재완 기자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사찰 증축
사찰 개축

■ 가건물 (주차장, 공양간, 창고)
■ 조적, 미장, 마루 일체
■ 불단 샌딩, 법당 샌딩
■ 실내 인테리어 일체

전화 02)990-5121
010-5309-2119

경 원 불 사

민중의 힘으로 지켜낸 관음신앙 聖地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㉓ 고겐지와 관음 마을

불교문화의 寶庫, 湖北

시가현 사찰 답사 마지막으로 비와호 북쪽, 호북 지역에 있는 사찰을 소개한다. 이 지역에는 규모가 큰 사찰은 없지만 관음 마을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멀리서도 일부러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주택이 비교적 많은 비와호 남쪽에 있는 지역도 오사카에서 가보면 시골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호북 지역은 그곳보다도 더 완전히 시골이다. 이런 작고 고즈넉한 마을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불상이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소장되어 있다

시가현에 있는 불상 가운데 에도 시대에 제작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국보나 중요문화재, 시가현이 지정한 문화재로 지정되는 조각 문화재는 헤이안 시대에 제작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불상의 종류는 호북 지역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관음상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시가현의 관음상만 모아서 열린 전시회도 있었다.

호북 지역은 옛날에 고다카미야마(己高山)를 중심으로 번영한 불교 문화권에 속했다. 영산(靈山)으로 숭배를 받는 이 지역은 산악 수행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시가현 북동쪽에 위치하는 호쿠리쿠(北陸) 지방의 관음 신앙이 유입되었다. 지난 회에 소개한 천태종 사찰인 히에이잔 엔랴쿠지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관음 신앙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불교문화가 구축되었다고 보여진다.

호북은 이렇게 불교문화가 꽃피는 지역이었지만 중세에 들어서는 정토종, 조동종 등 이른바 신불교 세력이 강해지고 호북에 있던 천태종 사원의 힘이 약해져서 대부분의 사원이 쇠퇴되고 스님이 없어지거나 폐사된 사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불상을 지켜온 사람들 역시 마을 주민들이었다.

마을 주민들이 작은 암자를 짓고 옛날부터 신앙을 받았던 불상을 모셔놓았다. 불상들이 이렇게 종파를 넘어 마을을 지키는 본존이 되었다. 전국(戰國) 시대 때 전란의 무대가 되어 불타버린 사찰도 적지 않았지만 마을 주민들이 불상을 강바닥에 가라앉히거나 땅속에 묻거나 해서 지켜왔다고 한다. 지금도 호북 지역 작은 규모의 사찰에 수준이 높은 훌륭한 불상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깊은 신앙심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남은 불상 가운데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고겐지(向源寺)의 국보 십일면관음입상이 그 하나이다.

고겐지와 도간지관음당

일본에서 국보로 지정된 십일면관음상이 7구가 있다. 다 간사이 지방에 있는데 가장 많은 곳이 나라의 3구, 다음은 교토의 2구. 오사카에 1구가 있고, 1구는 바로 시가현 고겐지의 관음상이다. 7구 가운데 고겐지의 십일면관음상이 가장 아름답다고 칭찬을 받고 있다.

사전에 의하면 고겐지 십일면관음상의 연기는 다음과 같다. 8세기 도성에서 천연두가 유행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천황이 재앙을 없애기 위해 스님한테 기도를 칙명(勅命)했다. 스님이 십일면관음상을 만들고 암자를 짓고 봉안했더니 효험이 있었다고 한다. 사전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이 관음상이 천태종 밀교미술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헤이안 시대 초기인 9세기에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관음상은 일본에 있는 십일면관음상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통은 정면 얼굴을 제외하고 11면의 작은 얼굴이 있는데, 이 관음상은 정면 얼굴을 포함해서 11면이다. 정면 얼굴에 비해 작은 얼굴의 크기가 비교적 큰 것도 특징이다. 그리고 보통은 머리 위에 작은 얼굴이 있지만, 이 관음상은 정면 얼굴 좌우에 작은 얼굴이 있다. 귀에 거는 큰 귀걸이도 보통 십일면관음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비와호 북쪽엔 관음 마을 있어
戰國시대, 폐사 불상 주민 지켜
국보 고겐지 관음상도 그중 하나
해당 지역 관음상만 60구 넘어

단정하고 고운 얼굴, 육감적이고 허리를 좀 비트는 약동적인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이국적인 인상이 조금 엿보이는 이 관음상이 사찰에서도 박물관처럼 360도 돌아서 볼 수 있게 안치되어 있어서 옆과 뒤 어디에서도 마음껏 관람할 수 있다.

8세기에 창건된 고겐지는 9세기에 들어 엔랴쿠지를 창건한 사이초가 칠당가람을 건립하고 많은 불상을 안치해, 그 사세(寺勢)와 아름다움을 자랑했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운(寺運)이 약해져 16세기에는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이 지역의 다이묘(大名)인 아자이 나가마사(淺井長政)의 치열한 전투로 불타버렸다. 당시의 주지는 종파를 정토진종으로 개종해 새로운 사찰로 다시 출발했다. 정토진종 사찰에서는 아미타불 이외의 불상을 모셔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암자를 따로 짓고 불상들을 비불(秘佛)로 지켜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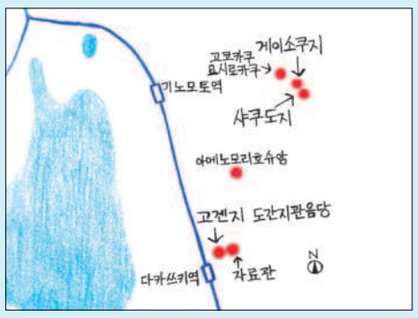
그런데 사찰 이름은 고겐지이지만 십일면관음상이 안치되어있는 곳은 도간지관음당(渡岸寺 觀音堂)이라고 부른다. 도간지란 사찰 이름이 아니라 이곳의 지명이다. 지명을 따서 이렇게 부른다.

16세기의 전투 때 주지와 지역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불 속에서 불상을 건져내 땅속에 묻었다고 전한다. 많은 사람이 십일면관음상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이 단순히 그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불상을 지켜온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불상을 통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도록에 수록된 일본 국보 고겐지 십일면관음보살상. 전란으로 없어질 위기의 문화재였지만, 민중들의 신앙심으로 지켜졌다.

고겐지, 샤쿠도지, 게이소쿠지 답사 안내



이 지역은 JR다카쓰키(高月)역 혹은 JR기노모토(木ノ本)역을 중심으로 답사한다.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밖에 전차가 없지만 고겐지는 다카쓰키역에서 가까워 찾아가기가 어렵지 않다. 샤쿠도지, 게이소쿠지쪽으로는 한~두 시간에 한 번 정도밖에 없지만 기노모토역에서 노선 버스를 이용하고 갈 수 있다. 후루하시(古橋)라는 정류장에서 내리고 걸어가면 된다. 11월 하순엔 단풍 순환 버스라는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또 다카쓰키역, 기노모토역에서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 도간지관음당 옆에는 다카쓰키관음마을 역사민속자료관이 있다. 거기서 호북 지역의 불상을 관람할 수 있다.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특별전이 열릴 때도 있다. 도간지관음당 입장권을 제시하면 자료관 입장료가 좀 할인이 된다(매주 월, 화, 공휴일의 다음날, 연말연시는 휴관).

샤쿠도지와 게이소쿠지

이번에 호북 지역 관음 마을에 대해 원고를 준비하면서 고민한 것은 소개할 사찰을 고르는 것이었다. 국보 십일면관음상이 소장되어 있는 고겐지는 필수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소개하는 사찰이다. 내가 갖고 있는 호북 관음 순례 팜플렛엔 60구가 넘은 관음상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 단풍 명소이고 고겐지에서 비교적으로 가까운 샤쿠도지(石道寺)와 게이소쿠지(鷄足寺)를 소개하고자 한다.

샤쿠지도지는 원래 현재 위치에서 좀 더 동쪽에 있는 산속에 있었다. 8세기 전기에 개창되고 9세기 초에는 사이초에 의해 재흥되어, 엔랴쿠지의 별원으로서 번성했다고 전한다. 16세기 오다 노부나가에 의한 병화로 소실되었지만 불상은 살려내었다. 이 절은 17세기에 중건되었다. 현재 본당이 19세기에 다시 건립된 건물인데 20세기 초에 원래 위치에 있던 본당을 마을 주민에 의해 더 편리한 현재 위치로 옮겨진 것이다.

본당에 안치되어 있는 십일면관음상이 곱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나는 원래 자전거 타고 사찰까지 가려고 생각했지만 하필이면 비가 많이 와서 역에서 사찰까지 한 시간에 걸쳐 걸어갔다. 비에 몸이 젖어서 힘들었지만, 관음상을 만나는 순간 고됨은 행복으로 바뀌었다.

게이소쿠지의 불상은 문화재 수장고인 고코카쿠(己高閣), 요시로카쿠(世代閣)에 안치되어 있다. 거기서 게이소쿠지 본존이었다고 추측되는 십일면관음상(헤이안 시대 제작), 칠불약사여래상(七佛藥師如來像, 헤이안 시대 제작), 시가현 최고(最古)의 본격적인 목조불인 약사여래상(나라 시대) 등을 배관할 수 있다(매주 월요일과 1월, 2월은 휴관이다).

조선통신사를 수행한 아메노모리 호슈

올해 10월31일, 한일 양국의 단체가 공동 신청한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의 기록'으로 등록되었다. 일본이 신청한 자료에는 에도 시대의 유학자이고 조선통신사 사절의 에도행을 두 번 수행한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에 관한 자료 36점도 포함되어 있다. 호슈는 호북에 있는 현재 시가현 나가하마시(長浜市) 다카쓰키정(高月町) 아메노모리에서 태어났다. 조선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그는 조선 무역의 중개 역할을 하던 쓰시마번에서 조선 외교를 담당하는 문관으로 활약했다.

이전엔 양국 간 필담을 중심으로 교류했으나 호슈는 상대국의 언어를 알아야 선린(善隣) 외교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부산에 유학하여 조선어를 습득했다. 그는 상대국의 언어, 문화, 습관 등을 이해할 필요의 중요성과 한일 양국 간 대등한 외교 관계를 주장했다. JR다카쓰키역에서 25분 걸어가면 아메노모리호슈암(庵)이 있다. 호슈와 조선통신사 관련 자료,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여기는 또 관련 강좌, 국제 교류를 하는 장소이기도 한다(매주 월, 화, 공휴일의 다음날, 연말연시는 휴관).

글 · 사진=나카노 요코
감수=홍은미 옥천사 성보박물관 학예실장



황토와 편백

황토 편백 찜질침대 산사에 황토구들을 놓을 수는 없을까?
황토와 편백나무는 면역력 증강과 피부재생 및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잠이라도 푹 주무시고
참선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감기 없는 겨울을 보시하고 싶습니다.

• 현금 특별 판매가 : 135만원
구입처 010-7358-0380
배원호 합장

황토구들 침대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를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다시 오리라

나무 앞에서 죄를 짓고
달빛 아래서 죄를 짓고

언젠가는 한 마리 새로 오리라
글을 쓰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언젠가는 강가의 풀잎으로 오리라
비를 맞고
바람에 눕는 것이 전부인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인간으로 오리라
새를 거쳐서
풀잎을 거쳐서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⑳ 불상을 모신 아쇼카왕

부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부처님이 보고 싶다.' 아쇼카왕은 부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부처님 법으로 백성을 어루만지니, 세상이 이처럼 평화롭구나. 이렇게 좋은 길을 열어 주신 부처님을 뵈올 수는 없을까? 아니면 부처님을 만나본 이야기라도 들어봤으면…."

그러나 세상에는, 부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10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왕은 바다의 용왕이 부처님과 만났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의 용왕은 수명이 1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부처님을 만났을 것이다.'

아쇼카왕은 신하를 시켜서 용왕을 모셔오게 했습니다. "대왕이 부처님 법으로 정사를 보신다니 고마운 대왕을 가서 뵙기로 하자"며 용왕은 사람으로 모습을 바꾸고 아쇼카왕의 궁전에 나타났습니다.

아쇼카왕이 거느린 수많은 왕과 많은 신하들과 스님과 하늘사람 범천과 일반 백성과 야차와 건달바까지 자리를 잡고, 용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쇼카왕은 용왕을 사자좌에 앉게 했습니다. 아쇼카왕이 자기 몸에 걸었던 영락을 거두어 용왕에게 걸어주며 물었습니다.

"용왕은 우리 부처님 참모습을 보았을 테지요?" 용왕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1겁을 살면서 네 분의 부처님을 모셨지요. 마지막이 석가모니부처님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드리지요."

말을 마치자 용왕은 신통력으로 자기 모습을 부처님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처님의 서른두 가지 거룩한 모습(三十二相)과 여든 가지 잘난 모습(八十種好)이 나타났습니다. 빛나고,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아, 부처님!' 아쇼카왕이 황홀한 느낌으로 부처님 모습을 우러르고 있었습니다. 아쇼카왕이 거느린 수많은 왕과 스님들도 황홀한 느낌으로 부처님 모습을 우러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중이 부처님 모습을 우러르고 있었습니다.

용왕은 이레 동안 부처님 모습을 한 채 꼼짝을 않았습니다. 대중은 이레 동안 꼼짝을 않고 부처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모습은 단정하고, 곧고, 엄숙한 몸매였습니다. 거기에서 둥근 광명이 비쳤습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띠었습니다.

귀가 두텁고 귓불이 긴 것도 잘난 모습이었습니다. 정수리가 높고 묘했습니다. 가지런한 눈썹 사이에 희고 부드러운 백호가 오른쪽으로 말려 있었습니다. 백호에서 끊임없이 광명이 비쳤습니다.

볼수록 마음이 끌리는 모습이어서 이레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부처님 모습이 완전하게 대중의 가슴에 그려졌습니다. 부처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모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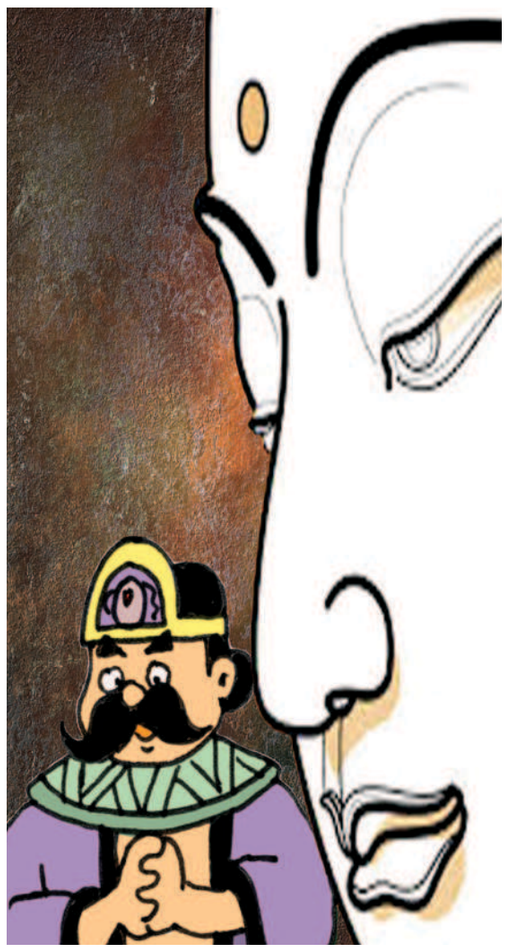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레가 지나자 용왕은, 일어서서 모습을 바꾸고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부처님 모습을 가슴에 지닌 대중은 부처님 법을 온 세상에 펴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아쇼카왕은 부처님 법을 펴기 위해, 세상이 놀랄 만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왕은 곧 나라의 창고를 열어, 은전 96억량을 내어다 쌓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거느린 나라가 8만 4천이다. 그 나라에 이 은돈을 고루 나누어서 절을 짓도록 하라! 그 8만 4천이 절에 부처님 상을 모시게 하라! 그리고 그 8만 4천의 절에 탑을 세우게 하라!"

그리고, 8만 4천의 탑에는 부처님과 아쇼카왕의 행적을 글로 새기게 했습니다. "나도 하나의 절과 보배탑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한 아쇼카왕은 자기도 절을 짓기로 했습니다. 경치가 좋은 산 하나를 골라 '아쇼카의 산'이라 이름지었습니다. 이 아쇼카의 산에다 아름답고 우람한 절을 짓고, '아쇼카왕의 절(阿育王寺)'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공사의 총감독을, 건축 기술이 뛰어나고 신통력을 지닌 인타굴다(因陀掘多) 아라한에게 맡겼습니다.

'뚝딱 뚝딱, 스윽 스윽…' 수미산 남쪽 세상, 염부제가 절을 짓는 소리, 탑 쌓는 소리로 요란해졌습니다. 돌을 깨고 돌을 다듬는 소리,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다듬는 소리였습니다. 한 편에서는 불상을 조성했습니다.

'어여엉차 영차 영차!'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고, 탑돌을 들어 옮기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신통력을 지닌 총감독 인타굴다 아라한은, 신통력을 지닌 부하들을 거느리고, 8만 4천 공사장을 뛰어다녔습니다.

공사는 3년 만에 끝났습니다. 8만 4천의 절과 8만 4천의 탑을 이룩했습니다. 절마다 부처님 상을 모셨습니다. 부처님 모습을 아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절마다 모습이 똑같은 부처님상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얼굴 모습, 정수리의 모습, 귓불이 긴 귀의 모습, 눈썹 사이에 동그란 백호의 모습, 인(印)을 지은 손가락 모습, 앉은 모습, 선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아쇼카의 산에 크고 우람하게 지은 '아쇼카왕의 절'도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참으로 큰 일을 이룩한 것이었습니다.

아쇼카왕은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려 8만 4천의 절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축하의 불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5계를 받고 부처님께 귀의하기로 했습니다.

8만 4천의 절에서 큰 북을 차려놓고, 같은 시간에 축하의 북을 "둥 둥 둥!" 울렸습니다. 수미산이 꿈틀, 진동을 했지요.

선견률비바사(善見律毘婆沙) 제1권 아육왕품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내맘쏙일상 #내인생필템 #좋아요

정목스님의 나무아래 앉아서

목 09:00, 14:00 / 토 16:00 / 월 23:00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tv HD 305번 TV HD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





현대불교신문사 ☎02) 2004-8214

불기 2562 무술년 불교달력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로 주문하십시오

여러 분야의 작품들을 선정하여 최고의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과 동시에 신속한 납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02) 2004-8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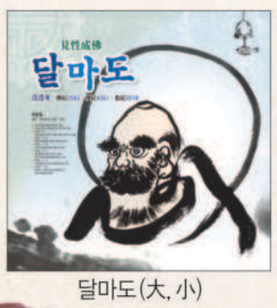

야생화(小)


행복한 세상(大, 小)


선화의 향기(大, 小)


선으로 가는 길(大, 小)


천진불(大, 小)


달마도(大, 小)


붓다의 향기(大, 小)


산사의 향기(大, 小)


암자에 길을 묻다(大, 小)


관음도(大, 小)


그리운 금수강산(大, 小)


밝고 향기롭게(大, 小)


부모은중경(大, 小)

☎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 신문사]

반야용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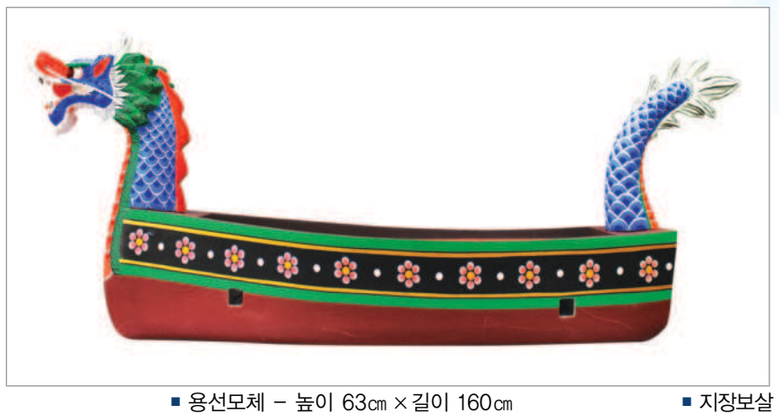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인로왕번 – 높이 129㎝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금 액 : 450만원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제조사 : 안스아트